

FTKorea Research Center

116개 키워드로 살펴 본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주요 의제



## 연구

(주)공감만세

## 연구책임

고두환 (주)공감만세 대표이사

조우석 (주)공감만세 이사

## 연구원

이탁연 (주)공감만세 연구위원

정구영 (주)공감만세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제출문

서울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116개 키워드로 살펴 본 청년세대  
가치관과 주요 의제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1.

주식회사 공감만세  
대표이사 고두환



## 국문초록

우리가 세대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세대’가 한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대 문제의 핵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선제적으로 청년세대가 중시하는 가치와 미래의제를 세밀히 발굴한다면, 앞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거주 청년세대를, 밀레니얼세대(본문에서는 ‘M세대’와 혼용해서 사용)와 Z세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서 밀레니얼세대는 1980년~1994년 출생한 세대, Z세대는 1995년 이후 출생한 세대로 정의하였고, 설문 개발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초안을 수정·보완하고 116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이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같은 청년세대이지만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선호하는 가치에서 매우 다른 특성을 보였다. 밀레니얼세대는 경제/일과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항목에서 강한 선호를 보였고, Z세대는 커뮤니티/관계와 정치/사회/참여에서 강한 선호를 보였다. 두 세대를 다른 그룹으로 분류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요시 하는 의제에 차이를 보였다.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세대 내에서는 서로 어떻게 같고 다른지, 또 청년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와 미래의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된 적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실증적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것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을 직접 확인하고 분석한 것에 대표적인 의의를 둘 수 있다.

**주요어 :** 청년, 서울, 가치관, 미래의제, 청년세대, 밀레니얼세대, Z세대

# 목차

<b>01 서론</b>	<b>1</b>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_연구의 대상 및 방법	3
3_선행연구 검토	9
<b>02 세대: 정의, 분류, 기성세대</b>	<b>16</b>
1_세대의 구분과 정의	16
2_국가 별 세대 구분	17
3_본 연구의 세대 구분	20
4_대한민국 기성세대의 정의 및 구분	21
5_소결	25
<b>03 청년세대: 정의와 특징</b>	<b>26</b>
1_정의	26
2_분류	29
3_특성	31
4_소결	39
<b>04 116개 키워드로 살펴본 청년세대 가치관과 주요 의제</b>	<b>41</b>
1_조사 개요	41
2_조사 결과: 전체, 세대별 응답(M세대, Z세대)	43
3_조사 결과: 세대 간 차이(M-Z)	69
4_소결: 청년, M세대와 Z세대는 같은가, 다른가?	78

<b>05 23개의 질문으로 살펴본 청년세대 가치관: 공통점과 차이점</b>	<b>82</b>
1_M세대 vs. Z세대: 존중과 배려	82
2_M세대 vs. Z세대: 오프라인 관계, 온라인 관계, 관계의 다양성	85
3_M세대 vs. Z세대: 가족에 대한 인식	87
4_M세대 vs. Z세대: 금전적 가치 여가와 흥미를 바라보는 인식	89
5_M세대 vs. Z세대: 가치관에 대한 인식	92
6_M세대 vs. Z세대: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복지, 의료공공성, 사회변화,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에 대한 인식	93
7_M세대 vs. Z세대: 과정과 결과	97
8_M세대 vs. Z세대: 기후변화, 미세먼지, 재생에너지, 탈원전	100
9_M세대 vs. Z세대: 공정, 평등, 경쟁	102
10_M세대 vs. Z세대: 미래 불안	103
<b>06 결론</b>	<b>106</b>
<b>참고문헌</b>	<b>116</b>
<b>부록</b>	<b>118</b>
1_설문지	118
2_면접조사지	125
<b>Abstract</b>	<b>129</b>

# 표 목차

[표 1-1] 연구 프로세스	3
[표 1-2] 32개 선행연구 문헌 목록	4
[표 1-3] FGI 참여자 정보	8
[표 2-1] 세대 분류	20
[표 2-2] 기성세대 성장 배경 비교	22
[표 3-1] 청년세대에 대한 다양한 별칭	30
[표 3-2] 청년세대 분류	30
[표 3-3] 1980년 이후 한국사회 주요 사건	33
[표 3-4] 청년세대 성장 배경 비교	34
[표 4-1] 연구 프로세스	41
[표 4-2] 표본집단 전체(60명)의 응답값	43
[표 4-3] 표본집단 전체(60명)의 응답값 중 중위로 꼽힌 키워드 1/3	49
[표 4-4] 표본집단 전체(60명)의 응답값 중 하위로 꼽힌 키워드 1/3	52
[표 4-5] 전체 설문에서 상위/중위/하위 그룹이 차지한 응답의 개수 및 비율	55
[표 4-6] M세대와 Z세대 응답 비교표	57
[표 5-7] 세대별 응답에 대한 기본 통계량	60
[표 4-8] M세대와 Z세대가 선정한 개별 키워드와 공통 키워드(상위 1/3)	61
[표 4-9] M세대와 Z세대가 선정한 개별키워드와 공통키워드(중위 1/3)	65
[표 4-10] M세대와 Z세대가 선정한 개별키워드와 공통키워드(하위 1/3)	67
[표 4-11] (M-Z) 비교표	69
[표 4-12] $(M-Z) \geq 5$ 항목	73
[표 4-13] $(Z-M) \geq 5$ 항목	74
[표 4-14] $4 \geq (M-Z) \geq -4$ 항목	77



[표 4-15] 항목별 (M-Z) 합계 비교표	80
[표 6-1] 항목별 (M-Z) 합계 비교표	107
[표 6-2] 세대별 사회·경제·문화적 차이에 대한 비교표	113

# 그림 목차

[그림 4-1] 청년세대 전체의 응답값 합계(누적 막대그래프)	46
[그림 4-2] M세대와 Z세대 정규분포 그래프: (위) M세대, (아래) Z세대]	60
[그림 4-3] 116개 문항에 대해 (M-Z) 값을 표현한 막대그래프	78
[그림 4-4] M세대의 응답값	79
[그림 4-5] Z세대의 응답값	79
[그림 4-6] 전체 항목에 대한 (M-Z)의 막대그래프	80
[그림 6-1] 전체 항목에 대한 (M-Z)의 막대그래프	106

# 01. 서론

##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우리가 세대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세대’가 한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대 문제의 핵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박치완, 2019)
- 베이비붐세대 또는 X세대로 대표되는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이전 세대는 세대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 이에 기반한 공통된 정체성을 가졌음. 즉, 세대 전체를 하나의 집단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음.
-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청년세대는 세대 내의 공통된 정체성만큼이나 세대 내에서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 계층으로 분화되는 특성을 보임. 두 세대는 부모 세대가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로 각각 다르고, 경제상황, IT 대중화 정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과정에서 성장했음. 우리는 ‘청년세대’ 내에서 이러한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 집단을 ‘밀레니얼세대(출생연도 1980~1990년대 초)’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로 구분할 것임.
  - 밀레니얼세대는 유년기(10세 이전)에 경제호황을 경험했으나, 청소년 성장기에 IMF 외환 위기라는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공동체 기반의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본격화되는 경험을 한 세대임. 카페·온라인 커뮤니티(프리챌, 싸이월드)와 같은 커뮤니티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용하였고, 베이비붐세대가 부모임.
  - Z세대는 IMF 구제금융부터 2002년과 2008년에 차례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성장기 내내 경제위기와 저성장 상황에서 성장함. 또한 개인주의적 문화가 일반화된 시대에

서 성장한 세대로, 아날로그에 비교적 익숙하고 친숙한 밀레니얼과 달리 아날로그에 대한 경험이 없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며, X세대가 부모임.

○ 앞에서 보았듯이,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부모세대의 차이, IT·통신기술·온라인서비스,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경험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 이러한 점에서 ‘청년’은 단일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가정임.

-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공통의 키워드·의제가 무엇이고, 세대 내에서 차이를 보이는 키워드·의제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어려울 것임.

○ 그러나, 현재 청년세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키워드·의제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국내 연구가 부재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됨

- 국내에서 진행된 청년세대 관련 기존 연구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의 사례 분석 또는 청년 세대 일자리 및 고용 관련 연구조사에 집중됨.
- 민간에서도 청년세대 특성 파악을 위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조사들은 마케팅 관점에서 청년세대의 소비패턴 파악에 국한된 한계가 있음.

## 2) 연구 목적

○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어떤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세대 내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또 청년세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을 찾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를 통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선제적으로 청년세대가 중시하는 가치와 미래의제를 세밀히 발굴한다면, 앞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진행돼야 할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2\_연구의 대상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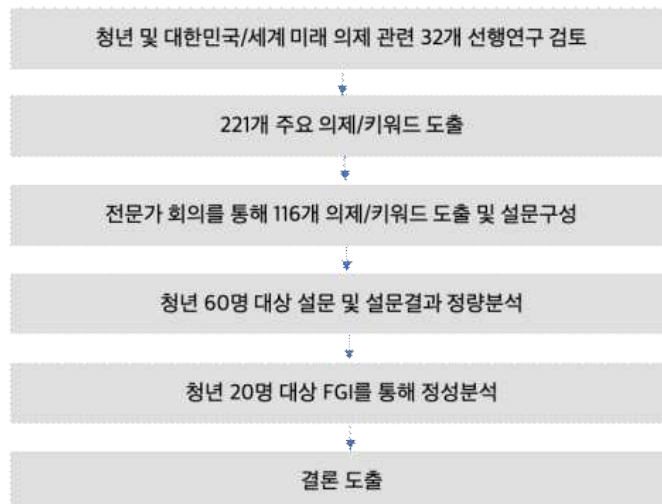
### 1) 연구 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세대로,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함.
  -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를 가르는 데에 합의된 기준은 없으나, 통상 밀레니얼세대는 1980~1990년 중반 또는 1980~1990년 말까지 출생한 세대, Z세대는 1990년 중반 또는 1990년 말~2010년대 초반 또는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일컬음.
  - 본 연구의 대상으로서 밀레니얼세대는 1980년~1994년 출생한 세대, Z세대는 1995년 이후 출생한 세대로 정의함.
-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표본집단으로서 밀레니얼세대 30명, Z세대 30명을 선정해서 1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시행하고, 설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FGI를 시행함.

### 2) 연구 주요 방법

- 연구 프로세스
  - 연구 프로세스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1] 연구 프로세스



- (1단계) 청년과 미래의제 관련 32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청년의 가치관이나 미래 의제 관련 221개의 키워드 도출 후 전문가회의를 통해 116개 키워드로 설문 구성함.
- (2단계) 116개 문항에 대해, 청년 60명(밀레니얼세대 30명, Z세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시행 및 설문결과 분석함. (정량분석)
- (3단계) 정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을 구성해서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포커스그룹 인터뷰 시행함. (정성분석)

#### ○ 선행연구 문헌 선정 및 분석

- 키워드 추출의 기본이 된 문헌은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됨. 첫째, 최근의 청년세대와 관련된 자료(도서, 보고서, 논문, 발간자료 등). 둘째, 대한민국 또는 세계 미래의제와 관련된 자료. 마지막으로, 설문문항 구성 또는 키워드 구성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임.

[표 1-2] 32개 선행연구 문헌 목록

NO	문헌 제목
1	20대 남자(천관울 외, 2019)
2	4차산업혁명 대정부권고안(4차산업혁명위원회, 2019)
3	90년생이 온다(임흥택, 2018)
4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5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연대기(최섯별, 2018)
6	미래결정 정책의제 연구(국회미래연구원, 2018)
7	밀레니얼 - Z세대 트렌드 2020(대학내일, 2019)
8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의 문화적 차이(전종우, 2020)
9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주얼리 시장 경향 연구(김정지, 2019)
10	밀레니얼 이코노미(홍춘욱 외, 2019)
11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0(대학내일, 2019)
12	밀레니얼의 반격(전정환, 2019)
13	사이버 대중으로서의 청년 세대에 대한 고찰(이동후, 2009)
14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김홍중, 2015)
15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박영숙 외, 2020)
16	세대론의 르네상스와 디지털 원주민 세대의 이해(박치완, 2019)
17	신세대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 연구 : Z세대를 중심으로(박혜숙, 2016)
18	신세대(New Generation)에 관한 SNS상의 인식 리서치 연구 :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연관어 비교를 중심으로(추진기, 2020)

19	우리나라 각 세대의 특징 및 소비구조 분석 : 포스트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조현승 외, 2017)
20	중국의 세대구분과 세대별 특성 : 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이중희, 2013)
21	직장 내 밀레니얼세대에 대한 오해와 밀레니얼세대 리더십(박진성, 2009)
22	청년 대중서로 본 동시대 청년 담론의 전개 양상(이광석 외, 2018)
23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김형주 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24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 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김선기, 2016)
25	트렌드 코리아 2020(김난도 외, 2019)
26	UN지속가능발전목표(UN, 2015)
27	Y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 : 세대별 일의 가치를 통해 본 의미 및 역할(이혜정 외, 2013)
28	Z세대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와 정책 과제(박해식, 2020)
29	Z세대가 즐기는 유튜브 채널의 몰입 요인과 특징(강민정 외, 2020)
30	Z세대를 위한 주체성 담론 고찰(지승학, 2019)
31	Z세대를 주목하라(오수연, 2018)
32	Both Gen Z & Millennials Believe This Is The Biggest Problem Their Generations Face Now(YPulse, 2019)

## ○ 221개 키워드 도출

- 위의 32개 문헌 및 각종 기사, 포털의 빅데이터(네이버 빅데이터랩, 구글 트렌드)의 키워드를 참고하여 221개의 키워드풀을 작성함.

### [키워드 POOL(221개)]

행복, 낮은 혼인율, 낮은 출산율, 고용위기, 여가, 심리적 만족, 정치·사회 참여, 청년 주거, 워라벨, 52시간 근로, 참여, 인정욕구, 흥미, 스마트 소비, 연결, 미니멀리즘, 유머, 정직, 부의 축적, 성공, 혈연·지연·학연, 취향,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 커뮤니티, 경제위기, 위로, 힐링, 잉여, 빈곤, 이생망, 비정규직, 차별, 독립, 민족, 지위, 신기술, 권위, 성역할, 현재·미래, 생존, 공존, 욕구, 감정, 저항, 반항, 유희, 자유, 도전, 모험, 정치적 열정, 디지털, 창의, 민주, 혁신, 비정규직, 가계 부채, 경제적 안정, 부의 축적, 비만,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유머, 여가, 재산과 경제력, 결과, 과정, 재테크, 참여, 열정, 온라인 활동, 디지털 네이티브, 개인주의, 자신에 대한 투자, 배려, 불안, 생존, 공유, 실용, 명예, 실리, 다양한 관계, 선한 변화, 질서, 규칙, 정직, 신뢰, 솔직, 행동, 가치관, 취업 및 스펙, 자기계발, 경쟁, 교양, 격려,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 탈권위, 평등, 지도자, 시민, 미래에 대한 불안, 취업난, 경제위기, 촛불, 탄핵, 고용안정, 성평등, 자존감, 연결, 세계화, 국제화, 한류, 소확행, 옴로, 사회적 이슈에 참여, 존중, 타인의 평가, 상품 후기, 인내심, 지구력, 일에서 얻는 보람, 일에서 얻는 즐거움, 일에서 얻는 보상, 성공과 부, 재미와 즐거움, 공정, 텍스트, 이미지, 영상, 스토리, 익명성, 온라인 커뮤니티, 취향, 열리어답터, 독립, 부채, 문화적 개방성, 경제적 가치, 안정과 실용, 시스템에 대한 신뢰, 순간 집중력, 사회 변화, 창업, 이후변화, 불평등 완화, 혁신, 사회복지, 노후 준비, 지속가능성, 초고령사회, 소셜미디어, 따돌림, 차별, 기술중독, 적폐청산, 평화, 비리 척결, 통일, 기본소득, 탈원전, 미세먼지, 의료공공성, 전염병, 사회적 약자 보호, 4차산업혁명, 동물권, 채식.

### ○ 정량분석으로서 설문 기획 및 구성, 분석 방법

- 221개 키워드풀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중복 또는 불필요한 키워드 제외, 재구성 등의 작업을 거쳐서 최종 116개 키워드(위제)로 정리해서 설문 문항 구성함.
- 116개 문항은 각 문항의 특성, 청년들의 관심분야 및 미래의제의 주요 트렌드 등을 고려해서 5개 항목으로 재분류함(라이프스타일, 경제/일, 커뮤니티/관계,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정치/사회/참여).
- 설문지는 위의 116개의 각 항목을 5점 리커트척도(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5점,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항은 10점)로 구성해서 설문 진행함.
- 설문의 결과는 5점 리커트척도 설문에 대한 응답값을 모두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분석. 즉, 116개 각 항목에 대해 60명의 응답값을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세대별 특성을 분석함.

※ 각 개인의 응답을 기초로 청년세대의 특성 또는 청년세대 내 M세대와 Z세대 간의 차이를 주요하게 비교·분석하려는 본 연구목적과 분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평균값이 아닌 합산값을 사용.

### ○ 정성분석으로서 FGI 질문 구성 및 분석 방법

- 116개 문항에 대해, 청년세대 60명으로부터 설문을 받은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질문을 구성해서 각 세대별로 FGI를 시행함.
- 설문분석 결과, 특별히 의미가 있거나 특이한 것들, 혹은 기존의 통념과 다른 것, 또는 두 세대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들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FGI 질문 구성함.
  - ▶ Z세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공정/평등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인 이유.
  - ▶ M세대가 오프라인 관계와 다양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 두 문항이 Z세대와 점수 차이가 매우 큰 이유.

## 3) 선행 문헌 연구

### ○ 주요 문헌별 내용분석 및 관련 키워드 도출

- UN지속가능발전목표(UN, 2015)
  - ▶ 빈곤 종식, 기아 해소와 지속 가능한 농업, 건강 및 복지,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혁신과 인프라, 불평등 완화,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평화와 정의 및 제도, 파트너십.



→ 유추 키워드 : 기후변화, 불평등 완화, 혁신, 사회복지, 노후준비, 지속가능성

- UN지속가능발전목표 외 31개 문헌도 유사한 방식으로 문헌을 분석하고 키워드 도출함.

#### 4) 설문 및 FGI

##### ○ 설문 기획 및 조사, 분석

- (설문문항 선정) 문헌연구 내용을 기초로 1차로 221개 키워드풀을 작성하고, 이후 연구진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초안을 수정·보완하여 116개 키워드를 선정함.
- 서울특별시 거주 밀레니얼세대 30명, Z세대 30명의 청년 총60명을 대상으로 함.

##### ○ 분석방법

- 116개 문항별로 60명의 응답값을 합산하여, 문항별 총점을 도출. (합산)총점을 기준으로 116개 문항 간 응답값을 비교함.
- 60명 전체의 응답을 합산한 값과 M세대와 Z세대 각각의 응답값을 합산한 값, 두 가지로 나누어서 비교·분석 시행. '오프라인 관계'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M세대는 109점(25위)을, Z세대는 135점(3위)을 부여해서 청년세대 전체로서 오프라인 관계의 중요도에 대한 총점은 244점으로 116개 항목 중 24위임.

※ '오프라인 관계와 같이 청년 세대 내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는 응답값이 다수 있기 때문에, 청년 전체(60명)의 응답값을 분석하는 것보다, 청년 세대 내에서 각 세대별(M세대 30명, Z세대 30명)로 응답값을 분석하는 것이 현실에 보다 가까운 해석일 것임.

##### ○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 1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은 정량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제약이 있음. 본 설문은 청년들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 선호체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설문의 특성상, 응답자가 특정 점수를 선택한 개인적·사회적 배경이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정성분석이 중요. 본 연구에서는 응답값의 정성분석을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시행해서, 생애사연구방법론에 기초해서 결과를 분석했음.
- FGI는 청년세대 총00명(밀레니얼세대 0명, Z세대 0명)을 대상으로 함.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연령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하였음.

- ▶ FGI 질문은 설문조사에서 다루었던 내용 및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함.
- ▶ 생애사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의 한 장르로서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통해 맥락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맥락성, 구술성, 내러티브적 성격을 갖고 있음.

[표 1-3] FGI 참여자 정보

No	성명	세대	출생연도	성별	직업	결혼
1	조○○	M세대	1988	여	취업	○
2	이○○	M세대	1988	여	취업	×
3	노○○	M세대	1988	남	취업	×
4	문○○	M세대	1989	여	취업	×
5	권○○	M세대	1989	남	취업	×
6	심○○	M세대	1989	남	취업	×
7	임○○	M세대	1989	남	취업	×
8	이○○	M세대	1989	남	취업	×
9	최○○	M세대	1989	여	기타	×
10	박○○	M세대	1991	남	취업	×
11	류○○	M세대	1994	남	취업	×
12	이○○	Z세대	1996	여	학생	×
13	허○○	Z세대	1996	여	학생	×
14	김○○	Z세대	1997	여	학생	×
15	선○○	Z세대	1997	여	학생	×
16	한○○	Z세대	1999	여	학생	×
17	전○○	Z세대	1999	남	학생	×
18	이○	Z세대	1999	남	학생	×
19	정○○	Z세대	1999	여	학생	×
20	김○○	Z세대	2000	남	학생	×
21	한○○	Z세대	2000	여	학생	×

### 3\_선행연구 검토

#### ○ 주요 문헌별 내용분석 및 관련 키워드 도출

##### - UN지속가능발전목표(UN, 2015)

- ▶ 빈곤 종식, 기아 해소와 지속 가능한 농업, 건강 및 복지,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혁신과 인프라, 불평등 완화,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평화와 정의 및 제도, 파트너십.

→ 유추 키워드 : 기후변화, 불평등 완화, 혁신, 사회복지, 노후준비, 지속가능성

##### - 미래결정 정책의제 연구(국회미래연구원, 2018)

- ▶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적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 정책 및 사회 정책 수립, 다양한 가족 구성을 포용하는 사회통합적 정책 개편.
- ▶ 성장 둔화와 기술 요인에 따른 중산층 붕괴 및 경제적 양극화 대응 정책,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식 생산 및 사회 변화 대응.
- ▶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스템 개혁.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합리적 역할 분담,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정주환경 개선.

→ 유추 키워드 : 초고령사회, 출산, 가족, 스마트기술

##### - Both Gen Z & Millennials Believe This Is The Biggest Problem Their Generations Face Now(YPulse, 2019)

- ▶ 13세 ~ 17세 : 기후 변화, 소셜미디어, 기술 중독, 총기 사고·학교 테러, 따돌림, 정치, 부채, 정신 건강, 게으름, 마약.
- ▶ 18세 ~ 36세 : 기후 변화, 부채, 경제, 마약, 기술 중독, 소셜미디어, 인종주의·차별, 소득 불평등, 생활비, 기성세대.

→ 유추 키워드 : 소셜미디어, 따돌림, 차별, 기술중독

#####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적폐청산, 반부패 개혁, 과거사 문제, 표현의 자유/언론 독립성, 광화문 대통령, 인권과 민주주의, 개헌, 열린 혁신 행정, 공정 인사, 해외 국민 보호, 애국에 대한 보답, 사회가치 실현, 권력기관 개혁, 민생 치안, 약자 보호, 과세 형평.

-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일자리 창출, 공공인프라, 일자리 지원, 일자리 안전망, 서비스 산업 혁신, 가계부채 해소, 금융 선진화, 공정한 시장, 재벌 개혁, 공정 거래, 사회적 경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서민 지원 강화, 규제 개혁, 생활비 절감, 교통 공공성과 교통산업 경쟁력, 4차산업혁명 기반 구축,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친환경 미래에너지,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맞춤형 사회보장, 노후 생활 보장, 건강보험 강화와 예방 지원, 의료 공공성과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 서민 안심 주거,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저출산 극복, 교육 공공성, 교육 혁신, 교육 희망사다리, 고등교육과 평생 직업 교육 혁신, 아동·청소년 성장 지원, 미래 교육 환경과 안전한 학교, 재난 안전의 국가 책임,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생활안전, 미세먼지 해결, 지속 가능한 국토, 탈원전, 신기후체제,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노동 존중, 차별 없는 일터, 사회 차별 해소, 성평등, 생활문화, 예술인 창작권 보장, 공정 문화 생태계와 한류, 미디어 발전, 일·생활 균형, 국민 스포츠, 관광 활성화.
-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자치분권과 주민 참여, 재정분권, 교육자치, 특별지역 분권모델 완성, 균형발전, 도시재생뉴딜, 해운·조선 상생, 농산어촌 복지,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해양환경과 어장.
-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국방력 강화, 전작권 전환, 국방개혁, 방산비리 척결과 방위산업 육성, 장병 인권 보장, 경제통일, 남북관계 재정립, 한반도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교류 활성화, 통일국민협약, 평화체제, 국민공공외교, 협력외교, 동북아플러스 협력 공동체, 경제외교, 보호무역 대응.
  - 유추 키워드 : 적폐청산, 평화, 비리 척결, 통일, 평화, 기본소득, 탈원전, 미세먼지, 의료공공성, 전염병, 사회적 약자 보호

#### - 4차산업혁명 대정부권고안(4차산업혁명위원회, 2019)

- ▶ 일자리, 교육, 사회보장,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모빌리티·물류, 농수산식품, 스마트시티, 인공지능·데이터,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

→ 유추 키워드 : 4차산업혁명

#### -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0(대학내일, 2019)

- ▶ 추구하는 가치 소신 : 환경, 취향 존중, 미니멀리즘, 동물, 역사, 약자, 직업 처우 개선, 성평등, 성소수자, 비거니즘.

→ 유추 키워드 : 동물, 채식

- 트렌드 코리아 2020(김난도 외, 2019)

- ▶ 2019년 : 연출된 컨셉, 세포마켓, 뉴트로, 필환경시대, 감정대리인, 데이터 인텔리전스, 카멜레온, 밀레니얼 가족, 나나랜드, 매너소비자.
- ▶ 2020년 : 멀티 페르소나, 라스트핏 이코노미, 페어 플레이어,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팬슈머, 특화생존, 오판세대, 편리미업, 업글인간.

→ 유추 키워드 : 환경, 가족, 기술, 개인화, 생존

-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박영숙 외, 2020)

- ▶ 앞당겨진 미래 : 코로나19와 전염병, 디지털 학습, 로봇, 기본소득, 디지털 통화, 스마트시티, 드론, 데이터.
- ▶ 건강과 수명 연장 : 노화, 고령화, 마이크로바이옴, 3세대 유전자 가위, 가상현실, 증강현실, 원격의료, 예방적 의료, 뇌, 인공신경세포, 치매, 백신, 줄기세포.
- ▶ 스마트시티 & 라이프 : 유전자편집, 전기차, 자율주행차, 비행자동차, 스마트로드.
- ▶ 경제와 일자리 : 경험 경제와 구독 경제, 혁신.
- ▶ 거버넌스 : 초연결사회와 세계 시민권, 거버넌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 ▶ 환경과 에너지 : 기후 변화, 순환 경제, 생물다양성, 배양육, 태양광, 원자력발전소.
- ▶ 기술 : 양자컴퓨팅, 나노제조기, 보안기술.

→ 유추 키워드 : 원격의료, 인공지능, 생물다양성, 재생에너지

-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 ▶ 본 연구는 우리 사회 청년의 일과 삶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조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시행됨. ‘청년과 함께 하는 미래 한국’이란 비전 하에 5개 분야 16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함.
- ▶ 인구·가족 및 교육 : 혼인을 제고를 위한 주거 및 금융 지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행복지표 조사, 졸업유예가 필요 없는 사회연계형 대학취업 지원체계 강화, 산학연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도입 및 확대.
- ▶ 경제·고용 및 주거 : 일자리 및 경제 측면의 고용위기 해소정책 우선순위 조정, 이직 및 전직 지원체계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수혜 확대 및 평가,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 패러다임 전환.
- ▶ 건강 및 문화 : 심리치료 및 심리정서 지원 강화, 건강검진 수검률 확대, 문화 및 여가 취약지역 인프라 구축, 저소득층 청년의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
- ▶ 관계 및 참여 :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청년의 정치 및 사회 문제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 법·제도 기반 : 청년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법 제정, 청년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센터 구축.

→ 유추 키워드 : 행복, 낮은 혼인율, 고용 위기, 여가, 심리적 만족, 정치·사회 참여, 청년주거

-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연대기(최선헌, 2018)

- ▶ 이 자료는 한국 사회의 세대를 둘러싸고 진행되어온 논의 및 문제점들을 개괄해 제시하는 한편, 기존 연구 및 서적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세대 간의 상호 교차적 인식이나 세대 자체의 특성에 대한 보다 심화된 논의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 지금까지의 세대 연구들은 특정 시기 두드러졌던 사회상이나 구조적 변화를 토대로 그러한 변화가 극적으로 드러나는 어느 한 측면에 집중해옴.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세대 간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지만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문화 영역별 의식이나 생활상을 포괄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 세대에 대한 관심과 방향이 특정 연령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남음. 이 책에서는 어느 한 세대와 영역에 국한된 논의를 펼치기보다는 전 세대와 전 영역을 아우르는 분석을 진행함.
- ▶ 특히, 각 세대를 이루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시각과 그들의 목소리로 세대라는 현상을 구현해내려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90년생이 온다(임흥택, 2018)

- ▶ 이 책은 90년대생들이 놓인 사회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이들의 역량을 조직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비자로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이를 공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저자는 90년대생이라는 큰 틀에서 그들 세대에 대한 정의와 해석을 진행하였고, 기본적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통계를 활용함과 동시에, 다양한 직군의 90년대생들을 인터뷰하고 관찰조사를 함.
- ▶ 저자는 90년대생의 직원으로서의 핵심 키워드로 “워라벨”, “주52시간제”, “참여와 인정욕구”, “흥미”, “이직”을 뽑음.
- ▶ 또한 저자는 90년대생의 소비자로서의 핵심 키워드로 “스마트 컨슈머”, “연결”, “미니멀리즘”, “해외 직구”, “유머”, “정직”을 뽑음.
  - 유추 키워드 : 워라벨, 52시간 근로, 참여, 인정욕구, 흥미, 스마트 소비, 연결, 미니멀리즘, 유머, 정직

- 밀레니얼의 반격(전정환, 2019)

- ▶ 이 책은 총2부로 구성돼 있음. 1부에서는 다양한 밀레니얼 개척자(혁신창업가, 지역혁신가, 공공혁신가)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활동을 하며, 그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은 어떠한지 파악함.

- ▶ 또한 이들의 특징을 이전 세대처럼 조직의 사다리를 오르거나, 혈연·학연·지연의 품앗이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경제적 자원을 축적하고 대물림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으며, 그 대신 세상과 연결된 개인의 가치를 찾아내고 취향과 가치 중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창조적인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키운다고 설명함.
- ▶ 2부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모색함. 저자는 서구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초단기 압축성장의 길을 걸어온 탓에 여러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와 비슷하게 짧은 기간에 근대화를 이뤄낸 동아시아 국가들의 모습과 함께 한국의 과제를 파악함. 그리고 궁극적으로 서구 선진국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탈물질주의 사회로 변화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살펴봄. 이를 통해 한국의 개인과 산업, 도시가 탈물질주의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함.
- 유추 키워드 : 부의 축적, 성공, 혈연·지연·학연, 취향,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 커뮤니티

#### - 청년 대중서로 본 동시대 청년 담론의 전개 양상(이광석 외, 2018)

- ▶ 이 논문은 출판계 청년 대중서들의 주요 담론과 토픽 흐름을 추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지난 10여 년에 걸쳐 시중에 출판된 청년 대중서의 담론 특성과 계열 흐름을 읽는 질적 연구이자 메타 분석에 해당함.
- ▶ 이 논문은 대중 출판 시장의 청년서가 청년 스스로 담론 소비와 생산 주체로 등장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청년 주체 형성 과정과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매체로 기능했다는 점을 주목함.
- ▶ 이 논문은 각 시기별로 청년 담론이 구성되는 과정에 주류 담론 질서의 반복과 누적이 자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반박하거나 신생의 담론 계열체 형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 ▶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출판계 청년 담론의 토픽은 “청년 빈곤의 정치경제학 비판”으로 주요 서적은 우석훈·박권일의 「88만원 세대 :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엄기호의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등임.
- ▶ 2010년부터 2014까지의 출판계 청년 담론의 토픽은 “청년 위로와 힐링 담론”과 “기성세대 청년 논리의 반담론”으로 전자의 경우 주요 서적은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 인생 앞에 홀로 선 그대에게」, 이지성의 「스무 살, 절대 지지 않기를」등이며, 후자의 경우 주요 서적은 최태섭의 「잉여사회 : 남아도는 인생들을 위한 사회학」, 오찬호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등임.
- ▶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출판계 청년 담론의 토픽은 “청년 주체의 사회학적 재구성론”으로 주요 서적은 조성주의 「청춘일기 : 광장 밖 호모 비정규니언스에 관한 기록」, 장원석의 「앵그리 2030 :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등임.
- 유추 키워드 : 경제 위기, 위로·힐링, 잉여, 빈곤, 이생망(이번 생은 망함), 비정규직, 차별

- Y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 : 세대별 일의 가치를 통해 본 의미 및 역할(이혜정 외, 2013)

- ▶ 이 연구는 Y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의 의미와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세대라는 기준을,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에 있어 일의 가치를 주요한 선행 요인으로 봄. 이 연구는 세대별 인터뷰를 통해 각 세대가 갖고 있는 일의 가치의 특징과 이에 따른 일과 삶의 균형 상태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이 직장생활 및 전체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과 삶의 관계에서의 일의 가치와 역할을 탐색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다양한 대상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한 개념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이론적 의의를 제시함.
- ▶ 연구 결과, Y세대는 승진보다는 일의 의미와 일에서의 성취감 및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자기계발 및 여유 시간을 강조함.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다른 세대보다 높은 가치를 둬.

→ 유추 키워드 : 일의 가치, 성공

- 신세대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 연구 : Z세대를 중심으로(박혜숙, 2016)

- ▶ 이 연구에서는 소비문화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X세대, Y세대, Z세대, 알파세대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글로벌 소비문화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Z세대 라이프 스타일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 연구 결과는 첫째 Z세대는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자라난 세대로 유년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신기술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의 소비 활동에도 적극 활용하는 세대이며, 둘째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며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여 이전 세대와는 차별화된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셋째 Z세대는 순간 집중력이 그 어느 세대보다 뛰어나고, 더욱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정보를 소화할 수 있으며 두뇌의 인지를 요하는 문제에 능하며, 넷째 인종, 성별, 종교, 사회, 경제적 지위와 민족성에 대해 가장 편견 없는 세대로 여겨짐.

→ 유추 키워드 : 독립, 민족, 지위, 신기술

- 밀레니얼세대와 기성세대의 문화적 차이(전종우, 2020)

- ▶ 이 연구는 세대별 차이에 중점을 두고 밀레니얼세대가 자신들의 부모 세대인 기성세대와 문화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연구함. 설문조사를 통해 호프스테드의 문화 차원에서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밀레니얼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있어 권력 거리는 차이가 나지 않고, 불확실성 회피성향은 기성세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밀레니얼세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기성세대는 집단주의 성향을 보임. 이어서 기성세대의 경우 장기지향성은 밀레니얼세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남성성이 높음. 반면에 밀레니얼세대는 여성성 문화 성향이 나타나고, 종합적 사고 경향에 있어서는 기성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문화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차원이 호프스테드의 문화 차원임. 대표적으로



권력거리,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성향, 장기지향성, 자적·자제가 있음. 권력거리는 불평등하게 분배된 권력에 대하여 사람들이 수용하는 정도를 나타냄. 개인주의·집단주의는 자기를 중심에 두는 개인주의와 타인에 중심을 두는 집단주의로 구분됨. 남성성·여성성은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에 대한 차이를 지각하는 것으로 경쟁을 추구하느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느냐에 대한 시각을 반영함. 불확실성 회피 성향은 불확실한 것을 감내하는 수준으로 설명함. 장기지향성은 지금보다 미래를 중시하는 경향임. 자적·자제는 행복감, 삶에 대한 통제력, 여가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평가하며 마음대로 소비하고 행동하고 여유와 재미를 추구하는 것을 표현함.

→ 유추 키워드 : 권위, 성역할, 현재·미래

#### -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김홍중, 2015)

- ▶ 이 논문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청년세대의 특이성을 사회구조의 변동 논리를 통해 이해하기를 제안하면서 그들을 '생존주의세대'라고 명명하고, 그들의 공통된 집합심리를 경험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사전적 이론 연구를 시도함.
- ▶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21세기 한국의 청년세대는 생존에 대한 불안이라는 기초 감정과 서바이벌을 향한 과열된 욕망, 그리고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자신 존재의 가능성들을 전략적으로 계발하려는 집요한 계산으로 특징지어지는 독특한 마음의 역동을 보여줌. IMF 외환위기 이후 전개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화 과정에서 전면화된 이 생존주의는 21세기 한국의 청년세대의 내밀한 마음의 풍경을 이루고 있음.
- ▶ 생존주의세대는 일반화된 경쟁 상황에서 도태되지 않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마음가짐인 생존주의로 특징됨. 존재의 텔로스로 간주되는 서바이벌은 도덕적 선이라는 가치를 획득하고, 생존주의의 레짐은 독존주의, 공존주의, 탈존주의 등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음.

→ 유추 키워드 : 생존, 공존, 욕구, 감정

#### ○ 주요 문헌별 내용분석 및 관련 키워드 도출

##### -UN지속가능발전목표(UN, 2015)

- ▶ 빈곤 종식, 기아 해소와 지속 가능한 농업, 건강 및 복지,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혁신과 인프라, 불평등 완화,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평화와 정의 및 제도, 파트너십.

→ 유추 키워드 : 기후변화, 불평등 완화, 혁신, 사회복지, 노후준비, 지속가능성

## 02. 세대: 정의, 분류, 기성세대

### 1\_세대의 구분과 정의

- 세대 개념은 어떤 특정 집단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와 다른 새로운 집단의 출현을 설명하거나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과 이들이 다른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과 갖는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 집단 간의 경계를 기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개념은 우리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동일한 세대 내의 유사성과 여러 세대들 간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내쉬, 1978)
- 세대를 연대기적인 시간 구분에 따라 범주화하든 주관적 또는 내면적 시간을 근거로 경계 짓든지 간에 세대라는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세대를 구분 지음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임의성은 불가피함. (Spitzer, 1973)
- 경험적인 연구 차원에서 각 세대를 설명하고 또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대를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고, 이 구분은 세대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세대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짐. (최섯별, 2018)
- 세대를 구분하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동일시기에 출생한 코호트로 구분하는 것임. 코호트는 동년배를 뜻하는 용어로서 출생 시기, 입학 시기, 입사 시기 등과 같이 같은 시기 유력한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함. 두 번째 관점은 생애 주기에 따른 구분인데, 같은 생애 단계에 있는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관점은 친족 중 같은 항렬에 있는 사람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임.
  - IT기술의 발달로 소통하는 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같은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깊고 넓게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코호트적 관점이 가장

적합한 세대 구분으로 평가됨.

- ▶ 친족 계보와 관련한 세대 개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세대 개념들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세대 범주가 가장 기본적인 세대 구분의 기준이 되며, 한국의 세대 관련 연구들 역시 이러한 세대 규정 방식의 큰 틀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함.

○ 사실상 세대는 ‘나와 너’, ‘우리와 그들’로 규정지어지는 ‘관계적’인 개념이며, 세대 갈등은 개인의 내적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매우 주관적 차원의 문제임. ‘구세대’가 없이는 ‘신세대’를 논할 수 없고, 아무리 외부에서 세대를 다양하게 범주화한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세대로 이름 붙여진 개인들이 나와 다른 세대를 마주할 때 아무런 내적 동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최셋별, 2018)

## 2\_국가 별 세대 구분

### 1) 중국(이중희, 2013)

- 일반적으로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대 구분은 우렁허우(50년대 생), 류링허우(60년대 생), 치링허우(70년대 생), 바링허우(80년대 생), 저링허우(90년대 생)임. 이는 10년을 단위로 하여 세대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출생 시기를 주로 사용함.
- 중국 현대에서 발생했던 핵심적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중국 세대를 구분하면, 독생·정보화세대(1980~1990년대 출생자), 개혁개방세대(1968~1979년 출생자), 문화혁명 2세대(1953~1967년 출생자), 문화혁명1세대(1940~1952년 출생자), 반식민지·내전체험세대(1939년 이전 출생자)로 나눌 수 있음.
  - 문화혁명1세대는 대약진운동(1958~1962)과 문화혁명기(1966~1976)의 마이너스 성장과 참담한 생활을 경험함. 이들은 개혁개방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시장경제교육을 받지 못함. 이 세대는 1990년대 이후 도시에서 급증한下岗(下崗)의 대상이 되었음. 농촌에 있었던 이 세대들은 도농격차의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함.

※ 대약진운동은 공산혁명 후 중국에서 근대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마오쩌둥의 주도로 시작된 농업의 대증산 정책을 말함.

※ 사강은 중국 국영기업 특유의 고용정리 방식으로, 최소한의 생계보조비만 지급하는 일시 휴직을 의미함.

- 문화혁명 2세대는 다수가 문화혁명 기간에 홍위병이 되거나 하방되었고, 경제 침체기에 성장함. 대부분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세대임. 일부는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 하에서 부유층이나 중산층으로 계층 이동에 성공하기도 함.

※ 하방은 1957년 이후 상급 간부들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서, 중국공산당 당원 및 국가 공무원들을 벽지 농촌이나 공장에 보내서 노동에 실제로 종사시키는 운동을 말함.

- 개혁개방세대는 풍요와 빈곤을 모두 경험한 세대로 평가 받고 있으며,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고, 시장경제교육도 습득함. 이 세대 다수는 막 시작된 고도성장시대에 진출하여 부를 축적함.

▶ 이 세대는 부모들이 가진 교육열이나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고스란히 물려받음. 대학 정원도 늘어나면서 고학력자들도 생겨남. 유학도 본격화돼 일본, 한국,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유학을 떠나는 숫자 또한 급속히 늘어남. (임흥택, 2018)

- 독생·정보화세대는 198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1자녀 정책의 영향을 받아 가족 내 1자녀로서 또래의 세대와 동일한 경험을 한 세대이고, 디지털세대로서 풍요로운 생활과 정상적 교육 등 개혁개방의 과실을 향유한 세대임. 정치적으로 진보적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전 세대들은 독생·정보화세대를 ‘일그러진 세대’로 비판하기도 함. 부모에 의존적이며,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함.

▶ 80년대 출생자인 바링허우는 흔히 소황제라고 불리는데, 개혁개방과 산아제한정책으로 외동아들, 외동딸로 태어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혜택과 부모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고 자람. 이들은 시장경제가 피어나는 시기에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성장하기는 했지만, 기성세대의 어려운 시절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고와 개방적인 사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임. 이들은 유명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반면, 충동소비 성향이 크다고 평가 받음. 20대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엑스포를 본 덕에 중국에 대한 자부심도 강함. 유학생들도 급격히 늘었고, 사업에 대한 열망도 기존 세대에 비해 높음.

▶ 90년대 출생자인 류링허우는 제2기 소황제세대로 불리며,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익숙하고,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능함.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들을 ‘마우스세대’라고 부르기도 함. 새로운 것과 유행을 추구하며 특이한 것에 강한 관심을 보이는 것도 공통

점입. 또한 SNS 등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행위를 보이기도 하며 이로 인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함. (임흥택, 2018)

## 2) 미국(조현승 외, 2017, 재정리)

○ 미국 내 세대 구성과 각 세대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1946년에서 1965년 사이 출생하여, 성장기에 히피문화, 베트남전쟁, 성해방, 인종차별 등의 영향을 받음.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경제적 풍요를 누렸으며,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반전운동 등 사회운동을 주도함.
  - ▶ 성장기 주요 사건 : 우드스톡, 케네디 암살, 워터게이트 등.
- 미국의 포스트 베이비부머 세대는 1960년대 초에서 1980년대 초까지 출생한 사람을 일컫음. 공허함, 우울함, 냉소주의 등을 특징으로 하는 'X세대'로 불리기도 함.
  - ▶ 부동산 및 금융 버블 붕괴를 경험하였고, 맞벌이가 보편화되어 부모세대와 친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됨.
  - ▶ 전후 세대에 비해 인구 구성비는 낮고, 기존 가치나 관습에서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임. 감성과 패션을 중요시하며 소비 지향적이고, 20~30대에 아날로그시대에서 40~50대에 디지털시대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함.
  - ▶ 성장기 주요 사건 : 베를린장벽 붕괴, 챌린저호 폭발사고 등.
- 미국의 베이비부머 주니어 세대는 '밀레니얼세대'로 불리기도 하며, 1980년대 초에서 2000년 초에 출생한 사람들을 일컫음. 높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금융 위기로 높은 실업률을 경험함. 캥거루족, 피터팬 세대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결혼과 출산 의지가 낮고, SNS 등 디지털 통신에 의존도가 높음.
  - ▶ 미국의 밀레니얼세대는 앞선 세대들보다 덜 반항적이며, 더 실용적인 생각을 갖고, 개인의 가치보다는 집단의 가치를, 권리보다는 의무를, 감정보다는 명예를, 말보다는 행동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 ▶ 성장기 주요 사건 : 9.11테러, 콜럼바인 총격, ISIS 테러, 동성결혼 합법화, 흑인 대통령 당선 등

### ○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의 차이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세대는 일하는 남편과 전업주부 사이에서 성장했던 반면, X세대는 맞벌이 부부에 의해 양육됨. 그래서 X세대는 때때로 '부모 모두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와 직접 열쇠로 문을 열고 빈집에 들어가는 어린이들'이란 의미에서 '열쇠세대'라고 불리기도 함. 안정된 가정에서 자란 베이비붐세대는 가정과 가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데 비해, 50%가량이 이혼 또는 별거한 부모 밑에서 자란 X세대는 가정에 대한 동경과 반발 심리를 동시에 가짐.
- 또한 베이비붐세대가 베트남 전쟁 등 역사적인 일을 함께 겪으며 공통된 가치관과 신념을 키워왔던 반면 X세대는 그런 공감대가 적고, 사회 공통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함.
- 그밖에 베이비붐세대가 꿈꾸는 대로 이뤄진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 X세대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 자립을 보임.
- 무엇보다도 X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나 충성심이 약하고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음. (임흥택, 2018)

## 3\_본 연구의 세대 구분

○ 본 연구는 세대를 구분하고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지난 시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역사적 사건을 고려하는 코호트적 관점을 기본으로 함.

-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세대 구분과 세대 명칭을 따름.
  - ▶ 세대명은 크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로 나누고, 기성세대는 다시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로, 청년세대는 다시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로 나눔.
  - ▶ 세대구분의 경우, 베이비붐세대는 1955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를, X세대는 1965년생부터 1979년생까지를, 밀레니얼세대는 1980년생부터 1994년생까지를, Z세대는 1995년생 이후로 구분함.

[표 2-1] 세대 분류

분류	기성세대		청년세대	
	베이비붐세대	X세대	밀레니얼세대	Z세대
출생연도	1955~1964년	1965~1979년	1980~1994년	1995년 이후

## 4\_대한민국 기성세대의 정의 및 구분

### 1) 기성세대 정의

○ 출산율이 급증한 한국전쟁 이후부터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출생한 베이비붐세대와 1964년부터 1979년 사이에 출생한 2차 베이비붐세대인 X세대를 기성세대로 지칭함.

- 베이비붐세대는 국가에 따라 그 연령대가 조금씩 상이한데, 미국은 1946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난 7,200만 명이 베이비붐세대에 속하며, 일본은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806만 명이 베이비붐세대에 속함. 국내 베이비붐세대는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00만 명의 세대를 말하며, 유신세대 혹은 긴급조치세대로 명명되기도 함.
- X세대는 알 수 없는 세대라는 의미로 미지수를 뜻하는 알파벳 X로 명명되었고, X세대라는 용어는 1991년 캐나다 작가인 더글러스 코플랜드가 쓴 소설 X세대에서 따온 것으로, 미국의 대기업들이 소비시장 전면에 등장한 신세대를 어떻게 규정할까 고민하던 중 발견한 용어임. (최섯별, 2018)

### 2) 기성세대의 특징

○ 앞서서 중국이나 미국의 세대 구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각 세대는 그 세대가 성장한 사회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한국도 예외일 수 없음. 따라서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가 각자의 성장기에 겪었던 주요 사건을 확인하고 그것이 각 세대의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것임

○ 베이비붐세대(1955~1964)

- 베이비붐세대는 국내 모든 세대를 통틀어 인구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삶 전반에 걸쳐 과잉경쟁을 해야 했음. 또한 대부분의 베이비붐세대가 어린 시절 농촌에서 생활했으나 학업과 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동함.
- 부모세대로부터 근검절약과 노력을 기본적인 삶의 태도로 요구받아 이를 내면화해 근면 성실함. 고등학교나 대학의 학업을 마친 사람들은 취업 전선에 뛰어들 시기에 취업이

용이한 사회구조적 환경이 조성되어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했고, 경제호황이 계속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림. 반면에,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일부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착취 당하기도 함. 이들의 평균 결혼연령은 남성은 27.5세, 여성은 24.5세이며, 여성의 첫 출산은 26세임. 자녀는 약 2명임.

- 베이비붐세대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 모순적인 상황을 가장 많이 경험한 세대로서,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경험함.

- ▶ 베이비붐세대가 성장한 1960년대는 군부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였음. 4.19혁명을 바탕으로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은 저지됐으나, 곧바로 군사정변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군부정권의 장기 집권이 시작됨. 이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여러 시위가 일어났고, 이 시위를 저지하려는 군부 정권의 폭력적인 진압이 반복해서 발생함.
- ▶ 1960년대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근무함. 이로 인해 이 시기 여러 노동자에 의한 노동운동이 발생했고, 1970년 봉제공장의 노동자였던 전태일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음.
- ▶ 또한 이 시기에 발전한 대중문화는 1970년대 중반 검열이 시작되면서 위축되었고,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발효되면서 많은 가요가 금지곡으로 지정되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정부의 감시가 시작됨. (최섯별, 2018)

[표 2-2] 기성세대 성장 배경 비교

분류	기성세대	
	베이비붐세대	X세대
출생연도	1955~1964	1965~1979
성장기의 GDP연평균성장률	6.1%	10.8%
성장기 중 경험한 주요 정치 사건	4.19혁명, 5.16 및 유신, 박정희 대통령 피살, 광주 민주화 운동	6월민주항쟁, 6·29선언, 대통령직선제 헌법 개정
성장기 중 경험한 주요 경제 사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서울지하철 개통	3저호황
성장기 중 경험한 주요 문화 사건	미군 클럽 유행, KBS 개국, 통행금지해제, 프로야구 출범	서울아시안게임 개최, 서울올림픽 개최
성장기 중 경험한 주요 사회 사건	베트남전 파병, 전태일 분신사망, 부마항쟁, 남북이산가족 상봉	노동자 대투쟁
성장기 중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 베이비붐세대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고속 경제성장기에 청소년기를 겪었으며 1980년대 초반 제2차 오일쇼크 이후 다시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 사회진출을 시작함. 이후 베이비붐세대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즉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까지 고성장 시기에 사회활동을 하며 안정적인 경제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음. (조현승 외, 2017)

- ▶ 1960년대 국가 주도로 시작된 경제개발정책은 1970년대에 이르러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산업화의 토대를 건설했고,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과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함. (최셋별, 2018)
- ▶ 베이비붐세대의 성장기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970년 255불에서 1985년 2,355불로 상승함. (현대경제연구원, 2012)
- ▶ 베이비붐세대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는 고령층으로 편입되기 시작함. 기득권으로서 가장 많은 사회적 자원을 가졌으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부양해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함.

- 베이비붐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학력이 높으며 서구문화를 청소년기부터 접하여 문화적으로도 자부심이 강함. 대중문화의 비약적 발전을 경험함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침해받기도 함.

- ▶ 베이비붐세대의 대학 진학률은 27.7%임. (현대경제연구원, 2012)

## ○ X세대(1965~1979)

- X세대가 성장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한국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함.

- ▶ 정치적으로, 1980년대의 경우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과 같은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시기임. 6월 민주항쟁은 6·29선언을 이끌어냈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룩함.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1985년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 또한 1991년 소련 붕괴로 인한 '미국 대 소련'의 냉전체제의 와해는 X세대가 탈정치 및 탈이념화 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침.
- ▶ 그 결과 X세대에게는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나 달성해야 할 공동의 목표가 부재하게 되었고, 그 빈자리를 '나의 자유'나 '개인의 권리'에 대한 욕구가 대신하게 됨. 이러한 X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자연스럽게 기성세대의 보수적 특성과 전통적 질서,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음
- ▶ 경제적으로는 3저 호황을 바탕으로 고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임. 소비 사회

및 여가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정보화와 세계화의 바람도 X세대의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X세대는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정보화와 세계화 흐름 속에서 외국어 능력과 정보화 능력의 싹을 틔운 세대임.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1988년 서울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기도 함.

- ▶ 이 시기를 기점으로 여권 발급의 제한이 없어져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고,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교복 자율화 정책이 시행되는 등 X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자유롭게 풍요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며 성장함.
- ▶ 1990년대에 젊은 시절을 보낸 X세대는 이들이 향유한 하위문화와 독특한 가치관 및 라이프스타일로 주목받았으며, 신세대, 오렌지족 등으로 불리며 새로운 스타일의 문화를 창조했고, 오늘날까지도 대중문화영역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고 있음.
- ▶ 그러나 X세대의 상당수는 졸업시기와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음. 외환위기 이후 벤처붐 등으로 경기가 회복되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과거와 같이 7~8%대의 고성장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직장 내에서도 경쟁이 강화됨.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에 졸업한 X세대는 외환위기 이전에 취업한 사람들에 비해 사회진출 초기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도 직장 내에서 계속 치열한 경쟁을 겪게 됨. (산업연구원, 2017)

- 현재의 X세대는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공동체 의식이 약하며, 전통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 또한 회사와 가정은, 일과 여가를 엄격히 분리한다고 평가됨.

- ▶ X세대의 평균 결혼 연령은 남성은 30세, 여성은 28세임. (산업연구원, 2017)
- ▶ X세대는 부모와 한두 명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의 가족 형태가 보편화되던 시기에 유년기를 보냈고, 이 같은 가족 구조와 문화의 변화는 X세대의 삶에 '전통적 삶의 방식에 대한 거부'와 '여성 파워의 증가'라는 변화를 일으킴. (최선헌, 2018)

- 이와 같은 X세대의 특징 중 그들의 자녀들(Z세대)에게 전달되어, Z세대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에 기여함.

## ○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의 공통점

- 두 세대는 현재의 청년세대에 비해 인구수가 많고, 성장기 높은 경제성장률을 경험함.
-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는 문화적으로 자부심이 강하고, 자아실현이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한 소비 활동에 매우 적극적임.
-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는 삶 전반에 걸쳐 치열한 경쟁을 겪음. 베이비붐세대는 베이비붐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삶 전반에 걸쳐 과잉 경쟁을 해야 했고, X세대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사회에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도 직장 내에서 계속 치열한 경쟁을 겪게 됨.

## ○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의 차이점

- 베이비붐세대는 조부모, 부모, 다수의 형제, 자매로 구성된 대가족 형태의 성장기를 보냈지만, X세대는 부모와 한두 명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의 가족 형태가 보편화되던 시기에 성장기를 보냈고, 이 같은 가족 구조와 문화의 변화는 X세대의 삶에 '전통적 삶의 방식에 대한 거부'와 '여성 파워의 증가'라는 변화를 일으킴.
- 베이비붐세대는 성장기 저개발국가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으나, X세대는 성장기 서울 올림픽 등을 거치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됨.
- 베이비붐세대는 성장기 여권 발급의 제한, 해외여행 어려움, 야간 통행금지 등을 겪었으나, X세대는 여권 발급의 제한이 없어져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고,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교복 자율화 정책이 시행되는 등 자유롭게 풍요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며 성장함.
- 베이비붐세대는 학업을 마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 시기에 취업이 용이한 사회구조적 환경이 조성되어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했고, 여건도 좋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림. 반면 X세대의 상당수는 졸업 시기와 외환 위기가 겹치면서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에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도 직장 내에서 계속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됨.

## 03. 청년세대: 정의와 특징

### 1\_정의

#### 1) 청년

○ ‘청년’의 사전적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의 사람’을 일컫음.

- 청년은 역사적으로 발명된 하나의 개념(유럽, 18세기)으로서,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에 수입되어 당시의 다양한 사회적 과제들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존재들에게 부여된 기호임.
- 20세기를 거치면서 청년은 국가 건설의 주역, 계몽주의자, 산업역군, 반공전사, 민주화 투사,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 혹은 아방가르드 등으로 다양하게 호명되어 옴. 이 과정에서 청년은 대개의 경우 특정 거대서사의 담지자 역할을 수행했고, 기성 권력과 제도를 부정·비판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운동적 주체성의 상징으로 여겨짐. (김홍중, 2015)
- 그러나 21세기의 청년은 가혹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사회적 과제들의 수행은 고사하고, 본인의 과제들 역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임.
- 저항, 반항, 유희, 자유, 도전, 모험, 정치적 열정은 이들의 리얼리티와 무관하게 되었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토로 등장하는 것은 ‘생존’임.
- 반면 21세기 청년을 디지털세대로 명명하며 이전의 텔레비전세대와 달리 창의적이고,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함.

→ 유추 키워드 : 저항, 반항, 유희, 자유, 도전, 모험, 정치적 열정, 디지털, 창의, 민주, 혁신

### [법령에서 정한 청년의 연령 범위]

- 2020년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 다만, 다른 법령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는 15세~34세를,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15세~29세를 기본으로 하되 병영 이행 시 연령 상한을 35세까지로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까지를 청년 연령의 상한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상 청년 연령 범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 울산, 세종, 경기, 충북, 경북는 연령 하한을 15세로 하였고, 나머지 시도는 18세 혹은 19세로 설정. 연령 상한의 경우는 34세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9세, 29세 순으로 나타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 2) 청년세대

- 청년세대는 청년기에 어떤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받아 특정한 의식·문화·지식을 갖게 되는 동일한 혹은 유사한 출생 코호트이며, 자신이 속한 코호트에 대하여 최소한 느슨한 수준에서라도 동류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임. (성지현, 2019)

## 3) 청년 관련 각종 수치

- (인구) 2019년 기준 15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 인구는 남성 896만 명, 여성 807만 명 등 총 1,703만 명이며, 전체 인구 대비 구성비는 남성 34.6%, 여성 31.3% 등 총 32.9%이며, 체류외국인 수는 약 130만 명임. (통계청, 2019)
- (경제) 2018년 기준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3.1%로 남성은 73.7%, 여성은 52.9%이며, 월 임금총액은 약 303만 원임.
  - 청년층 임금근로자 전체 대비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비율은 2018년 기준 33.0%로 2014년 이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기준 청년들의 부채는 29세 이하는 2,430만 원, 30대는 6,920만 원임.

- 2019년 기준 청년들의 한 달 생활비는 약 79만 원으로, 15세~18세는 약 29만 원, 20대는 약 74만 원, 30대는 약 100만 원임.
-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안정적인 회사(25.7%),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19.4%), 급여가 높은 회사(17.0%),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16.0%), 분위기가 좋은 회사(8.9%),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6.9%), 퇴근이 빠른 회사(5.0%) 순이었음.
- 2015년 기준 청년의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38.3%, 전세 28.4%, 월세·사글세 28.6%, 관사·사택 등의 무상은 4.7%이며, 2018년 기준 전체 청년의 1인가구 비율은 44.5%임.

→ 유추 키워드 : 비정규직, 부채, 경제적 안정, 1인가구

○ (건강) 2017년 기준 청년들의 비만 유병률은 전체 34.8%로 20대는 29.4%, 30대는 33.4%이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20대는 37.9%, 30대는 36.0%임.

- 우울감 경험율은 전체 11.6%로, 20대는 13.5%, 30대는 9.1%이며,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6명으로, 15~19세는 8.7명, 20~24세는 15.3명, 25~29세는 19.9명, 30~34세는 25.6명, 35~39세는 29.0명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높아짐.

→ 유추 키워드 : 비만,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 (여가) 2018년 기준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은 평일은 3.3시간, 휴일은 5.3시간임. 구체적으로 15~19세는 평일 2.8시간, 휴일 5.1시간이고, 20대는 평일 3.2시간, 휴일 5.7시간이며, 30대는 평일 2.8시간, 휴일 5.0시간임.

- 청년들은 휴식 활동, 취미·오락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을 통해 문화 및 여가생활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추 키워드 : 워라벨, 유머

○ (행복) 2018년 기준 청년들의 주관적인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7점이고,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1점이며, 주관적 계층의식은 10점 만점에 5.4점임.

- 가치 항목별 선호에 있어서는, ①일과 여가 중에서는 여가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44.6%로, 일이 중요하다는 응답 28.2%보다 높음. ②현실과 이상 중에서는 현실 중시가 70.2%로, 이상 중시 11.6%보다 매우 높음. ③결과와 과정 중에서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3.9%로 과정이 중요하다는 20.7%보다 높음. ④집단과 개인 중에서는 개인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40.8%로 집단이 중요하다는 22.7%보다 높음.

- 청년은 “여가”와 “현실”과 “결과”와 “개인”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은 재산과 경제력 31.2%, 화목한 가정 24.6%, 건강 16.3%, 자아 성취 7.3%, 감사와 긍정 6.9%, 직장파와 직업 4.5%, 꿈과 목표의식 4.4%, 대인관계 3.4%임.
- 2018년 기준 가족관계 만족도는 20대는 64.7%, 30대는 62.6%임.

→ 유추 키워드 : 여가, 재산과 경제력, 결과, 과정

- 투표율의 경우,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9세는 53.6%, 20대 전반은 55.3%, 20대 후반은 49.8%, 30대 전반은 48.9%, 30대 후반은 52.0%임.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19세는 77.7%, 20대 전반은 77.1%, 20대 후반은 74.9%, 30대 전반은 74.3%, 30대 후반은 74.1%임.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9세 54.1%, 20대 전반은 52.9%, 20대 후반은 51.0%, 30대 전반은 53.0%, 30대 후반은 55.4%임.

## 2\_분류

### 1) 청년세대

- 청년세대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1세기를 맞아 성인이 된 연령대를 의미하므로 1980년대 초부터 2000년 초까지 태어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에코세대는 베이비붐세대의 자녀로 메아리처럼 다시 출생 붐을 일으켰다는 의미, N세대는 네트워크세대라는 의미, P세대는 참여(Participation)·열정(passion)·힘(Power)을 바탕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세대라는 의미, IP(Interest & Passion)세대는 재미와 열정·국제적 잠재 역량·혁신의 개척자·똑똑한 재테크족 등을 의미, 달관세대는 아무런 희망 없이 무기력하다는 의미임.

→ 유추 키워드 : 재테크, 참여, 열정

[표 3-1] 청년세대에 대한 다양한 별칭

나이 및 생애 단계	문화적·행태적 특성	시대 상황적 특성
2030세대, 청년세대, 에코세대 등	N세대, 디지털세대, P세대, IP세대 등	88만원세대, N포세대, 절망세대, 달관세대 등

자료: 최섯별, 2018

2) 밀레니얼세대

- 밀레니얼세대를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980년부터 1990년대 중반/말까지 태어난 베이비붐세대의 자녀들을 의미함.
  - 밀레니얼세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1년으로, 인구통계학자인 닐 하우와 윌리엄 스트라우스는 저서 ‘세대’를 통해 밀레니얼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2000년에는 ‘밀레니얼세대의 부상’이 출간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됨. (임홍택, 2018)

3) Z세대

- Z세대 역시 이 세대를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로 정의됨.

[표 3-2] 청년세대 분류

(단위: 백만 명, %)

분류	청년세대		
	밀레니얼세대	Z세대	
출생연도	1980~1994년	1995~2005년	2005년 이후
인구 수	11.0	7.0	13.5
인구 비중	21.5	13.5	26.0

자료: 통계청



### 3\_특성

#### 1) 청년세대

○ 청년세대는 성장기부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이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로 명명되기도 함. 업무는 물론 취미와 여가 등의 일상까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줄임말과 이모티콘의 사용 빈도가 높고, 신조어의 생성 및 쇠퇴가 빠름.

-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청년세대는 자기 노출 및 표현, 관계 맺기 활동을 중심으로 싸이월드 → 블로그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으로 진화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와 되고 싶어하는 자아 드러내기를 통해 주체성을 확보하고 관계를 맺음.

→ 유추 키워드 : 온라인 활동, 디지털 네이티브

○ 일반적으로 청년세대는 전통적인 공동체주의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유보다는 공유를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됨.

- 높은 등록금과 만성적 실업, 정서적 불안에 시달리면서, 사회적 문제보다는 개인의 생존과 영달을 추구하는 세대로 표상됨. 조급함이 크고, 깊고 의미 있는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평가되기도 함.

- 청년세대는 앞선 세대들보다 덜 반항적이며, 더 실용적인 생각을 갖고, 개인의 가치보다는 집단의 가치를, 권리보다는 의무를, 감정보다는 명예를, 말보다는 행동을 중심으로 사고한다고 평가되기도 함.

→ 유추 키워드 : 개인주의, 자신에 대한 투자, 배려, 불안, 생존, 공유, 실용, 명예, 실리

○ 대학내일은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0’에서 아래 다섯 가지 키워드로 청년세대를 소개함.

- 다만추 :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는 세대.

- 후렌드(Who + Friend) : 온라인에서 누구와도 서슴없이 친구가 되다.

- 선취력 : 먼저 행동해서 선한 변화를 이끌어내다.

- 판플레이 : 참여할 수 있는 판을 열고 놀다.

- 클라우드 소비 : 소유보다 공유로 소비의 밸런스를 맞추다.

→ 유추 키워드 : 다양한 관계, 선한 변화

○ 임흥택은 '90년생이 온다'에서 아래 세 가지 특징으로 90년대생을 소개함.

- 간단함 : 길고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 피해야 할 일종의 악으로 여김. 언어 습관에서는 축약형 은어인 줄임말이 자주 나타나고 이모티콘과 짤방의 사용도 많음. 또한 초단편소설이 등장함.

▶ 짤방은 원래 '짤림 방지'의 줄임말로, 2000년대 초 디지인사이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는 이미지를 첨부하지 않은 글은 삭제됨. 이에 사람들은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로 아무 이미지나 첨부하여 글을 올림. 이렇게 시작된 짤방이라는 말은 온라인 상에 올리는 모든 이미지를 뜻하는 말로 의미가 확장됨.

- 재미 : 삶의 유희를 추구하며,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질서라는 것을 답답하고 숨 막히는 것이라고 생각함. 이들에게는 이념적 세계보다 연극적 세계가 더 중요함.

- 정직함 :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완전 무결한 정직을 요구함. 신뢰의 시스템화를 요구하고, 솔직함을 선호함. 부당함과 비합리적인 상황에서는 과감히 이슈를 제기함.

→ 유추 키워드 : 질서, 규칙, 정직, 신뢰, 솔직, 행동, 가치관

○ 인터파크 도서에 따르면 2020년 7월 도서 판매량은 20대의 경우 1위 해커스 토익 기출 보카, 2위 에듀윌 한국사, 3위 최태성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상, 4위 최태성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하, 5위 토익정기시험 기출문제집 등 모두 '취업 및 스펙'을 위한 수험서 적이었음.

- 반면 30대의 경우, 1위 김미경의 리부트, 2위 부의 대이동, 3위 돈의 속성, 4위 더 해빙, 5위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등 모두 '자기계발 및 재테크' 관련 서적이었음.

→ 유추 키워드 : 취업 및 스펙, 자기계발

○ 1980년 이후 한국사회의 주요 사건

[표 3-3] 1980년 이후 한국사회 주요 사건

연도	주요 사건
1980	광주민주화운동
1982	통행금지 해제, 프로야구 출범
1983	이산가족찾기 생방송
1985	남북 이산가족 상봉, 플라자 합의
1986	서울아시아계임, 3저호황
1987	6월민주항쟁, 6.29선언, 대통령직선제 헌법 개정, 전대협 출범
1988	노태우 대통령 취임, 서울올림픽, 한겨레신문 창간
1989	일산·분당 신도시 건설, 베를린장벽 붕괴
1990	동구권 국가와 수교, 3당 합당, 범죄와의 전쟁 선언, 독일 통일
1991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걸프전 발발(한국군 파병), 소련 붕괴
1992	중국·베트남과 국교 수립, 노래방 등장,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1993	김영삼 대통령 취임, 금융실명제 도입, 우루과이라운드 합의, 한총련 출범
1994	김일성 사망, 성수대교 붕괴
1995	노태우·전두환 구속, 케이블TV 시작, 삼풍백화점 붕괴, 세계무역기구 출범
1996	OECD 가입
1997	IMF경제위기, 무료 이메일 서비스 개시, 초등 교과목에 영어 추가
1998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일본 대중문화 개방, 스타크래프트 발매, 금강산 관광 시작
1999	의약분업, 싸이월드 시작
2000	남북정상회담
2001	IMF 지원 자금 전액 상환, 9.11테러
2002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한일월드컵, 부산아시아계임
2003	노무현 대통령 취임, 대구 지하철 참사, 이라크 전쟁 발발
2004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열린우리당 총선 승리, 이라크 파병, KTX 개통, 성매매특별법 시행
2007	남북 정상 회담, 태안 원유 유출 사고
2008	이명박 대통령 취임, 광우병 촛불집회, 미국발 금융위기
2010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2011	김정은 정권 시작
2012	싸이 강남스타일 열풍
2013	박근혜 대통령 취임
2014	세월호 참사
2015	메르스 전염
2016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강남역 문지마 살인사건, 알파고 대 이세돌 대결
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18	암호화폐 열풍, 미중무역전쟁 발발, 남북정상회담, 미투운동
2019	일본 불매 운동, 조국사태

[표 3-4] 청년세대 성장 배경 비교

분류	청년세대	
	밀레니얼세대	Z세대
출생연도	1980~1994년	1995~2019년
성장기의 GDP연평균성장률	8.8%	4.5%
성장기 중 경험한 주요 경제 사건	3저호황, 금융실명제, WTO 가입, OECD 가입, IMF 외환위기, 인터넷 쇼핑 등장, 주5일제 시작, 글로벌 금융위기, 휴대폰 등장	스마트폰 등장, 한미FTA, 글로벌 금융위기, 4차산업혁명, 일본불매운동, 비트코인 열풍, 배달앱 등장, 주52시간제 시작, 해외직구 열풍
성장기 중 경험한 주요 문화 사건	비비 등장, 노래방/PC방 등장,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케이블TV 시작, 일본 대중문화 개방, 스타크래프트 열풍, 2002년 월드컵, 전자책 등장	한류, 카카오톡 등장, 웹툰 열풍, 팟캐스트 등장, 넷플릭스 등장, 태블릿PC 등장, 나무위키 등장, 먹방 열풍, 알파고 등장
성장기 중 경험한 주요 정치·사회 사건	UN 가입, 한·중 국교 수립,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김일성 사망, 평화적 정권교체, 미국 911 테러, 대구지하철참사, 제1차 남북정상회담, 연평해전	노무현 서거, 김정일 사망, 천안함 사태, 세월호 참사, 촛불혁명, 미투운동, 운동, 연평도 포격 도발, 간통죄 폐지, 메르스 사태, 김영란법 시행, 포항 지진
성장기 중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성장기 중 정보통신기술	웹 2.0(주로 PC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유통함)	웹 3.0(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지능화된 웹이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함)
정보 검색	텍스트, 이미지 선호	이미지, 영상 선호
가치관	자기다움	유행에 민감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카페, 싸이월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조조정 형태	전 직급 대상 수시 구조조정	상시 구조조정 및 비정규직화

## 2) 밀레니얼 세대

○ 일반적인 밀레니얼세대는 치열한 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을 거쳤으며, 교육 수준이 높고 여러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교양을 가지고 있음.

- 외동 혹은 적은 수의 형제·자매들과 성장하며, 부모의 과잉 보호를 받아온 밀레니얼세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회사 등에서도 관심 받고 칭찬 받기를 좋아함.
- 밀레니얼세대는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이 높고,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에 능숙하며, 2010

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함.

→ 유추 키워드 : 경쟁, 교양, 격려,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

○ 정치적인 측면에서 밀레니얼세대는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으로 대한민국 첫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유년기를 시작함. 이전 세대들이 독재 및 군부 정권에 맞서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것과 달리, 밀레니얼세대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삶을 시작함. 또한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고, 이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등 과거 절대적 권위를 갖는 것으로 여겨졌던 대통령 마저 권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성장함.

-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한 관광이 시작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어 전반적으로 밀레니얼세대는 정치적 탈권위 및 긴장 완화의 상황에서 성장함.

- 밀레니얼세대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시하고 기존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그것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이나 평등과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성향을 가진. (최설훈, 2018)

▶ 저자가 연구시 사용한 '88만원세대'라는 세대명을 본 연구의 '밀레니얼세대'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재정리함.

→ 유추 키워드 : 탈권위, 평등, 지도자, 시민, 개인, 가족, 커뮤니티

○ 경제적인 측면에서 밀레니얼세대는 WTO 출범 및 OECD 가입, 한미 FTA 체결 등을 겪으며 한국을 선진국에 버금가는 중진국으로 평가함.

- 그러나 밀레니얼세대는 이후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게 되었고, 최근에는 취업난 등에 시달림. (최설훈, 2018)

- 밀레니얼세대가 태어난 1980년대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던 경제의 호황기로 전 세대에 비하여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함. 그러나 1990년대 후반 IMF시대의 개막과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유년기에 비해 청년기로 진입하는 시점에서는 경제의 위축이 지속되었고, 취업난과 비정규직 증가와 더불어, 88만원세대, N포세대와 같은 부정적 담론이 유행함. 따라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게 됨.

→ 유추 키워드 : 미래에 대한 불안, 취업난, 경제 위기, 쫓불, 탄핵, 고용 안정

○ 사회적인 측면에서 밀레니얼세대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호주제가 헌법 불합치 선고를 받고 폐지되면서 가부장제로 인해 발생했던 사회 문제들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것을 경험했고, 출산율 저하로 인해 아들과 딸의 구분없이 부모의 애정과 보호를 받으며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환경에서 성장함. (최선헌, 2018)

- 이들은 핵가족 내에서 성장한 세대로서 가족 구성원 수는 4명을 넘지 않고, 타인과의 비교로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받았으며, '누구나 각자의 장점이 있으며 최선을 다하는 한 우리 모두는 승리자이다', '네가 소중한 존재이듯이 다른 사람의 인격도 존중 해주어야 한다'라고 교육받음. (박진성, 2009)

→ 유추 키워드 : 성평등, 자존감

○ 문화적인 측면에서 밀레니얼세대는 유년기에 가정과 학교에 컴퓨터가 보급되었고, 케이블TV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방영됐으며, 무료 이메일 서비스도 시작됨.

- 더불어 일본의 대중문화가 개방됨과 동시에, 한류 열풍이 일어나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됨.
- 나아가 밀레니얼세대가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교과목에 영어가 추가됐으며, 해외 유학이 확대되기도 함. (최선헌, 2018)

→ 유추 키워드 : 연결, 세계화, 국제화, 한류

○ 현재의 밀레니얼세대는 일 자체보다는 일을 통한 보람과 즐거움에서 의미를 찾고, 일 외의 여가 및 가정 생활을 위해 다소 급여가 적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을 선호한다고 평가됨.

- 밀레니얼세대에게 평생 직장의 개념은 낮고, 이직 등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이 없음. 따라서, 밀레니얼세대는 직장에 대한 충성도와 인내심은 낮은 반면 이직률은 높고 이전 세대들과 불화하며 계산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함.
- 밀레니얼세대는 지금의 트렌드인 공유경제를 유발한 소비자 그룹임. 이전에는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문화였다면 이제는 '웰니스'를 중시하여 본인의 긍정적인 경험이나 체험활동에 관심을 기울임. 또한 밀레니얼세대는 상품후기나 포레 집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하고 본인의 소비활동을 공유하며 환경이나 인권 문제 같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동참함.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의 특별한 가치도 인정받기를 원함. (김정지, 2019)

- ▶ 웰니스(Wellness)는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으로 제시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보다 심화시켜 광범한 관점에서 접근한 새로운 건강관을 의미함. 웰니스는 생활과학으로서 운동을 일상생활에 적절하게 도입해 건강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보낸다는 의미임.

- 졸업 후 취업이라는 공식이 파괴된 청년세대들은 졸업 이후 대부분 상당 기간을 미취업자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신분으로 살며, 연애·결혼·출산 등을 선택하지 않거나, 혹은 선택하지 않음을 가장하여 포기하고, “올로”와 “소확행”을 선호하게 됨.

- ▶ 올로(YOLO)는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을 본 따 만든 말로 ‘인생은 한 번 뿐이기에 현재를 충분히 즐겨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음.
- ▶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약칭으로,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소설 “A Small, Good Thing”에서 따와 만든 신조어임.

- 밀레니얼세대의 평균 결혼 연령은 남자는 32세, 여자는 28세임.

→ 유추 키워드 : 워라밸, 소확행, 올로, 사회적 이슈에 참여, 존중, 타인의 평가, 상품 후기, 인내심, 지구력, 일에서 얻는 보람, 일에서 얻는 즐거움, 일에서 얻는 보상

○ 지금껏 밀레니얼세대는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글로벌 무대’에 서서 사회적 ‘성공과 부’를 성취하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계발해야 하는 삶을 강요받아 온 경향이 있음. 그 결과 이전 세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동시에 삶에 대한 기준치 역시 높게 설정됨. (최선헌, 2018)

→ 유추 키워드 : 성공과 부

○ 특히 밀레니얼세대는 ‘재미와 즐거움’을 삶의 우선 가치로 생각함.

-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밀레니얼세대는 가상공간에서 SNS를 통해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공유하며 새로운 놀이 공간을 창출하고 있음.

→ 유추 키워드 : 재미와 즐거움

○ 또한 밀레니얼세대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중요시 여김. 국내의 복잡한 대학입시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정시모집 확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전중우, 2020)

→ 유추 키워드 : 공정

### 3) Z세대

○ Z세대는 완전한 디지털네이티브 세대이며, 밀레니얼세대보다 반응이 빠르고, 텍스트 보다 이미지나 영상에 주목함.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는 Z세대의 성향은 SNS를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취향 중심의 관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익명성을 선호함.

- Z세대는 2000년 초반 정보기술 붐과 함께 유년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세대답게 신기술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를 소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강민정 외, 2020)

▶ Z세대는 어떤 특정 사건에 의해 세대의식을 공유하거나 세대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함께 발전한 디지털 환경이 세대의식과 세대위치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침. (박치완, 2019)

→ 유추 키워드 : 텍스트, 이미지, 영상, 스토리, 익명성, 온라인 커뮤니티, 취향, 얼리어답터

○ Z세대는 해외 체류 경험이 많고 부모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으며 성장함. Z세대는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며,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 한다고 평가되며, 유행에도 민감함.

- Z세대는 성장기에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순차적으로 경험하여 과소비나 부채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성향을 보임.

→ 유추 키워드 : 독립, 부채, 문화적 개방성, 경제적 가치

○ Z세대는 순간 집중력이 높고, 빈부·젠더·인종·종교·학력·출신 등에 대한 편견이 낮음. 또한 윤리, 환경 등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많음. 행복의 기준 역시 자기 자신에게 있으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장이 강함. 과거 세대들과 달리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안정과 실용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며, 정부나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낮음.

- Z세대는 '8초 순간 집중력'이 뛰어나고, 이들의 두뇌는 더욱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정보를 소화할 수 있고, 인지를 요하는 문제에 능함. (박혜숙, 2016)

- Z세대는 필요한 정보는 스스로 학습하고, 주어진 업무에만 집중하며, 개인의 창업을 선호함. 이들은 사회 변화보다는 자기 계발에 우선 가치를 둠.



- 또한 Z세대는 이동성이 높고, 가상·현실 및 전통·근대를 넘나드는 세대로 규정됨. (박치완, 2019)

→ 유추 키워드 : 안정과 실용, 시스템에 대한 신뢰, 순간 집중력, 사회 변화, 창업

## 4\_소결

### 1)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공통점

-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출산을 저하로 인해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부모의 애정과 보호를 받으며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환경에서 성장함.
  -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의 특별한 가치도 인정받기를 원함.
-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비만 유행률,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율이 높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가치 항목별 선호에 있어서 일보다는 “여가”를, 이상보다는 “현실”을, 과정보다는 “결과”를,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함.
  - M세대의 성장기에 주5일제가 시작되었고, Z세대의 성장기에 주52시간제가 시작됨.
-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높은 등록금과 만성적 실업, 정서적 불안에 시달리면서, 사회적 문제보다는 개인의 생존과 영달을 추구하는 세대로 표상됨. 조급함이 크고, 깊고 의미 있는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평가되기도 함.
  - M세대는 성장기 IMF 외환 위기를 겪었고, Z세대는 성장기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음.
  - M세대와 Z세대가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은 “재산과 경제력”, “화목한 가정”, “건강”순임.

- 밀레니얼세대는 성장기 대구 지하철 참사 등을 겪었고, Z세대는 성장기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며, 두 세대 모두 재난·안전에 민감함.
-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치열한 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을 거치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고 여러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교양을 가지고 있음.

## 2)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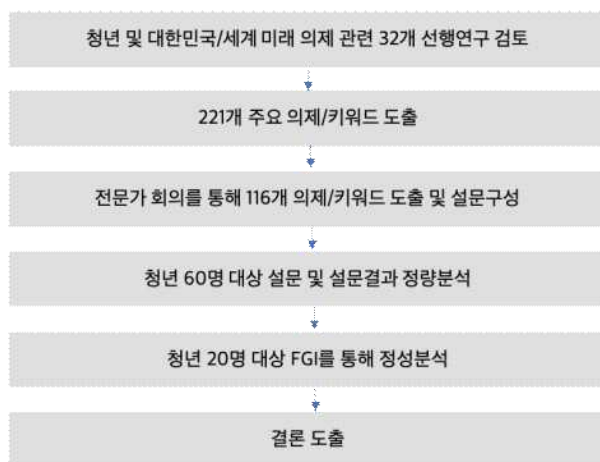
- 밀레니얼세대는 아날로그/텔레비전세대 + 디지털세대가 융합된 세대인 반면, Z세대는 성장기에 본격적인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디지털세대의 성격이 강함.
- 밀레니얼세대는 성장기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네이버 블로그를 SNS로 주로 사용하였고, Z세대는 성장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SNS로 주로 사용함.
  - 밀레니얼세대는 인터넷 정보 검색에 있어서 구글, 네이버 등을 활용한 텍스트나 이미지를 선호하는 반면, Z세대는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영상을 선호함.
  - 유추 키워드 : 영상, 이미지, 텍스트

## 04. 116개 키워드로 살펴본 청년세대 가치관과 주요 의제

### 1\_조사 개요

- 문헌 연구, 설문 조사, 개별 면접의 순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결과를 연구진에서 반복 검토하여, 청년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의제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적 배경을 분석하고,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표 4-1] 연구 프로세스



- (1단계) 청년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서 주요 키워드 221개를 도출하고, 이중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총116개 키워드를 선정함.
- (2단계) 총116개 키워드를 5개 카테고리(라이프스타일, 경제/일, 커뮤니티/관계,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정치/사회/참여)로 구분해서 1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구성한 후에, 밀레니얼세대(혹은 M세대) 30명과 Z세대 3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

을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함.

- (3단계) FGI를 통해 설문결과를 해석하고 추가 보완작업 진행함.

## 1) 선정된 키워드

- 라이프스타일(31개, 전체의 27%) : 나의 가치(웰빙, 행복, 건강) / 경제적 가치 / 사회적 지위 / 여가 / 워라벨 / 생존 / 공존 / 현재를 즐기자 / 미래를 준비 / 나의 감정·욕구 / 과정 / 결과 / 인내심·지구력 / 순간 집중력 / 재미·즐거움 / 취업·스펙 / 성공과 부 / 안정 / 열정 / 혁신 / 정직 / 스트레스 / 위로·힐링 / 이생망 / 명예 / 가치관 / 실리 / 자유 / 도전·모험 / 자기계발 / 인정을 받는 것
- 경제/일(19개, 전체의 16%) : 일에서의 흥미 / 일에서의 보람 /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 재산·경제력 / 재테크 / 고용 안정 / 상품 후기 / 52시간 근로 / 가치 소비 / 가성비 / 경제 위기 / 비정규직 / 부채 / 경제적 안정 / 불평등 완화 / 빈곤 / 기본소득 / 창업 / 청년주거
- 커뮤니티/관계(26개, 22%) : 평등 / 존중 / 타인의 평가 / 독립 / 문화적 개방성 / 따돌림 / 차별 / 지도자 / 시민 / 개인 / 커뮤니티 / 가족 / 다양한 관계 / 오프라인 관계 / 온라인 관계 / 배려 / 공유 / 신뢰 / 권위 / 연결 / 경쟁 / 격려 /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 / 혈연·지연·학연 / 마이너리티 / 성평등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21개, 18%) : 미래에 대한 불안 / 노후 준비 / 치매 / 전염병 / 기후변화 / 미세먼지 / 1인주거 / 4차산업혁명 / 신기술 / 탈원전 / 재생에너지 / 얼리어답터 / 인공지능 / 한반도 평화 / 남북교류 / 한반도 통일 / 텍스트 / 이미지 / 영상 / 스토리 / 익명성
- 정치/참여/사회(19개, 16%) :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 사회적 지속가능성 / 낮은 혼인율 / 저출산 / 초고령사회 / 불평등 사회 / 촛불혁명 / 탄핵 / 적폐청산 / 비리 척결 / 시스템에 대한 신뢰 / 공정 / 사회복지 / 의료공공성 / 질서·규칙 / 사회적 약자 보호 / 동물권 / 사회 변화 / 기술중독

## 2\_조사 결과: 전체, 세대별 응답(M세대, Z세대)

### 1) 표본집단 전체(60명)

아래는 표본집단 60명의 응답값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한 표.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키워드는 총점 273점을 얻은 존중임. 이는 청년 1인당 평균적으로 4.55점의 중요도로 평가한 것. 최하위를 얻은 키워드는 이생망으로 청년 1인당 평균 2.43점의 중요도로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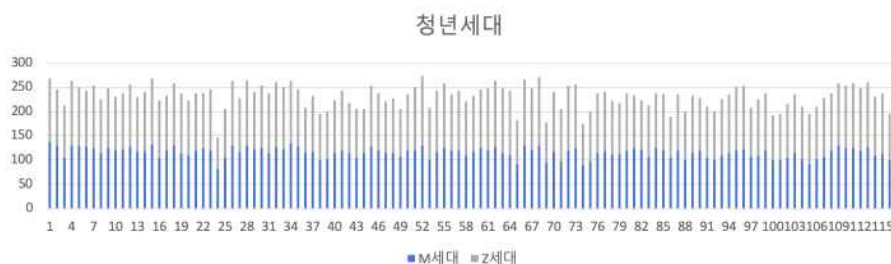
[표 4-2] 표본집단 전체(60명)의 응답값

No.	항목	키워드	총점	순위
1	커뮤니티/관계	존중	273	1
2	커뮤니티/관계	신뢰	270	2
3	라이프스타일	웰니스(웰빙·행복·건강)	268	3
4	라이프스타일	재미·즐거움	268	3
5	커뮤니티/관계	배려	265	4
6	경제/일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	264	5
7	라이프스타일	여가	264	5
8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263	6
9	라이프스타일	자유	263	6
10	커뮤니티/관계	가족	262	7
11	정치/사회/참여	사회적 약자 보호	261	8
12	경제/일	일에서의 흥미	260	9
13	라이프스타일	안정	259	10
14	정치/사회/참여	공정	258	11
15	커뮤니티/관계	문화적 개방성	258	11
16	정치/사회/참여	의료공공성	258	11
17	커뮤니티/관계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	256	12
18	라이프스타일	결과	255	13
19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스토리	254	14
20	라이프스타일	공존	253	15
21	정치/사회/참여	사회복지	253	15
22	경제/일	경제적 안정	252	16
23	라이프스타일	자기계발	252	16
24	커뮤니티/관계	격려	252	16
25	경제/일	일에서의 보람	251	17
26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영상	251	17
27	라이프스타일	워라밸	250	18
28	커뮤니티/관계	평등	250	18

29	커뮤니티/관계	커뮤니티	249	19
30	커뮤니티/관계	다양한 관계	249	19
31	커뮤니티/관계	공유	248	20
32	정치/사회/참여	질서·규칙	248	20
33	라이프스타일	미래를 준비	247	21
34	라이프스타일	경제적 가치	246	22
35	경제/일	재산·경제력	245	23
36	커뮤니티/관계	개인	245	23
37	라이프스타일	위로·힐링	245	23
38	경제/일	가성비	244	24
39	커뮤니티/관계	오프라인 관계	244	24
40	라이프스타일	생존	243	25
41	커뮤니티/관계	차별	242	26
42	커뮤니티/관계	독립	242	27
43	라이프스타일	도전·모험	241	27
44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미래에 대한 불안	241	27
45	커뮤니티/관계	연결	240	28
46	라이프스타일	순간 집중력	240	28
47	라이프스타일	스트레스	239	29
48	라이프스타일	과정	239	29
49	정치/사회/참여	시스템에 대한 신뢰	239	29
50	라이프스타일	열정	239	29
51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전염병	238	30
52	라이프스타일	정직	238	30
53	커뮤니티/관계	성평등	238	30
54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4차산업혁명	237	31
55	경제/일	불평등 완화	237	31
56	정치/사회/참여	사회적 지속가능성	237	31
57	라이프스타일	인정을 받는 것	237	31
58	정치/사회/참여	사회 변화	237	31
59	커뮤니티/관계	따돌림	236	32
60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신기술	236	32
61	경제/일	청년 주거	236	32
62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재생에너지	236	32
63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이미지	236	32
64	정치/사회/참여	불평등 사회	236	32
65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기후변화	234	33
66	라이프스타일	성공과 부	234	33
67	경제/일	고용 안정	234	33
68	커뮤니티/관계	시민	234	33
69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인공지능	232	34
70	라이프스타일	나의 감정·욕구	231	35
71	라이프스타일	인내심·지구력	231	35
72	정치/사회/참여	동물권	231	35

73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한반도 평화	229	36
74	정치/사회/참여	비리척결	229	36
75	라이프스타일	실리	228	37
76	경제/일	기본소득	228	37
77	라이프스타일	현재를 즐기자	226	38
78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텍스트	225	39
79	정치/사회/참여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225	39
80	경제/일	가치소비	224	40
81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노후 준비	224	40
82	라이프스타일	취업·스펙	224	40
83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미세먼지	222	41
84	라이프스타일	혁신	222	41
85	커뮤니티/관계	지도자	221	42
86	경제/일	빈곤	219	43
87	경제/일	경제 위기	218	44
88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치매	217	45
89	정치/사회/참여	초고령사회	216	46
90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1인주거	213	47
91	라이프스타일	사회적 지위	212	48
92	정치/사회/참여	촛불	211	49
93	정치/사회/참여	적폐청산	211	49
94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남북교류	209	50
95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익명성	208	51
96	경제/일	재테크	207	52
97	커뮤니티/관계	타인의 평가	207	52
98	경제/일	부채	205	53
99	경제/일	창업	205	53
100	경제/일	비정규직	205	53
101	커뮤니티/관계	경쟁	205	53
102	라이프스타일	명예	204	54
103	경제/일	52시간 근로	201	55
104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한반도 통일	201	55
105	커뮤니티/관계	마이너리티	201	55
106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얼리어답터	199	56
107	정치/사회/참여	탄핵	196	57
108	경제/일	상품 후기	195	58
109	정치/사회/참여	기술중독	195	58
110	정치/사회/참여	저출산	194	59
111	정치/사회/참여	낮은 혼인율	193	60
112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탈원전	191	61
113	커뮤니티/관계	온라인 관계	182	62
114	커뮤니티/관계	권위	177	63
115	커뮤니티/관계	혈연·지연·학연	176	64
116	라이프스타일	이생망(이번 생은 망함)	146	65

- [그림 4-1]은 위의 [표 4-2]를 누적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60명 중 절반은 Z세대, 나머지 절반은 M세대. 이 막대그래프에서는 두 세대의 응답치를 별도로 표시했음.
- 우리는 우선 60명 응답치를 합산한 값으로 응답의 결과를 분석할 것. 그리고 이후에 각 세대별 응답치를 별도로 분석해서 특징을 찾아낼 것임.



[그림 4-1] 청년세대 전체의 응답값 합계(누적 막대그래프)

## 2) 상위 1/3의 키워드(39개): 1위부터 24위까지

- (1~5위를 차지한 키워드) 전체 116개 항목 중 청년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키워드는 존중(1위, 273점), 신뢰(2위, 270점), 웰니스(3위, 268점), 재미·즐거움(3위, 268점), 배려(4위, 265점), 여가(5위, 264점),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5위, 264점)

- 청년들은 공정(11위, 258점)과 평등(18위, 250점)보다 존중, 신뢰, 배려를 가장 상위의 가치로 중요하게 생각함.
- 웰니스, 재미·즐거움, 여가와 같은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 높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경제적 가치(22위, 246점), 재산·경제력(23위, 245점), 성공과 부(33위, 234점), 재테크(52위, 207점) 같은 금전적 가치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부여함. 다만,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5위, 264점)은 중요하게 여김.

- (6~10위를 차지한 키워드) 상위 5개 의제 다음으로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



는 키워드는 자유(6위, 263점), 가족(7위, 262위), 사회적 약자 보호(8위, 261점), 일에서의 흥미(9위, 260점), 안정(10위, 259점)

- 가치관이나 가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같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중시되던 키워드가 여전히 상위를 차지한 것은 다소 흥미로운 결과임.
-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만큼이나 일에서의 흥미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통적'으 청년들이 중시하는 가치관이라고 평가받는 자유 역시, 여전히 청년들이 중요한 키워드로 여기고 있음.
- 다만, 저성장기조가 지속되고 경제위기와 최근의 팬데믹 상황, 미래에는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뉴스 등의 영향으로 불안함이 많아지면서 안정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 (11~15위를 차지한 키워드) 11~15위에는 문화적 개방성(11위, 258점), 공정(11위, 258점), 의료공공성(11위, 258점),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12위, 256점), 결과(13위, 255점), 스토리(14위, 254점), 공존(15위, 253점), 사회복지(15위, 253점)

- 문화적개방성과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 공존이 각각 11위와 12위, 15위를 차지함. 이는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이 중요한 청년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즉 개성이 강한 청년세대 각자가 가진 가치관이 존중받고, 평가나 비판받지 않기를 원하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임.
- 의료공공성과 사회복지 등의 공공적 가치, 역시 상위에 올랐음.
- 결과는 13위(255점)로 상위였으나 과정은 29위(239점)로 중위를 차지. 청년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 청년들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스토리, 영상, 이미지, 텍스트 중에 스토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김.

○ (16~20위를 차지한 키워드) 자기계발(16위, 252점), 경제적 안정(16위, 252점), 격려(16위, 252점), 일에서의 보람(17위, 251점), 영상(17위, 251점), 위라벨((18위, 250점), 평등(18위, 250점), 커뮤니티(19위, 249점), 다양한 관계(19위, 249점), 공유(20위, 248점), 질서·규칙(20위, 248점)

- 청년들은 다양한 관계, 오프라인 관계, 온라인 관계 중에서 다양한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함. 오프라인 관계는 24위(244점)이지만, 온라인 관계는 182점으로 최하위 순위(62위). 이는 116개 항목에서 최하위에서 4번째임(동점항목이 다수 있어서 116개 항목은 1위부터 66위로 구성됨). 청년들은 온라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뢰나 중요도도 두고 있지 않음을 의미함.
- 청년들은 자기계발을 중요하게 여기고, 경제적 안정만큼이나 일에서의 보람과 워라벨을 중요하게 생각함. 이를 통해 일에서의 성취와 일에서의 경제적 보상, 여가/행복 간에 균형을 맞추려는 성향을 보임.
- 질서·규칙과 평등이 상위에 있는 것은 공정(11위, 258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임.
- 가족(6위), 커뮤니티(19위), 개인(23위)의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함. 커뮤니티와 가족 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가족은 다른 항목들과 큰 격차를 보이며 상위를 차지함.
- 공유가 20위로 상위를 차지함. 이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공유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즉,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고, 공유경제 플랫폼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는 세대 특성이 반영된 것임.

○ (21~24위를 차지한 키워드) 미래를 준비(21위, 247점), 경제적 가치(22위, 246점), 재산 경제력(23위, 245점), 개인(23위, 245점), 위로·힐링(23위, 245점), 가성비(24위, 244점), 오프라인관계(24위, 244점)

- 청년 세대들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준비, 생활에 대한 물질적 기반마련 등의 현실적 이유로 인해, 미래준비나 재산·경제력을 중시. 성공과 부(33위, 234점)에 대한 욕망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오프라인 관계에 대한 지향을 보이고 있으며, 생존에 대한 걱정 역시 중요한 키워드로 여기고 있음.
- 소비와 관련된 키워드인 가성비가 24위로 41위를 차지한 가치소비보다 상위에 위치. 아직까지 가치소비보다 가성비 기반의 소비가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확인됨.
- 생존에 대한 걱정, 재충전의 필요 등으로 인해서 위로·힐링의 키워드 역시 상위권임.

### 3) 중위 1/3의 키워드(40개)

[표 4-3] 표본집단 전체(60명)의 응답값 중 중위로 꼽힌 키워드 1/3

순위	항목	키워드	전체
25	라이프스타일	생존	243
27	라이프스타일	도전·모험	241
28	라이프스타일	순간 집중력	240
29	라이프스타일	스트레스	239
29	라이프스타일	과정	239
29	라이프스타일	열정	239
30	라이프스타일	정직	238
31	라이프스타일	인정을 받는 것	237
33	라이프스타일	성공과 부	234
35	라이프스타일	나의 감정·욕구	231
35	라이프스타일	인내심·지구력	231
37	라이프스타일	실리	228
38	라이프스타일	현재를 즐기자	226
31	경제/일	불평등 완화	237
32	경제/일	청년 주거	236
33	경제/일	고용 안정	234
37	경제/일	기본소득	228
26	커뮤니티/관계	차별	242
27	커뮤니티/관계	독립	242
28	커뮤니티/관계	연결	240
30	커뮤니티/관계	성평등	238
32	커뮤니티/관계	따돌림	236
33	커뮤니티/관계	시민	234
27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미래에 대한 불안	241
30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전염병	238
31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4차산업혁명	237
32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신기술	236
32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재생에너지	236
32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이미지	236
33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기후변화	234
34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인공지능	232
36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한반도 평화	229
39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텍스트	225
29	정치/사회/참여	시스템에 대한 신뢰	239
31	정치/사회/참여	사회적 지속가능성	237
31	정치/사회/참여	사회 변화	237
32	정치/사회/참여	불평등 사회	236
35	정치/사회/참여	동물권	231
36	정치/사회/참여	비리척결	229
39	정치/사회/참여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225

## ○ 라이프스타일 분야

- 순간집중력과 인내심·지구력을 비교한 설문에 청년들은 인내심·지구력(231점)보다 순간집중력(240점)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함.
- 앞서 언급한대로, 결과와 과정을 비교한 설문에 청년들은 결과(255점)를 과정(239점)보다 중요하게 평가됨.
- 도전·모험(241점)이나 열정(239점) 같은 키워드보다 안정(259점), 재미·즐거움(268점)과 같은 키워드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음. 이는 성공과 부(234점)에 대한 지향이 높지 않거나 창업이 205점을 받아 전체의 하위 1/3에 속하는 53위를 차지한 것, 현재를 즐기자는 키워드가 226점으로 중위 평가를 받은 것과도 연관됨.
- 신뢰(270점), 공정(258점), 질서·규칙(248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에, 정직이 238점으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음.
- 또한 청년세대는 존중(273점)이나 신뢰(270점), 배려(265점), 격려(252점)를 받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237점)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생존(25위, 243점)은 중위권 키워드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이를 통해서, 청년세대는 생존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음.

## ○ 경제/일 분야

- 청년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예상되었던 불평등 완화, 청년주거, 고용안정, 기본소득 등이 중위를 차지한 것은 의외의 결과임.
- 본 설문을 통해서 청년들은 청년주거(236점)와 기본소득(228점) 정책에 대한 필요와 이해가 그다지 높지 않고, 불평등완화(237점)과 고용안정(234점)에 대해서도 크게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하지 않았음.

## ○ 커뮤니티/관계

- 지도자, 시민, 개인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청년들은 개인(23위)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고 그 다음이 시민(33위), 마지막이 지도자(42위)가 차지함. 즉, 개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근 청년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 다만 지도

자가 최하위에 속한 것은 특정 개인이 리더십을 가지고 커뮤니티/관계를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동시에, 청년들이 보기에 현재 우리 사회에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없다고 보는 청년들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함.

- 차별이 중상위에 위치. 청년들은 안정(10위)을 추구하지만 또한 기존 관계로부터 독립(27위)과 커뮤니티 등과의 연결(28위)을 원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평등(30위, 238점)은 116개 항목에서 중간 정도의 중요도로 평가받았음.
- 따돌림은 32위로 전체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함. 우리 사회에서 따돌림이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 청년들이 4차산업혁명(31위, 237점), 신기술(32위, 236점), 재생에너지(32위, 236점), 인공지능(34위, 232점)과, 그리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전염병(30위, 238점)의 의제에 평범한 수준의 중요도를 부여함.
- 기후변화(33위, 234점)를 중간 정도의 중요도로 평가함. 한반도 평화가 229점으로 중위(36위)에 속한 반면, 한반도 통일(55위, 201점)이나 남북교류(50위, 209점)는 최하위 그룹임. 같은 항목에서 기후변화/미세먼지/탈원전의 키워드로 환경 문제에 대해 설문을 한 결과 기후변화만이 중위권에 속했고, 미세먼지(41위, 222점)와 탈원전(61위, 191점)을 최하위 권이었음. 특히 탈원전은 116개 항목 중 최하위에서 5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낮은 중요도를 받았음.
- 이미지와 텍스트가 중위의 평가를 받았고, 영상(17위, 251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세대들은, 특히 온라인상에서 영상 기반의 매체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래에 대한 불안(27위)은 중위권 중에 상위에 속하는 항목. 인터뷰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세대는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 정치/사회/참여

- 청년들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29위, 239점), 사회의 지속가능성(31위, 237점), 불평등 사회(32위, 236점), 비리척결(36위, 229점)에 대해서 모두 평범한 수준의 중요도를 부여했음.

- 동물권은 세대별 특성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키워드임.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인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산출되었으나, 두 세대 간 인식이 극명하게 갈리는 의제임.
-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39위, 225점)은 낮게 나옴. 사회변화가 237점으로 31위의 중위의 평가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비교적 낮게 나옴.

#### 4) 하위 1/3의 키워드(37개)

[표 4-4] 표본집단 전체(60명)의 응답값 중 하위로 꼽힌 키워드 1/3

No.	항목	키워드	전체
40	라이프스타일	취업·스펙	224
41	라이프스타일	혁신	222
41	라이프스타일	사회적 지위	212
54	라이프스타일	명예	204
65	라이프스타일	이생망(이번 생은 망함)	146
40	경제/일	가치소비	224
43	경제/일	빈곤	219
44	경제/일	경제 위기	218
52	경제/일	재테크	207
53	경제/일	부채	205
53	경제/일	창업	205
53	경제/일	비정규직	205
55	경제/일	52시간 근로	201
58	경제/일	상품 후기	195
42	커뮤니티/관계	지도자	221
52	커뮤니티/관계	타인의 평가	207
53	커뮤니티/관계	경쟁	205
55	커뮤니티/관계	마이너리티	201
62	커뮤니티/관계	온라인 관계	182
63	커뮤니티/관계	권위	177
64	커뮤니티/관계	혈연·지연·학연	176
40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노후 준비	224
41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미세먼지	222
45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치매	217
47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1인주거	213
50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남북교류	209
51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익명성	208
55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한반도 통일	201
56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얼리어답터	199
61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탈원전	191
46	정치/사회/참여	초고령사회	216
49	정치/사회/참여	촛불	211
49	정치/사회/참여	적폐청산	211
57	정치/사회/참여	탄핵	196
58	정치/사회/참여	기술중독	195
59	정치/사회/참여	저출산	194
60	정치/사회/참여	낮은 훈인율	193

## ○ 라이프스타일

- 사회적지위(41위, 212점)나 명예(54위, 204점) 모두 하위 항목으로 평가받음. 밀레니얼세대라고 해도 청년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적지위나 명예와 관련해서 아직은 먼 ‘이야기’ 일뿐만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직장생활 등의 현실에 당면한 문제도 버거운 상황이라, 먼 미래의 일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함.
- 혁신(41위, 222점)은 일상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슈라는 평가가 지배적. 즉, 나와 관련이 없는 의제이며 동시에 현실에서 자주 접하기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하위에 평가함.
- 취업스펙(40위, 224점)은 평균적으로는 하위에 속하지만 세대 간 차이가 극명한 키워드임. 밀레니얼세대는 중요도를 낮게 부여했으나, Z세대는 상위의 중요도를 가진 키워드로 평가함.
- 과연 ‘이변생은 망했는가(이생망)’라는 질문에 대해 청년들은 116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함.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였던 ‘이생망’은 일종의 언어유희로서 사용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이 답변에 대해서도 세대간 격차가 매우 컸음.

## ○ 경제/일

- 청년들에게 가치소비와 가성비 항목에 대해 각각 질문을 한 결과, 청년들은 가치소비(40위, 224점)보다는 가성비(24위, 244점)를 기준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강함.
- 빈곤(43위, 219점), 경제위기(44점, 218점), 부채(53위, 205점), 비정규직(53위, 205점)의 의제들도 낮은 평가를 받음. 이 네 가지 키워드 역시 세대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난, 밀레니얼세대가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한 의제였음.
- 52시간 근로(55위, 201점) 역시 청년 세대가 낮은 평가를 부여. 이는 52시간 근로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의제가 아니라는 답변이 다수임.
- 상품후기(58위, 195점)의 경우, 예상외로 낮은 평가를 받음.

## ○ 커뮤니티/관계

- 혈연·지연·학연(64위, 176점)은 '이생망' 다음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키워드. 최근 권력형 비리 등에서 불거지며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고 알려진 혈연·지연·학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청년들은 SNS를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관계(62위, 182점)와 타인의 평가(52위, 207점)에 대해서 매우 낮은 평가를 함. 청년들에 따르면 SNS는 관계를 맺는 창구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창구, 보다 구체적으로는 나의 의견이나 취향을 공유하는 것과 같이 제한된 역할을 하는 매체이거나 또는 SNS 상의 관계의 부정적인 경험이 작용한 결과임. 그리고 타인의 평가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평가받는 것을 싫어하는 청년세대, 특히 Z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임.
- 마이너리티(56위, 199점)에도 낮은 중요도를 부여. 이는 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인식과 마이너리티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임.
-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 시민, 지도자 중에 청년들은 지도자(42위, 221점)에 가장 낮은 중요도를 부여함. 권위는 63위로 116개 항목 중 세 번째로 최저점을 받았음. 흥미로운 것은 두 세대 모두 권위가 하위권에 속하긴 하였으나 점수의 절대치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Z세대에 비해서 권위에 다소 높은 중요도를 부여함.
- 경쟁 역시 205점으로 55위를 차지. 이는 경쟁이 격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청년 세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Z세대는 밀레니얼세대에 비해서 경쟁에 보다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 특징이 있음.

##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 미세먼지(41위, 222점)와 탈원전(61위, 191점) 역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음. 이 두 항목은 세대간 격차가 극심하게 나뉘는 항목임. 이 둘에 대해서 밀레니얼 세대는 미세먼지에는 13위의 가중치를, 탈원전에 대해서도 31위의 가중치를 부여함. 반면에, Z세대는 매우 낮은 가중치를 부여함.
- 남북교류(50위, 209점)와 한반도 통일(55위, 201점) 역시 모두에게 하위 평가를 받음.



- 최근 1인주거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1인주거에 대한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음.
- 노후 준비(40위, 224점)와 치매(45위, 217점) 역시 청년들에게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높은 가중치를 두지 않았음.
- 익명성(51위, 208점)의 경우, 그것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 탓에 매우 낮은 순위를 받음.
- 한국의 청년들은 얼리어답터(56위, 199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 보다 정확하게는 모든 청년들이 얼리어답터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하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님. IT 강국의 면모가 드러나는 결과임.

#### ○ 정치/사회/참여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항목에도 등장했던 치매, 노후준비와 유사하게 초고령사회(46위, 216점) 역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저출산(59위, 194점)과 낮은 혼인율(60위, 193점) 역시 낮은 평가를 받음. 다만 이 두 가지 의제 모두 밀레니얼세대가 Z세대보다 높게 평가함.
- 촛불(49위, 211점), 적폐청산(49위, 211점)과 탄핵(57위, 196점) 모두 최하위를 기록함. 다만 이 세 가지 항목 모두 Z세대가 밀레니얼세대보다 높이 평가한 특징이 있음.
- SNS가 일상화되고, 모든 청년들이 IT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중독(58위, 195점)은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음. 아직까지 기술중독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함.

### 5) 116개에서 상위/중위/하위를 차지한 항목의 비율

[표 4-5] 전체 설문에서 상위/중위/하위 그룹이 차지한 응답의 개수 및 비율

	전체		상위1/3		중위1/3		하위1/3	
	설문개수	설문비율	응답개수	응답비율	응답개수	응답비율	응답개수	응답비율
라이프스타일	31	27%	13	33%	13	33%	5	14%
경제/일	19	16%	6	15%	4	10%	9	24%
커뮤니티/관계	26	22%	13	33%	6	15%	7	19%
미래/디지털/커뮤니	21	18%	2	5%	10	25%	9	24%
정치/사회/참여	19	16%	5	13%	7	18%	7	19%
합계	116	100%	39	100%	40	100%	37	100%

- 청년세대들은 전반적으로 라이프스타일과 커뮤니티/관계 항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일,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항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정치/사회/참여 의제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음.

#### ○ 상위 1/3 키워드 비율

- 116개 항목 중 상위권에 속하는 키워드는 39개임.
- 이 중 라이프스타일 분야가 13개(33%), 경제/일이 6개(15%), 커뮤니티/관계가 13개(33%),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이 2개(5%), 정치/사회/참여가 5개(13%)를 차지함.
- 설문문항에서 각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116개 문항 중 상위 1/3을 차지하는 키워드에서 커뮤니티/관계, 라이프스타일 분야 응답이 많음.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응답은 가장 낮았으며 경제/일과 정치/사회/참여 분야는 설문문항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남.

#### ○ 중위 1/3 키워드 비율

- 116개 항목 중 중위권에 속하는 키워드는 40개임(동점항목으로 인해 총 40개가 됨). 이 중 라이프스타일 분야와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분야는 각각 13개(33%)와 10개(25%)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정치/사회/참여 문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로 설문문항의 비율(16%)과 유사함.
- 경제/일과 커뮤니케이션/관계는 설문문항 비율 대비 낮게 나옴.

#### ○ 하위 1/3 키워드 비율

- 116개 항목 중 하위권에 속하는 키워드는 37개임.
- 이 중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관계, 정치/사회/참여는 설문문항 비율보다 낮음.
- 경제/일,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분야는 설문문항 비율보다 높음.

## 6) 밀레니얼세대(94년 이전) vs. Z세대(95년 이후) 전체 값

아래는 전체 116개 항목에 대해서, M세대와 Z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문항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표. 응답문항별로 순위와 총점을 병기했음.

[표 4-6] M세대와 Z세대 응답 비교표

M세대			Z세대		
총점	순위	문항	문항	순위	총점
138	1	웰니스(웰빙·행복·건강)	존중	1	144
134	2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	신뢰	2	140
133	3	재미·즐거움	재미·즐거움	3	135
130	4	신뢰	배려	3	135
130	4	배려	여가	3	135
130	4	가치관	자유	3	135
129	5	존중	가족	3	135
129	5	여가	사회적 약자 보호	3	135
129	5	공정	문화적 개방성	3	135
129	5	워라밸	의료공공성	3	135
129	5	경제적 가치	오프라인 관계	3	135
128	6	자유	다양한 관계	4	134
128	6	안정	가치관	5	133
127	7	가족	일에서의 흥미	5	133
127	7	일에서의 흥미	격려	5	133
127	7	결과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	6	132
127	7	경제적 안정	스토리	6	132
127	7	재산·경제력	영상	6	132
126	8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정	7	131
126	8	생존	웰니스(웰빙·행복·건강)	8	130
125	9	공존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	8	130
125	9	개인	평등	8	130
125	9	기후변화	공정	9	129
124	10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	사회복지	10	129
124	10	사회복지	일에서의보람	10	129
124	10	자기계발	커뮤니티	10	129
124	10	미래를 준비	결과	11	128
123	11	문화적 개방성	공존	11	128
123	11	의료공공성	자기계발	11	128
123	11	스트레스	질서·규칙	11	128
123	11	4차산업혁명	공유	12	127
122	12	스토리	경제적 안정	13	125
122	12	일에서의보람	위로·힐링	13	125

M세대			Z세대		
총점	순위	문항	문항	순위	총점
122	12	도전·모험	가성비	13	125
122	12	과정	독립	13	125
121	13	공유	미래에 대한 불안	13	125
121	13	미세먼지	열정	13	125
120	14	평등	사회 변화	13	125
120	14	커뮤니티	순간 집중력	14	124
120	14	질서·규칙	성평등	14	124
120	14	위로·힐링	미래를 준비	15	123
120	14	전염병	차별	15	123
120	14	따돌림	연결	15	123
120	14	나의 감정·욕구	인정을 받는 것	15	123
119	15	격려	불평등 사회	15	123
119	15	영상	동물권	15	123
119	15	가성비	이미지	16	122
119	15	차별	비리척결	16	122
119	15	신기술	위라벨	17	121
119	15	한반도 평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	17	121
118	16	시스템에 대한 신뢰	취업·스펙	17	121
118	16	정직	개인	18	120
118	16	불평등 완화	정직	18	120
118	16	사회적 지속가능성	도전·모험	19	119
118	16	청년 주거	불평등 완화	19	119
118	16	재생에너지	사회적 지속가능성	19	119
118	16	성공과 부	재산·경제력	20	118
117	17	독립	전염병	20	118
117	17	연결	청년 주거	20	118
117	17	고용 안정	재생에너지	20	118
117	17	시민	경제적 가치	21	117
117	17	인내심·지구력	생존	21	117
116	18	미래에 대한 불안	과정	21	117
116	18	순간 집중력	신기술	21	117
116	18	실리	고용 안정	21	117
115	19	다양한 관계	시민	21	117
115	19	인공지능	인공지능	21	117
115	19	가치소비	텍스트	21	117
115	19	빈곤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21	117
114	20	열정	스트레스	22	116
114	20	성평등	따돌림	23	116
114	20	인정을 받는 것	성공과 부	23	116
114	20	이미지	기본소득	24	115
114	20	경제 위기	4차산업혁명	25	114
114	20	재테크	인내심·지구력	25	114

M세대			Z세대		
총점	순위	문항	문항	순위	총점
113	21	불평등 사회	현재를 즐기자	26	113
113	21	기본소득	노후 준비	26	113
113	21	현재를 즐기자	지도자	26	113
113	21	부채	실리	27	112
112	22	사회 변화	혁신	27	112
112	22	치매	나의 감정·욕구	28	111
111	23	노후 준비	초고령사회	28	111
110	24	혁신	한반도 평화	29	110
109	25	오프라인 관계	적폐청산	29	110
108	26	동물권	기후변화	30	109
108	26	텍스트	가치소비	30	109
108	26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촛불	30	109
108	26	지도자	사회적 지위	31	108
107	27	비리척결	경쟁	31	108
107	27	1인주거	타인의 평가	32	107
107	27	창업	1인주거	33	106
106	28	익명성	치매	34	105
105	29	초고령사회	남북교류	34	105
105	29	비정규직	마이너리티	34	105
104	30	사회적 지위	빈곤	35	104
104	30	남북교류	경제 위기	35	104
104	30	명예	탄핵	35	104
103	31	취업·스펙	익명성	36	102
103	31	탈원전	미세먼지	37	101
102	32	촛불	한반도 통일	37	101
101	33	적폐청산	비정규직	38	100
101	33	52시간 근로	명예	38	100
100	34	타인의 평가	52시간 근로	38	100
100	34	한반도 통일	얼리어답터	39	99
100	34	얼리어답터	창업	40	98
100	34	상품 후기	기술중독	41	97
100	34	저출산	상품 후기	42	95
100	34	낮은 혼인율	저출산	43	94
98	35	기술중독	재테크	44	93
97	36	경쟁	낮은 혼인율	44	93
96	37	마이너리티	부채	45	92
93	38	권위	온라인 관계	46	90
92	39	탄핵	탈원전	47	88
92	39	온라인 관계	혈연·지연·학연	47	88
88	40	혈연·지연·학연	권위	48	84
82	41	이생망(이번 생은 망함)	이생망(이번 생은 망함)	49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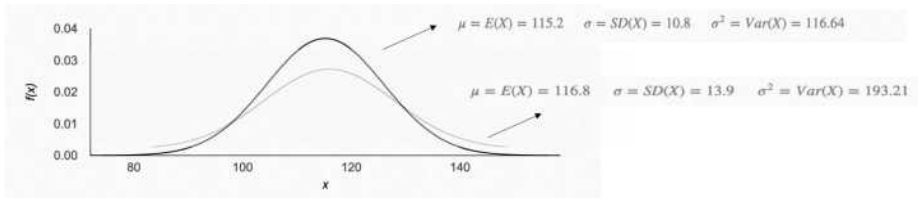
## ○ 기본 통계량 분석

- 청년 60명(M세대 30명, Z세대 30명)을 대상으로 116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의 설문을 진행한 결과, 116개 항목에 대한 M세대의 평균치는 115.2점이고 Z세대의 평균치는 116.8임. 그리고 각 세대의 중위수는 117점과 118점임. 두 세대 간의 평균값과 중위수의 차이가 크지 않음. 즉 두 세대 모두 일부 항목에 대해서 매우 강한 선호(outliers)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5-7] 세대별 응답에 대한 기본 통계량

전체	M세대(M)	Z세대(Z)	차이(M-Z)	
232.1	115.2	116.8	-1.6	평균
236.5	117	118	-2	중위수
23.3	10.8	13.9	8.7	표준편차

- 설문에 참여한 'Z세대'의 표준편차(13.9)가 '밀레니엄 세대'의 표준편차(10.8)보다 더 큼. 분산 또는 표준편차의 값이 작다는 것은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몰려 있고 분산 또는 표준편차의 값이 크다는 것은 데이터가 넓은 범위에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세대를 두 그룹으로 분류했을 때 밀레니얼세대가 Z세대에 비해서 가치관이나 선호의 유사성이 더 높으며 반대로 Z세대는 밀레니얼세대보다 세대 내 유사성이 낮음(선호가 넓게 퍼져 있음)을 의미함. 다시 말해서 116개 문항설문 결과에 대해, Z세대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Z세대가 보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밀레니엄 세대는 Z세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보다 균질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만약 해당 통계치가 정규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아래의 각 세대 응답값의 정규분포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함.



[그림 4-2] M세대와 Z세대 정규분포 그래프: (위) M세대, (아래) Z세대]

※ 본 설문 특성상 116개 항목 중에 평균값과 중위수에 해당되는 항목, 예를 들어서 M세대는 116점을 받는 문항(다양한 관계/인공지능/가치소비/빈곤)이, 그리고 Z세대는 117점을 받은 문항인(경제적가치/생존/과정/신기술/고용안정/시민)이 각각 두 세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없음.

## 7) M세대와 Z세대 간, 개별키워드 vs. 공통키워드(상위 1/3 키워드: 39개)

전체 116개 항목에 대해서, 각 그룹(상위1/3, 중위1/3, 하위1/3)별로 M세대와 Z세대가 공통키워드로 평가한 것과, 개별키워드로 평가한 것을 정리. 아래는 상위 1/3에 해당하는 키워드 39개에 대한 표임.

[표 4-8] M세대와 Z세대가 선정한 개별 키워드와 공통 키워드(상위 1/3)

항목	구분	M세대	Z세대
라이프스타일	공통	재미·즐거움, 여가, 자유, 가치관, 안정, 결과, 공정 웰니스(웰빙·행복·건강), 자기계발	
	개별	워라벨, 경제적가치, 생존, 과정 미래를 준비, 스트레스, 도전·모험	위로·힐링, 열정, 순간집중력
경제/일	공통	일에서의 흥미,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 일에서의 보람, 경제적 안정	
	개별	재산·경제력	가성비
커뮤니티/관계	공통	신뢰, 존중, 배려, 공유, 격려, 문화적 개방성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 가족, 커뮤니티, 평등	
	개별	개인	오프라인 관계, 독립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공통	스토리	
	개별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미세먼지	영상, 미래에 대한 불안
정치/사회/참여	공통	사회적약자 보호, 의료공공성, 공정, 사회복지	
	개별		질서·규칙, 사회변화

### ○ 라이프스타일

-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 Z세대는 전반적으로 웰니스와 관계된 의제를 집중적으로 선택했고, M세대는 웰니스와 경제적 가치를 균형감 있게 선택한 특징이 있음.
- 상위 1/3을 차지하는 의제 중 라이프스타일 항목은, 세대 간에 공통 의제가 9개, 세대별 개별의제는 10개(Z세대 3개, 밀레니얼세대 7개). 즉, 밀레니얼세

대는 16개를, Z세대는 12개를 상위 1/3에 속하는 의제로 선정. 라이프스타일 항목은, 밀레니얼세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이 더 많음.

- ‘웰니스(웰빙·행복·건강), 재미·즐거움, 여가, 자유, 자기계발’와 같이 삶의 질과 관련된 항목이 공통키워드로 평가됨. 이는 청년세대들이 공통적으로 삶의 질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음을 시사함. 이후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재미·즐거움, 여가의 경우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 경쟁으로부터의 탈출 등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함.

“요즘 많이 접하고 있는 제, 바이러스나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출산률 꼴찌에 자살률 1위 같은 세상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싶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유나 여가, 재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아닐까요.”

Z세대(한○○)

- 안정이 높은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은 세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반면에 Z세대는 위로·힐링, 열정, 순간 집중력을 상위로 선택했고, M세대는 위라벨, 경제적가치, 생존, 과정, 미래준비, 스트레스, 도전·모험을 보다 선호함.

#### ○ 경제/일

- 전체 116개 중 상위 1/3을 차지하는 의제 중 경제/일 항목은 공통키워드가 4개, 개별키워드가 각 1개임.
- 두 세대 모두 일에서의 보람과 흥미, 금전적 보상을 균형 있게 중요하다고 평가함. 동시에 경제적 안정 역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함.
- 개별 키워드 관련해서, Z세대는 소비와 관련된 키워드로서 가성비를, M세대는 경제와 관련된 키워드로서 재산·경제력을 상위로 선택했음을 알 수 있음.

#### ○ 커뮤니티/관계

- 상위 1/3를 차지하는 의제 중 커뮤니티/관계 항목은, 세대 간에 공통키워드가 11개, 세대별 개별키워드는 총 3개(Z세대 2개, 밀레니얼세대 1개)에 불과. 즉, 커뮤니티/관계 항목의 경우, Z세대와 밀레니얼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들이 대부분 비슷함.

- ▶ 두 세대 모두 신뢰, 존중, 배려, 격려, 문화적 개방성,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 평등, 가족, 커뮤니티, 공유의 의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 ▶ 가족이 중요한 것은 신뢰, 격려,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의 가족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커뮤니티가 높은 것은 나와 취향이 유사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가 높은 청년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
- ▶ 문화적 개방성과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은, 나의 취향을 존중하고 나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관계에 대한 지향성이 높은 청년층의 특성을 보여줌.
- ▶ 평등이 높은 것은 공정함을 지향하는 청년들의 특성이, 관계에 있어서의 평등 역시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줌.
- ▶ 공유가 높은 것은 공유경제 플랫폼의 급격한 확산과, 청년층이 쏘카, 에어비앤비, 위워크 등과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많다는 것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긍정적 인식과 더불어서 공유경제 기업들의 시장가치가 매우 크고 이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공유경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도 보임.

*“공유가 상위에 있는 것은 공유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높은 참여도의 영향일 것 같네요.”*

*Z세대(허○○, 정○○)*

- 반면 Z세대는 오프라인 관계와 독립이라는 키워드를 중시하고, M세대는 개인이라는 키워드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함.

- ▶ 이후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으나, 오프라인 관계의 중요도에 있어서 Z세대가 M세대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함.
- ▶ M세대는 가족, 커뮤니티, 개인을 모두 상위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나, Z세대는 오히려 가족과 커뮤니티는 중요한 키워드로 여기고 있으나, 개인이라는 키워드는 덜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함.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에서, 두 세대 모두, 커뮤니케이션에서 ‘스토리’라는 요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 개별적으로 M세대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4차 산업혁명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에 Z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중요한 키워드로 선정함.

○ 정치/사회/참여의 경우, 두 세대 모두 사회적 약자 보호, 의료공공성, 공정, 사회복지를 중요한 의제로 선정함. 개별적으로는 Z세대가 질서와 규칙, 사회변화를 보다 더 중요한 의제로 선정했음. 특징적인 것은 Z세대가 의료공공성, 사회

적 약자 보호, 사회변화 문항에 대해 M세대보다 9점에서 13점정도 더 높게 중요성을 부여함.

## 8) M세대와 Z세대 간, 개별키워드 vs. 공통키워드(중위 1/3 키워드: 39개)

### ○ 라이프스타일

- 두 세대 공통으로 정직, 인내심·지구력, 인정 등과 같은 전통적 가치를 어느 정도 중시함. 청년세대들은 매우 현실적인 특성을 가졌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성공과 부와 같이 부모세대들이 매우 중요했던 가치가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은 것은 의외의 결과임.
- ‘현재를 즐기자’는 키워드가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세대들이 현재를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내려고는 하지만, 그 정도가 극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 라이프스타일 항목에서, M세대는 Z세대가 상위1/3의 가치로 선택한 의제에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부여했으며, 반대로 Z세대는 M세대가 상위1/3의 가치로 선택한 의제를 중간정도로 평가함. 이를 통해서,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 즉 삶에 대한 태도나 우선시 하는 가치라는 측면에서 두 세대는 공통점보다 차이가 많이 남.
  - ▶ M세대가 결과와 과정을 모두 상위의 가치로 평가한 반면에 Z세대는 ‘과정’이라는 키워드에 중간 정도의 의미를 부여. 마찬가지로 M세대는 미래준비를 상위로 꼽았으나, Z세대는 미래준비를 중간으로 평가.
  - ▶ M세대에서 상위이지만, Z세대에서는 중위인 키워드: 경제적 가치, 미래를 준비, 도전·모험, 워라벨, 생존, 스트레스.
  - ▶ Z세대에서 상위이지만, M세대에서는 중위인 키워드: 위로·힐링, 순간집중력, 열정.

[표 4-9] M세대와 Z세대가 선정한 개별키워드와 공통키워드(중위 1/3)

항목	구분	M세대	Z세대
라이프 스타일	공통	정직, 성공과 부, 인내심·지구력 인정을 받는 것, 현재를 즐기자	
	개별	순간 집중력, 실리, 열정 위로·힐링, 나의 감정·욕구	미래준비, 워라벨, 취업·스펙, 과정 도전·모험, 경제적가치, 생존,스트레스
경제/일	공통	불평등 완화, 청년주거, 고용안정, 기본소득	
	개별	가성비, 가치소비, 빈곤 경제위기, 재테크	재산·경제력
커뮤니티 /관계	공통	따돌림, 차별, 연결, 시민, 성평등	
	개별	격려, 독립, 다양한 관계	개인, 지도자
미래/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공통	전염병, 신기술,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이미지	
	개별	영상, 한반도 평화, 미래에 대한 불안	텍스트, 4차산업혁명, 노후준비
정치/사회 /참여	공통	시스템에 대한 신뢰, 사회적 지속가능성, 불평등 사회	
	개별	질서·규칙	동물권, 비리척결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 ○ 경제/일

- 청년들의 주된 관심사라고 여겨졌던, 불평등완화, 청년주거, 고용안정, 기본소득 등은 일관되게 중위의 평가를 받음. 청년들은 이 정책들을 아직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일부 청년들은 이 정책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또 일부 청년들은 위의 정책들에 대해 이해 자체가 낮았음.
- M세대는 소비방식과 관련된 질문에서 가성비(가격대비 효율/성능의 우수성)와 가치소비를 모두 중간 정도의 중요도로 평가함. 빈곤이나 경제위기, 재테크 역시 낮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매우 높지도 않다고 평가함.
- Z세대는 재산·경제력을 당장 매우 중요한 의제는 아닌, 중간정도의 중요도를 가진 항목으로 평가함.

## ○ 커뮤니티/관계

- 따돌림과 차별, 성평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두 세대 모두 보통의 중요도를 가진 항목으로 평가함. 다만 성평등의 경우, 중위 내에서도 Z세대가 M세대보다 높은 중

요도를 가진 항목으로 평가(10점 차이). 흥미로운 것은 성평등의 경우 세대 간 점수 격차는 분명하지만 세대 내에서 성별 격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두 세대 모두 연결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표시함.
- Z세대의 경우, 개인, 지도자, 시민을 모두 유사한 정도의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했고 M세대의 경우, 격려, 독립, 다양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중간 정도로 평가함.

####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 두 세대 모두 신기술, 재생에너지, 인공지능을 중위로 평가. 흥미로운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고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Z세대에서 4차 산업혁명이 중위(25위, 114점)의 평가를 받았고, 오히려 M세대에서 더 높은 평가(11위, 123점)를 받음.
- 최근 전세계적 리셋을 초래한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크게 민감해하지 않는 것으로, 의외의 결과가 나타남.
- M세대의 경우, 정보습득이나 매체 활용 면에서 영상의 방식을 더 선호하지만 영상과 이미지 모두 중위의 평가로 분류. 반면 Z세대는 영상을 훨씬 더 선호하고 이미지는 중위로 평가함. 흥미로운 것은 Z세대는 '텍스트' 기반의 매체를 중위로 평가했으나, 텍스트에 훨씬 익숙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M세대는 '텍스트'라는 키워드를 하위로 평가함.
- Z세대가 M세대보다 노후 준비를 더 중요하다고 평가한 것 역시 흥미로운 결과. M세대에서 노후준비는 하위1/3에 속함(26위, 113점).
- Z세대가 M세대보다 미래를 더 불안하게 느끼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M세대가 Z세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 남북교류, 한반도 통일은 두 세대 모두 하위1/3에 속하지만, M세대의 경우 한반도 평화를 중위로 평가. Z세대는 한반도 평화도 하위로 평가함.

#### ○ 정치/사회/참여

- 두 세대 모두 시스템에 대한 신뢰, 사회적 지속가능성, 불평등 사회에 대해 중위의 평가함.

- Z세대가 질서·규칙을 상위로 평가한 반면에 M세대는 중위로 평가함.
- 동물권과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는 Z세대가 중위로 평가한 반면에 M세대는 동일 항목을 하위로 평가함.

## 9) M세대와 Z세대 간, 개별키워드 vs. 공통키워드(하위 1/3 키워드: 38개)

[표 4-10] M세대와 Z세대가 선정한 개별키워드와 공통키워드(하위 1/3)

항목	구분	M세대	Z세대
라이프 스타일	공통	혁신, 사회적 지위, 명예, 이생망(이번 생은 망함)	
	개별	취업·스펙	실리, 나의 감정·욕구
경제/일	공통	비정규직, 창업, 52시간 근로, 상품후기, 부채	
	개별		가치소비, 빈곤, 경제위기, 재테크
커뮤니티 /관계	공통	경쟁, 타인의 평가, 마이너리티, 온라인 관계 혈연·지연·학연, 권위	
	개별	오프라인 관계, 지도자	
미래/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공통	1인주거, 치매, 남북교류, 한반도 통일, 익명성, 얼리어답터, 탈원전	
	개별	노후 준비, 텍스트	한반도 평화, 미세먼지
정치/사회 /참여	공통	초고령사회, 적폐청산, 촛불, 탄핵, 기술중독, 저출산, 낮은 훈인률	
	개별	사회변화, 동물권, 비리척결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 ○ 라이프스타일

- 혁신, 사회적 지위, 명예, 이생망의 키워드는 모두 하위로 평가받음.
- 대부분 취업을 해서 3~5년 이상 직장을 다닌 세대는 M세대는 취업·스펙을 낮게 평가함.
- 자신만의 취향이나 가치관을 매우 중시하는 Z세대에서 ‘나의 감정·욕구’라는 키워드가 낮게 나온 것이나, ‘실리’를 중시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Z세대에서 ‘실리’가 하위에 속한 것은 의외의 결과임.

## ○ 경제/일

- Z세대와 M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비정규직, 부채, 창업, 52시간 근로가 낮게 나옴.
  - ▶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맞춰서 도입된 52시간 근로의 경우, 내용에 대한 이해나 해당 정책이 가진 의미를 모르는 응답자가 다수임.
- 청년들이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는 '상품후기'가 낮게 나온 것은 의외의 결과임.
- Z에서는 빈곤, 경제위기, 재테크가 하위에 속했으며, 젊은 층들이 중시하는 소비 패턴이라고 가정했던 가치소비가 하위로 나타남.

## ○ 커뮤니티./관계

- 경쟁, 타인의 평가, 마이너리티, 온라인 관계 모두 하위에 속했으며, 혈연·지연·학연이나 권위와 같은 전통적인 키워드 역시 하위에 속함. 흥미로운 것은 권위가 세대 공통으로 하위에 속하긴 하였으나, 권위에 대한 응답에서 M세대 응답의 절대값이 높게 나왔음.
- 또한 M세대가 오프라인 관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 것은 상당히 의외의 결과. M세대는 지도자에 대해서도 낮은 평가를 내림.

##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청년층 사이에서 1인가구는 하위에 중요도로 평가됨.
- 앞서 언급했듯이 한반도통일과 남북교류는 두 세대 모두에서 하위의 평가를 받았으며, 온라인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익명성 역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IT강국으로 IT상품/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트렌드에 매우 민감하다고 평가받은 한국 청년들이 얼리어답터라는 키워드를 낮게 평가함. 앞서 언급했듯이, 거의 모든 청년들이 얼리어답터인 상황이기 때문에 얼리어답터가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분석됨.
- 현 정부 초기부터 공론화되어 왔던 탈원전이나 고령화 분야 이슈로 현실 체감도가 낮은 노후 준비키워드 역시 낮은 중요도로 평가받음.

-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매우 심각한 대기문제로 꼽혔던 미세먼지가 Z세대에서 하위에 속한 것 역시 의외의 결과임.

#### ○ 정치/사회/참여

- 초고령사회, 저출산, 낮은 혼인율 같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꼽히는 의제들은 모두 하위로 평가함.
- 촛불, 탄핵, 적폐청산 등 현정부 출범 초기에 끊임없이 회자되었던 키워드 역시 하위로 평가받음.
- IT 대중화, 일반화와 함께 스마트폰 중독같은 문제가 언론에 종종 보도되지만, 청년들은 기술중독이 아직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이라 아니라고 평가함.
- M세대는 일관되게 사회변화나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를 낮게 평가했고, 비리척결이나 동물권에도 낮은 중요도를 부여함.

### 3\_조사 결과: 세대 간 차이(M-Z)

아래는 각 의제에 대해 세대별 인식격차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항목별 총점의 차이를 분석함. 점수 차이는 M세대의 선호가 강한 의제와 세대간 차이가 크지 않은 의제, Z세대의 선호가 강한 의제로 구분함. 항목별로 M세대의 총점에서 Z세대의 총점을 뺀 수치가 (양의 값으로)클수록 M세대의 선호가 강한 것이며, M세대의 총점에서 Z세대의 총점을 뺀 수치가 (음의 값) 작아질수록 Z세대의 선호가 강한 것임.

[표 4-11] (M-Z) 비교표

No.	항목	키워드	차이(M-Z)
1	경제/일	재테크	21
2	경제/일	부채	21
3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미세먼지	20
4	라이프스타일	이생망(이번 생은 망함)	18

No.	항목	키워드	차이(M-Z)
5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기후변화	16
6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탈원전	15
7	라이프스타일	경제적 가치	12
8	경제/일	빈곤	11
9	경제/일	경제 위기	10
10	경제/일	재산·경제력	9
11	라이프스타일	생존	9
12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4차산업혁명	9
13	라이프스타일	나의 감정·욕구	9
14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한반도 평화	9
15	경제/일	창업	9
16	커뮤니티/관계	권위	9
17	라이프스타일	웰니스(웰빙·행복·건강)	8
18	라이프스타일	워라밸	8
19	라이프스타일	스트레스	7
20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치매	7
21	정치/사회/참여	낮은 훈인율	7
22	경제/일	가치소비	6
23	정치/사회/참여	저출산	6
24	커뮤니티/관계	개인	5
25	라이프스타일	과정	5
26	경제/일	비정규직	5
27	경제/일	상품 후기	5
28	경제/일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	4
29	커뮤니티/관계	따돌림	4
30	라이프스타일	실리	4
31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익명성	4
32	라이프스타일	명예	4
33	라이프스타일	도전·모험	3
34	라이프스타일	인내심·지구력	3
35	경제/일	경제적 안정	2
36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전염병	2
37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신기술	2
38	라이프스타일	성공과 부	2
39	커뮤니티/관계	온라인 관계	2
40	라이프스타일	미래를 준비	1
41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1인주거	1
42	경제/일	52시간 근로	1



No.	항목	키워드	차이(M-Z)
43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얼리어답터	1
44	정치/사회/참여	기술중독	1
45	정치/사회/참여	공정	0
46	경제/일	청년 주거	0
47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재생에너지	0
48	경제/일	고용 안정	0
49	커뮤니티/관계	시민	0
50	라이프스타일	현재를 즐기자	0
51	커뮤니티/관계	혈연·지연·학연	0
52	라이프스타일	결과	-1
53	경제/일	불평등 완화	-1
54	정치/사회/참여	사회적 지속가능성	-1
55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남북교류	-1
56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한반도 통일	-1
57	라이프스타일	재미·즐거움	-2
58	라이프스타일	정직	-2
59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인공지능	-2
60	경제/일	기본소득	-2
61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노후 준비	-2
62	라이프스타일	혁신	-2
63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3
64	라이프스타일	안정	-3
65	라이프스타일	공존	-3
66	정치/사회/참여	시스템에 대한 신뢰	-3
67	라이프스타일	자기계발	-4
68	커뮤니티/관계	차별	-4
69	라이프스타일	사회적 지위	-4
70	커뮤니티/관계	배려	-5
71	정치/사회/참여	사회복지	-5
72	라이프스타일	위로·힐링	-5
73	커뮤니티/관계	지도자	-5
74	라이프스타일	여가	-6
75	경제/일	일에서의 흥미	-6
76	커뮤니티/관계	공유	-6
77	경제/일	가성비	-6
78	커뮤니티/관계	연결	-6
79	정치/사회/참여	초고령사회	-6

No.	항목	키워드	차이(M-Z)
80	라이프스타일	자유	-7
81	경제/일	일에서의보람	-7
82	정치/사회/참여	춧불	-7
83	커뮤니티/관계	타인의 평가	-7
84	커뮤니티/관계	가족	-8
85	커뮤니티/관계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	-8
86	정치/사회/참여	질서·규칙	-8
87	커뮤니티/관계	독립	-8
88	라이프스타일	순간 집중력	-8
89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이미지	-8
90	정치/사회/참여	사회적 약자 보호	-9
91	커뮤니티/관계	커뮤니티	-9
92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미래에 대한 불안	-9
93	라이프스타일	인정을 받는 것	-9
94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텍스트	-9
95	정치/사회/참여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9
96	정치/사회/참여	적폐청산	-9
97	커뮤니티/관계	마이너리티	-9
98	커뮤니티/관계	신뢰	-10
99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스토리	-10
100	커뮤니티/관계	평등	-10
101	커뮤니티/관계	성평등	-10
102	정치/사회/참여	불평등 사회	-10
103	라이프스타일	열정	-11
104	커뮤니티/관계	경쟁	-11
105	커뮤니티/관계	문화적 개방성	-12
106	정치/사회/참여	의료공공성	-12
107	정치/사회/참여	탄핵	-12
108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영상	-13
109	정치/사회/참여	사회 변화	-13
110	커뮤니티/관계	격려	-14
111	커뮤니티/관계	존중	-15
112	정치/사회/참여	동물권	-15
113	정치/사회/참여	비리척결	-15
114	라이프스타일	취업·스펙	-18
115	커뮤니티/관계	다양한 관계	-19
116	커뮤니티/ 관계	오프라인 관계	-26

1) M세대와 Z세대 선호의 격차 중에, M세대가 5점 이상 더 강한 선호를 보이는 항목은 전체의 27개

[표 4-12] (M-Z)≥5 항목

No.	항목	키워드	차이(M-Z)
1	경제/일	재테크	21
2	경제/일	부채	21
3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미세먼지	20
4	라이프스타일	이생망(이번 생은 망함)	18
5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기후변화	16
6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탈원전	15
7	라이프스타일	경제적 가치	12
8	경제/일	빈곤	11
9	경제/일	경제 위기	10
10	경제/일	재산·경제력	9
11	라이프스타일	생존	9
12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4차산업혁명	9
13	라이프스타일	나의 감정·욕구	9
14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한반도 평화	9
15	경제/일	창업	9
16	커뮤니티/관계	권위	9
17	라이프스타일	웰니스(웰빙·행복·건강)	8
18	라이프스타일	워라밸	8
19	라이프스타일	스트레스	7
20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치매	7
21	정치/사회/참여	낮은 혼인율	7
22	경제/일	가치소비	6
23	정치/사회/참여	저출산	6
24	커뮤니티/관계	개인	5
25	라이프스타일	과정	5
26	경제/일	비정규직	5
27	경제/일	상품 후기	5

○ 27개 문항 경제/일은 9개, 라이프스타일 8개,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은 6개, 정치.사회.참여 2개, 커뮤니티/관계는 2개임.

○ 경제/일, 라이프스타일,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항목이 다수를 차지함.

- 경제/일 항목에서는 재테크(21점차), 부채(21점차), 경제적 가치(12점차), 빈곤(11점

- 차), 경제위기(10점차), 재산·경제력(9점차), 창업(9점차) 문항이 높은 점수를 받았음. 특히 재테크(21점 차)나 부채(21점 차)는 세대 간 격차가 가장 큰 문항 중 하나임.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에서는 Z세대가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4차 산업혁명이나 기후변화, 탈원전 항목에서도 M세대의 중요도가 훨씬 높음. M세대가 강한 선호를 보인 미세먼지 역시 세대 간 격차가 가장 큰 의제 중 하나임. 한반도 평화나 치매에 대해서도 M세대가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함.
  - 라이프스타일 항목에서, 이생망과 경제적 가치라는 키워드에서 가장 큰 격차가 발생했으며, 생존이나 나의 감정·욕구, 웰니스, 워라벨의 키워드에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함. 그리고 Z세대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이라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특성을 반영하듯, 스트레스 문항에서도 큰 차이를 보임.

○ 커뮤니티/관계, 정치/사회/참여에서는 M세대의 선호가 강한 문항이 많지 않음.

- 이 항목들에서 M세대가 중요하다고 평가한 항목은 권위(커뮤니티.관계), 개인(커뮤니티.관계), 낮은 혼인율(정치/사회/참여), 저출산(정치/사회/참여)로 총 4개임.

## 2) M세대와 Z세대 선호의 격차 중에, Z세대가 5점 이상 더 강한 선호를 보이는 항목은 전체의 47개

[표 4-13] (Z-M)≥5 항목

No.	항목	키워드	차이(M-Z)
1	커뮤니티/ 관계	오프라인 관계	-26
2	커뮤니티/관계	다양한 관계	-19
3	라이프스타일	취업·스펙	-18
4	커뮤니티/관계	존중	-15
5	정치/사회/참여	동물권	-15
6	정치/사회/참여	비리척결	-15
7	커뮤니티/관계	격려	-14
8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영상	-13
9	정치/사회/참여	사회 변화	-13
10	커뮤니티/관계	문화적 개방성	-12
11	정치/사회/참여	의료공공성	-12
12	정치/사회/참여	탄핵	-12
13	라이프스타일	열정	-11

No.	항목	키워드	차이(M-Z)
14	커뮤니티/관계	경쟁	-11
15	커뮤니티/관계	신뢰	-10
16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스토리	-10
17	커뮤니티/관계	평등	-10
18	커뮤니티/관계	성평등	-10
19	정치/사회/참여	불평등 사회	-10
20	정치/사회/참여	사회적 약자 보호	-9
21	커뮤니티/관계	커뮤니티	-9
22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미래에 대한 불안	-9
23	라이프스타일	인정을 받는 것	-9
24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텍스트	-9
25	정치/사회/참여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9
26	정치/사회/참여	적폐청산	-9
27	커뮤니티/관계	마이내리티	-9
28	커뮤니티/관계	가족	-8
29	커뮤니티/관계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	-8
30	정치/사회/참여	질서·규칙	-8
31	커뮤니티/관계	독립	-8
32	라이프스타일	순간 집중력	-8
33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이미지	-8
34	라이프스타일	자유	-7
35	경제/일	일에서의보람	-7
36	정치/사회/참여	촛불	-7
37	커뮤니티/관계	타인의 평가	-7
38	라이프스타일	여가	-6
39	경제/일	일에서의 흥미	-6
40	커뮤니티/관계	공유	-6
41	경제/일	가성비	-6
42	커뮤니티/관계	연결	-6
43	정치/사회/참여	초고령사회	-6
44	커뮤니티/관계	배려	-5
45	정치/사회/참여	사회복지	-5
46	라이프스타일	위로·힐링	-5
47	커뮤니티/관계	지도자	-5

○ Z세대는 커뮤니티/관계, 정치/사회/참여에서 높은 선호를 보임.

- Z세대는 M세대에 비해서 오프라인 관계, 다양한 관계, 존중, 격려, 문화적 개방성, 경쟁, 성평등, 평등, 신뢰에 강한 중요도를 부여함. M세대와 Z세대의 차이는 전체 116개 문항에서 세대 간 차이 중에 가장 큰 점수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오프라인 관계(-26점). 다양한 관계(-19점) 역시 매우 높은 차이를 보이는 문항임.
- 마이너리티나 커뮤니티, 독립,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 역시 Z세대가 훨씬 중요하게 평가하고, 가족의 중요도 역시 M세대보다 Z세대에서 높게 나타남.
- 타인의 평가나 연결, 공유, 지도자, 배려의 문항에서도 Z세대의 선호가 높음.
- 정치/사회/참여 항목에서 비리척결과 동물권, 사회변화, 탄핵, 의료공공성, 불평등, 적폐청산이나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사회적 약자 보호, 질서·규칙, 촛불 문항에 대해서도 Z세대가 높게 평가했으며, 초고령사회나 사회복지 문항도 Z세대가 높게 평가함.

○ 라이프스타일, 경제/일에서 M세대와 큰 격차를 보이는 문항은 주로 웰니스와 관련된 문항임.

- 두 항목에서 Z세대가 중요하다고 평가한 의제는 주로 열정, 인정, 자유, 여가, 위로·힐링, 일에서의 흥미, 일에서의 보람과 같은 ‘웰니스’와 연관된 항목임.
- 취업·스펙의 경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대다수인 Z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높은 중요도를 표현한 것으로 보임.
- Z세대에서 가성비를 더 높게 평가한 것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항목에서는 대부분 M세대의 선호가 강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관련된 문항(스토리, 영상, 텍스트, 이미지)에서는 Z세대의 선호가 더 높음.

### 3) M세대와 Z세대 선호의 격차 중에, 두 세대의 격차가 높지 않은, 즉 +4~-4 까지 점수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전체의 42개

[표 4-14]  $4 \geq (M-Z) \geq -4$  항목

No.	항목	키워드	차이(M-Z)
28	경제/일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	4
29	커뮤니티/관계	따돌림	4
30	라이프스타일	실리	4
31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익명성	4
32	라이프스타일	명예	4
33	라이프스타일	도전·모험	3
34	라이프스타일	인내심·지구력	3
35	경제/일	경제적 안정	2
36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전염병	2
37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신기술	2
38	라이프스타일	성공과 부	2
39	커뮤니티/관계	온라인 관계	2
40	라이프스타일	미래를 준비	1
41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1인주거	1
42	경제/일	52시간 근로	1
43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얼리어답터	1
44	정치/사회/참여	기술중독	1
45	정치/사회/참여	공정	0
46	경제/일	청년 주거	0
47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재생에너지	0
48	경제/일	고용 안정	0
49	커뮤니티/관계	시민	0
50	라이프스타일	현재를 즐기자	0
51	커뮤니티/관계	혈연·지연·학연	0
52	라이프스타일	결과	-1
53	경제/일	불평등 완화	-1
54	정치/사회/참여	사회적 지속가능성	-1
55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남북교류	-1
56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한반도 통일	-1
57	라이프스타일	재미·즐거움	-2
58	라이프스타일	정직	-2
59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인공지능	-2
60	경제/일	기본소득	-2
61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노후 준비	-2
62	라이프스타일	혁신	-2
63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3
64	라이프스타일	안정	-3
65	라이프스타일	공존	-3
66	정치/사회/참여	시스템에 대한 신뢰	-3
67	라이프스타일	자기계발	-4
68	커뮤니티/관계	차별	-4
69	라이프스타일	사회적 지위	-4

- 42개 항목에서는 M세대와 Z세대의 선호가 유사하게 나타남.
- 아래의 [그림 4-3]는 위의 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두 세대 각각에 대해 가장 선호하는 항목부터 내림차순으로 나열한 것임.



[그림 4-3] 116개 문항에 대해 (M-Z) 값을 표현한 막대그래프

- [그림 3]에서 차이의 값이 0이 되는 기준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Z세대의 선호가 높은 것이며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M세대의 선호가 높음. [그림 5]에서 나타나듯이, Z세대가 더 강한 선호를 보이는 문항의 개수(65개)가 M이 더 강한 선호를 보이는 문항의 개수(44개)보다 더 많음. 이는 본 설문 문항에 대해서 Z세대가 M세대보다 더욱 뚜렷한 취향이나 가치관, 주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4\_소결: 청년, M세대와 Z세대는 같은가, 다른가?

- 앞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Z세대가 더욱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음. 두 세대 사이의 차이는 이것뿐일까? 사실 기본 통계량인 평균과 분산에서 두 집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그렇다면 대체로 두 세대는 유사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 두 세대의 응답치를 각각 막대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얼핏 보기에 두 그래프가 비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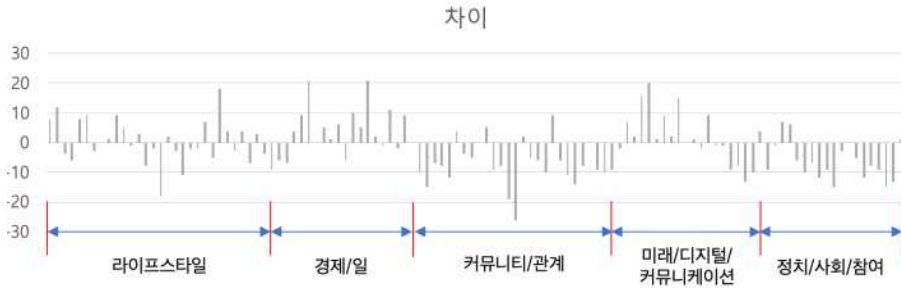
[그림 4-4] M세대의 응답값



[그림 4-5] Z세대의 응답값

※ 설문의 1~31은 라이프스타일, 32~50은 경제/일, 51~76은 커뮤니티/관계, 77~97은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98~116은 정치/사회/참여

-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청년세대라고는 하지만 두 세대가 다른 집단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임. 두 세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가 명확하게 다름. 앞서 언급했듯이 M세대는 경제/일과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에, Z세대는 커뮤니티/관계, 정치/사회/참여에서 강한 선호가 나타남.
- 두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의 차이는 아래 그래프를 보면 보다 명확해짐(M세대와 Z세대 각각에 대해서, 설문문항 1번부터 116번까지의 응답값의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M세대와 Z세대는 항목에 따라서 명확한 선호를 보임(Y축 숫자가 커질수록, 즉 30으로 향할수록 각 문항에서 M세대의 점수가 높은 것이고 숫자가 작아질수록, 즉 -30으로 향할수록 각 문항에서 Z세대의 점수가 높음).



[그림 4-6] 전체 항목에 대한 (M-Z)의 막대그래프

- 경제와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항목은 대부분의 값들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이 항목들에서는 M세대들이 각 문항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임.
- 반대로 커뮤니케이션/관계와 정치/사회/참여 항목은 대부분의 값들이 음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음. 즉, 이 항목들에서는 Z세대들이 각 문항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임.
- 만약 두 세대가 유사한 집단이라면 항목별로 그리고 116개 항목 전체에서 차이의 합계가 0을 중심으로 일정한 분포를 가져야할 것이지만, 위의 그래프에서 확인되듯이 차이의 합계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의 모양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불규칙적이며, 항목별로 세대별 중요도(선호)가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이 나타남.

○ 이는 두 세대 응답값의 차이(M-Z)의 항목별 합계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음.

[표 4-15] 항목별 (M-Z) 합계 비교표

항목	(M-Z) 합계
라이프스타일	5
경제/일	82
커뮤니티/관계	-182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31
정치/사회/참여	-120
합계	-184

- 커뮤니티/관계와 정치/사회/참여 항목에서 (M-Z)의 값이 각각 -182점과 -120점임. 이는 두 항목에서는 Z세대의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의미함. 반면 경제/일과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항목에서의(M-Z)의 값은 각각 82점과 31점으로 M세대의 선호가 강함을 알 수 있음. 라이프스타일의 경우 항목 내 문항에 따라서 선호가 달라지고 항목 내 차이의 합계가 5점에 불과함.

▶ 라이프스타일 항목에서 Z세대는 취업·스펙(-18점), 열정(-11점), 인정을 받는 것(-9점), 순간 집중력(-8점)에 큰 중요도를 부여했고 M세대는 이생망(18점), 경제적 가치(12점), 나의 감정·욕구(9점), 생존(9점), 위라벨(8점), 웰니스(8점)의 항목을 많이 선호함.

## 05. 23개의 질문으로 살펴본 청년세대 가치관: 공통점과 차이점

제5장은 M세대와 Z세대, 각 세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징적인 결과에 대해, 세대별로 FGI를 한 질문과 답변을 요약정리하였음.

### 1\_M세대 vs. Z세대: 존중과 배려

- M세대와 Z세대는 모두 존중과 배려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했고, 특히 Z세대는 존중을 1위로 꼽아서 116개 가치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함.
- 하지만 두 세대가 존중과 배려를 중요하게 평가한 이유가 달랐음. M세대에서 존중과 배려가 높은 것은 사회생활에서의 압박과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약했던 시대에 성장을 하면서, 존중과 배려에 대한 결핍이 반영된 결과이고, Z세대에서 높은 것은 존중과 배려가 개인의 취향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 또는 나의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임.
  - M세대는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 이상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로서, 사회생활 과정에서 느끼는 압박, 배려의 부족, 그리고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체벌이 존재한 학창시절을 보내며 성장과정에서 존중을 받았다는 느낌이 없었다는 응답이 다수임. 즉, M세대는 성장 과정에서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모두 존중의 결핍이 있고, 본 응답은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필요가 강하게 반영된 것임.
  - Z세대는 취향이나 개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취향이나 개성은 타인으로 부터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배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존중이

나 배려는 친밀한 관계에서 혹은 나를 중심으로,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키워드이다 보니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함. 마지막으로 Z세대가 존중과 배려, 신뢰를 중시하는 데에는 SNS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SNS 활동을 통해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에 욕먹는 것도 매우 쉽고 특히 온라인에서 관계가 너무 쉽게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응원과 존중, 배려의 관계를 원하는 답이 다수였음.

(FGI Q&A)

1-1. Z세대에게 존중과 신뢰가 왜 1위와 2위일까요, Z세대는 공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다소 의외네요. 그리고 Z세대는 문화적 개방성이나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 신뢰 역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세대는 취향이나 성격,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것들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죠... 나, 나의 취향, 나의 행동은 있는 그대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Z세대(정○○)

-제 생각엔 평등과 공정은 이미 다루었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부조리가 너무 뿌리 깊어서 뭘 해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최근에 드러난 사건들 있잖아요. 마약을 해도 부모가 유명한 정치인이라서 쉽게 풀려나고, 저랑 한 살 차이 나는 그 사람은 외제차를 타면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느껴서 있어서가 아닐까요.

Z세대(허○○)

-평등/공정과 존중/신뢰는 비슷한 키워드로 보이지만 존중/신뢰는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의 키워드이고 평등/공정은 사회적, 정치적인 키워드인 듯해요. 범위가 넓은 키워드인 것이죠. 저희 세대는 나를 중심으로 또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범

위가 넓은 평등/공정보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중/신뢰가 더 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Z세대(김○○)

-저희 세대는 SNS를 일상처럼 사용하고,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인터넷에서는 관계를 맺는 것만큼이나 욕먹는 것도 엄청 쉬워요. 그 속에서도 응원과 좋은 댓글을 달아주는 관계를 원하는 거죠. 또한 몰래카메라, 위협의 사례가 일상적으로 보도되잖아요.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존중받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죠.

Z세대(한○○)

1-2. Z세대와 마찬가지로 M세대에게도 공정(9위)보다 존중(7위)이나 신뢰(4위)가 높게 나왔습니다. Z세대는 취향과 개성, 정체성에 대한 존중, 배려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M세대가 존중과 신뢰를 높게 평가한 것도 비슷한 이유인가요?

-저희는 사회 초년생에서 몇 년 더 지난 세대입니다. 회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어서, 그리고 서툴고 잘 모른다고 이해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죠. 한마디로 회사에서 '까이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과정에서 늘 압박을 당하고 존중 받지도 배려 받지도 못하는 생활에 찌들어 있는 거죠.

M세대(박○○), M세대(최○○)

-회사라는 곳이 개인적인 관계로 맺어진 곳이 아니다보니 배려를 바라는 게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결정되죠. 대부분이 내 부서의 일 또는 나의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죠. 또 나 자신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고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것이 일상이기도 하고요.

M세대(이○○)

-저희는 존중받고 자랐다는 느낌이 없어요. 학교와 가정에서 획일화된 교육을 받았죠. 아마 중학교 때까지 학교에 체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특히 윗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 전통적 교육과 가치관에서 자란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M세대(이○○), M세대(노○○)

## 2\_M세대 vs. Z세대: 오프라인 관계, 온라인 관계, 관계의 다양성

- 온라인 관계에 대해서는 두 세대 모두 최하의 중요도(가장 마지막에서 세 번째)를 부여함. M세대는 39위, Z세대는 46위. 하지만 오프라인 관계와 다양한 관계에 있어서는 두 세대의 차이가 극명함. Z세대는 오프라인 관계와 다양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평가했지만, M세대에게 다양한 관계(19위)는 중위권이고 오프라인 관계(25위)는 하위권에 속함.
- 두 세대 모두 온라인 관계에서 가벼움과 일방향적 특성, 불신 등을 느꼈고, 그래서 최하위의 중요도를 부여함. 오프라인 관계와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 Z세대는 여전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반면, M세대는 '과거에 다양한 사람들과 오프라인 관계를 많이 가졌으나,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에 치이면서 모두 소원해지고 연락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졌다'면서 과거 오프라인 관계 또는 다양한 관계가 현재에는 무용하다는 입장임. 그리고 사회생활에 치이고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관계나 다양한 관계를 맺을 에너지가 없다는 답변도 있었음.
  - M세대가 오프라인 관계 또는 다양한 관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는 현실생활에서 지쳐서 관계를 맺을 에너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직장생활, 결혼, 내집마련 등) 속에서 관계에 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고, 소수의 혹은 기존의 깊은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Z세대가 온라인 관계를 낮게 평가하고 오프라인 관계나 다양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평가한 데에는, 나의 취향 중심의 가치관과 SNS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 Z세대는 광범위한 관계가 아니라, 나와 관련된 것 또는 나의 취향과 관련된 관계에 대한 선호와 집중도가 높다고 답함. 뿐만 아니라 디지털네이티브 세대답게, SNS가 일상화이 되면서 온라인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크다고 느끼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관계에 대한 선택권이 높아지면서 소수의 깊은 관계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임.
    - ▶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관계에 제약이 상당하다보니, 오프라인 관계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서, 오프라인이 높게 나왔을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음. 이 응답자는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온라인이 더 높게 나왔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힘.

2-1. Z세대는 오프라인 관계와 다양한 관계를 중시하고 온라인 관계에 대한 선호가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요즘은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너무나 많아요. 선택의 폭이 넓은 거죠. 다 같이 잘 어울리자는 것이 예전 마인드였다면, 나와 관련된 것 또는 나의 취향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나 오프라인 관계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것 같아요. 최근에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를 끊어 내라'는 메시지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오프라인과 다양한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결국 나 또는 나의 취향을 중심으로 관계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Z세대(정○○)

-주변에 가상세계를 탐닉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관계와 존재에 대한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하는 갈망이 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비슷해요.

Z세대(김○○)

-온라인이 낮고, 오프라인이 높은 것은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을 전혀 못 만나다보니, 고립에 대한 불안과 외로움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온라인이 더 높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관계가 매우 낮은 것은) 온라인에서 신뢰할만한 관계가 만들어진 경험이 없고 부정적 경험이 많은 탓에, 온라인 관계에 있어서 높은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요.

Z세대(허○○)

2-2. M세대에서는 다양한 관계(66위), 오프라인 관계(84위)가 높지 않습니다. 더 눈에 띄는 것은 Z세대와의 차이입니다. 해당 항목에 대해서 두 세대 간 격차가 너무 큼니다. 오프라인 관계에서의 점수 차이는 116개 전체 질문을 통틀어서, 가장 큰 차이(-26점)가 나는 문항입니다

-인간관계에 지칠 때가 되었죠. 딱 그런 때죠. 중요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야겠구나라고 느끼는 나이 때인 것 같아요.

M세대(최○○)



-아마 경험에 의한 결과가 아닐까요. 대학을 다닐 때는 자는 시간 외에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죠. 지금은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과거에 친했다 한들, 다 부질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움 보다는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아요. 어렸을 때는 오프라인 관계, 다양한 관계에 대해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랬던 경험요. 크면서 오프라인 관계에 대한 실망이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M세대(박OO)

-저희 세대에서 다양한 관계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저희 세대는 동질성에 익숙하잖아요. 반면에 이후 세대는 개개인마다 가진 가치를 중시하다보니 둘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M세대(류OO)

### 3\_M세대 vs. Z세대: 가족에 대한 인식

- 두 세대 모두 가족을 중시하고, Z세대가 M세대보다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9점). 가족이 116개 문항에서 M세대에선 7위의 중요도, Z세대에선 3위의 중요도를 가짐.
- M세대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당연히' 중요하다고 응답.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서, 가족이 아픈 일이 종종 생겼고, 이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는 답변도 있었음. 가족이 아프거나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응답자 본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가족이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함.
- Z세대의 경우, M세대와 마찬가지로 전통적 관점에서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답변도 있었으나, 대다수는 가족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맞춰져 있었음. 예를 들면, Z세대의 경우 다 같이 잘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나 또는 나의 가족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음. 또한 Z세대가 떠올리는 가족은 부양가족이 있는 또는 그래서 책임져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 기댈 수 있는 존재여서 '나'에게 훨씬 중요하고 의미 있으며 필요한 존재라는 응답도 다수임.

(FGI Q&A)

3-1.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겠으나, Z세대에게 가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또래는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와 내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반영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설문에 응답한 분들이 제 또래라면 미혼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또래가 떠올리는 가족은 부양가족이 있는,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 기댈 수 있는 존재여서 '저'에게 훨씬 중요하고 의미 있고 필요한 존재인거죠.

Z세대(정○○)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전통 문화, 유교의 영향이 있는 게 아닐까요. 가족과 깊은 유대감이 있는 거죠. 저만해도, 공부를 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 이유가 가족들과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저희 가족의 특성일 수 있지만 저희 가족은 제가 뭔가를 계획했을 때, 지지와 존중, 신뢰를 보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게 가족은 더 없이 중요합니다.

Z세대(김○○)

-가족 내 갈등이 생기면 매우 힘들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바깥에서 그럴 수 있어도 가족만큼은 감정적으로도 저를 지지를 줘야 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유일하게 끝까지 믿을 수 있고, 나의 소속감의 근원이 되는 곳이라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Z세대(이○○)

-Z세대 응답 중에 웰니스와 생존이 낮게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가족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Z세대면 설문에 응답한 대다수가 학생의 신분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현재 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웰니스와 관련된 것들이나 생존에 필요한 각종 물리적 조건들이 일정 수준으로 확보되고 있을 수 있어요. 즉, 가족의 보호와 지원 아래서 웰니스 항목 또는 생존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어서,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네요. 그러니 Z세대에게 가족이 중요할 수밖에요.

Z세대(허○○)

3-2. Z세대보다는 조금 낮게 평가되긴 했으나, M세대에게도 가족은 여전히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희에게 가족은 당연히 중요한 존재죠. 키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M세대(노○○)

-개인적 경험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버지가 크게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때 제가 심리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걱정은 물론이고, 한동안 모든 생각과 모든 일상이 병간호와 병원비 부담의 문제에만 집중되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이 편찮으실 나이가 되었구나, 가족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나도 그 '소용돌이'에 같이 있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족의 존재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M세대(임○○)

## 4\_M세대 vs. Z세대: 금전적 가치, 여가와 흥미를 바라보는 인식

- Z세대는 금전적 가치보다는 흥미, 여가, 보람, 웰니스 등을 중시. 반면 M세대는 금전적 가치와 즐거움, 웰니스를 균형있게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Z세대는 아직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탓에, 경제적 부담이나 '부'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 반면, M세대는 현실의 당

면한 문제(결혼, 내집마련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경제적 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뿐만 아니라 M세대는 재미, 흥미, 여가나 웰니스를 충족시키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Z세대가 여가나 즐거움을 중요시하는 이유 중 불안하고 치열한 경쟁을 겪어야 하는 현실에서 위로와 힐링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었음.

(FGI Q&A)

4-1. 조사결과, Z세대는 일에서의 흥미를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보다 약간 높게, 경제적 가치를 중간 정도의 중요도로 평가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Z세대는 경제적 가치를 일에서의 흥미나 금전적 보상보다 많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M세대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보다 확연합니다. M세대에선 경제적 가치가 상위 5위예요. Z세대가 보상보다 흥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M세대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가치를 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저는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이 우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또래는 아직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체감할 만큼의 경험이 없어요. 그렇다보니 조금은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고, 일에서의 흥미가 높게 나온 것은 그런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Z세대(이○)

4-2. Z세대의 응답에서 여가, 재미, 자유가 높게 나왔어요. 취향과 개성을 존중하고,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특성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이것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요즘 많이 접하고 있는 게, 바이러스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출산을 꼴찌에 자살률 1위 같은 세상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싶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유나 여가, 재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아닐까요.

Z세대(한○○)

-제 또래들이 마음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경쟁사회에서 치이면서 지쳐  
어요. 친한 친구와도 입시로 경쟁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하다보니, 여가  
나 재미, 자유 등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Z세대(이○)

4-3. M세대는 일에서 보람보다는, 금전적 보상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물론 금전적 가치와 즐거움, 행복의 요소를 균형감 있게 찾으려는 경향도 있어  
요. 또 하나, M세대들이 재테크를 낮게 평가한 이유가 있나요?

-균형 잡힌 것은 나이 또는 경험에서 온 것이 아닐까요. 주변 친구들도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어요.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돈을 모아야하죠.  
아마 Z세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잘나가는 유튜버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재밌게 살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잖아  
요. 그리니 Z세대 친구들 입장에서선 굳이 사춘형처럼 야근하고 힘들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이 들 것이고.

M세대(박○○)

-일에서의 금전이 높은 이유요? 저도 사회생활 초기에는 포부에 가득  
찼었습니다. 이직을 여러 번 하면서, 계층을 뚫고 올라가려면 정말 힘  
들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다보니 일에서의 보람보다, 일한 만  
큼만 받고 스트레스 안 받고, 돈이라도 잘 벌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영  
향이 있을 것 같네요. 일종의 체념도 있죠.

M세대(임○○)

-재테크가 낮은 것은, 시드머니가 아직 많지 않기도 하고, 주변에서 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식해서 망했다는 사람은 많죠. 그리고 재테크를  
하긴 해요. 다양하게 하지 않는 거죠. 저희는 부동산 중심이에요. 주식  
은 리스크가 커서 부담이죠. 자금을 더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아요.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이죠.

M세대(조○○)

## 5\_M세대 vs. Z세대: 가치관에 대한 인식

- M세대와 Z세대 모두 ‘가치관’을 중요하다고 응답함. 116개 항목 중에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함.
- M세대는 변화를 많이 겪은 세대로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많이 한 세대로서 가치관 정립의 필요성을 많이 체감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고, Z세대는 나의 취향 때문에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다수임.

(FGI Q&A)

- 5-1. 청년세대에서 ‘가치관’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상위로 평가된 것은 의외네요. 전통적인 가치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Z세대들에게 가치관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개개인의 가치, 취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관이 중요하죠. Z세대가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요. Z세대가 자유를 중요하시 한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Z세대가 개개인의 가치, 취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존이라는 키워드도 중요하게 평가받았다고 하셨는데, 같은 이유라고 보이네요.

Z세대(선OO)

-저희 또래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아야하죠.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에서 결국 가치관이 중요해지는 거죠.

Z세대(정OO)

- 5-2. M세대에서 가치관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4위네요. M세대들에게 가치관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진학여부를 선택하고, 대학을 가서는 전공을

선택하고, 군대에서 많은 일을 겪고, 직장을 '선택'하고, 직장 내에서도 무수한 선택을 하고. 수많은 선택의 과정을, 그것도 삶에 중요한 선택을 많이 하면서 결국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것이라고 보이네요.

M세대(임○○)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나고,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듣게 됩니다. 제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죠. 중심이 없을 경우, 부당한 일도 많이 당했던 경험도 있고요. 결국 가치관이 제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M세대(이○○)

-저희는 변화를 많이 겪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해체되는 시기에 성장했잖아요. 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파면되고, 북한과 전쟁을 할 뻔 했다가, 곧 통일이 될 듯 좋아지기도 했고요. IMF를 겪고, 금융위기와 IT버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넘어가는 경험도 경험했구요. 변화하는 시대에서 자의든 타의든 가치관을 정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M세대(박○○)

## 6\_M세대 vs. Z세대: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복지, 의료공공성, 사회변화,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에 대한 인식

○ 정치/사회/참여 항목에서는 거의 일관되게 Z세대가 M세대보다 높은 중요도를 부여함. Z세대는 M세대보다 사회적 약자 보호, 의료공공성, 사회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함. 사회적 약자 보호는 Z세대가 평균적으로 9점이나 높으며 의료공공성은 12점이나 차이남. Z세대는 사회변화를 M세대보다 13점이나 높게 평가하지만,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는 중하위권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함. Z세대는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참여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추측할 수 있음.

- Z세대가 사회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데에는 SNS가 큰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사회복지나 의료공공성에 높은 평가를 하는 데에는 Z세대가 가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음.

- 사회변화가 높은 것은, 사회변화를 위한 행동에 참여해서 효능감을 느낀 경험 이 있기 때문이지만, 참여가 낮은 것은 그러한 행동에 참여했을 때 '나에게 생기는 이익'이 불분명하면, 관심을 안 가지는 또래의 특성 탓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 Z세대가 사회변화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순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M세대는 변화와 참여 모두에 일관되게 낮은 점수를 매김. 참여를 했었으나 결국 변하는 것이 없었다는 실망론과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정신이 없어서 사회문제는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현실론이 주류 의견임.

(FGI Q&A)

6-1. Z세대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의료공공성이 3위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  
다. 사회복지와 사회변화도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Z세대 응답을 보니, 안정, 사회복지, 경제적 안정,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키워드들도 상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저희 세대는 전반적으로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도 높고 사회복지 등에 대한 중요성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해요. 의료공공성도 마찬가지로요. 의료공공성이 나 사회복지의 사회정의 측면에서의 공공성의 확보에 대한 지향이라기 보다는 저희 세대가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안전망으로서의 직접적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Z세대(허○○)

-사회적 약자 보호가 3위로 상위권이라는 것은, 아마 Z세대가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한 결과가 아닐까요.

Z세대(김○○)

-사회적 약자 보호가 높은 것은, 아마도 미덕을 과시하려는 요즘 또래의 성향 탓이 아닐까 싶네요. 저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사회적 이슈



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은 행동까지 하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는 또래의 개인이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남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더 많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SNS에 보이기 위함이 있는 것이죠.

Z세대(정○○)

-저희 세대는 눈치를 많이 봐요. 과연 선한 마음에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요. 인터넷 특히 SNS에서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뉴스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잘했을 때, 사람들이 바로 알 수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주변의 부정적 반응이 너무 걱정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 또래의 청년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의문입니다.

Z세대(허○○)

6-2. Z세대에서, 사회변화는 높는데 사회참여 문항에서는 점수가 좀 낮네요. 모순된 결과로도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사회변화는 내가 직접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사회는 마음에 안 들어서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내가 하기는 싫은 것이죠. 혹은 사회복지가 중요하지만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좀 그런거죠. 이기적인 거죠.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봐요. 사실 정치사회문제가 간단한 이슈는 아니잖아요. 여러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복잡하고 고된 과정을 거치기 싫은 것이 있는 거죠.

Z세대(정○○)

-사회변화가 높은 것은 이미 효능감을 느껴본 경험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저희 세대는 촛불, 탄핵 등은 '나' 혼자 참여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었고, 평화적으로 권력의 교체를 이뤘잖아요. 세계에서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에겐 긍정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청원이나 시위를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이익이나 변화가 없다면 관심을 안 가지는 또래의 이기적 특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Z세대(김○○)

-다른 한편에서는 변화는 원하지만 참여가 낮다는 것은, 기존에 참여를 했었지만, 바뀌지 않은 경험, 예를 들어 촛불이나 탄핵을 통해서 열정

적으로 참여를 했었지만, 나와 관련된 현실이나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모순되어 보이는 결론은 실제로는, 실망/좌절의 시그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Z세대(한OO)

-겉멋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사회변화와 같은 큰 덩어리는 중요하지만, 실상 나의 이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슈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이 이면에는 사회적 이슈는 '내 문제가 아니야'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도 하고, 또 사회정의 차원에서 일종의 '의무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공동체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참여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런 희생을 강요하는 순간 또는 다 같이 어떤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아마 '꼰대'가 될 거예요.

Z세대(한OO), Z세대(정OO)

- 6-3. Z세대에게 사회적 약자 보호가 중요한데, 마이너리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낮은 평가(하위 1/3)를 했네요. 이 역시 모순처럼 보이는 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회적 약자 보호는 높는데, '마이너리티'가 낮은 이유요? 사회적 약자는 마이너리티와는 다른 범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리티는 말 그대로 이 사회의 소수자잖아요. LGBT, 난민, 외국인노동자 등 소수자의 범위가 매우 넓고, 종교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여러 이유로 인해서, 소수자 중에서 제가 선뜻 공감하기 어려운 대상들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회적 약자보호는 동의하든 하지 않든 간에 개인이 지켜야 할 일종의 마지노선인거죠. 여기에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Z세대(김OO)

- 6-4. M세대에서 사회참여, 변화 모두 높지 않습니다. 절대값에서는 Z세대보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낮아요. 사회적 지속가능성에도 그렇게 큰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Z세대에게 사회참여는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브랜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와는 확실히 감각이 달라요. 그리고 사실 저희 세대는 사

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뭘 해야 한다고 배운 적이 없어요.

M세대(최○○)

-우리 이전세대가 사회를 많이 바꾸어놓아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편하게 지냈다고 생각해요. 자라면서 정치적 이슈가 심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후 세대는 또 사회가 안 좋아진 시기에 자라면서 변화 욕구가 생겼고,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M세대(이○○)

-민주화, 정부를 바꾸었으나 바뀐 게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체념이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을 해보니 사회적 약자가 마냥 보호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경험을 하게 된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사회생활을 좀 하면서, 저희는 세파에 찌든 거죠. 보수화되어 가는 것일까요.

M세대(심○○)

-사회적지속가능성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용어가 어렵기도 하고. 좋은 것 같은데, 와닿지는 않네요. 그래서 낮은 것이 아닐까요.

M세대(권○○)

## 7\_M세대 vs. Z세대: 과정과 결과

- M세대는 7위(127점), Z세대는 11위(128점)으로 M세대와 Z세대 모두 유사하게 결과를 중시함.
- 흥미로운 부분은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 M세대는 과정에 122점의 중요도를 부여했으나 Z세대는 117점의 중요도를 부여함. ‘결과’ 중요도 값에서 ‘과정’의 중요도 값을 빼면, M세대는 5점 차이이지만, Z세대는 11점 차이임. Z세대가 M세대보다 과정을 덜 중요하게 여긴다는 결론이 남.
  - Z세대가 과정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데에는 SNS와 그들이 입시, 학점, 취업 같이 결과만이 전부인 관문 앞에 서 있는 현실, 그리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음에

대한 체념 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Z세대는 대입이나 취직에 걸려 있어서, 당락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 SNS라는 매체의 특성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들에서 과정은 생략되고 멋진 결과만 사진 한 장만으로 표현되는 커뮤니케이션에 너무 익숙해져 있음. 또한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정이 보다 많이 생략되며 이렇게 빨라지는 것이 효율이고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FGI Q&A)

7-1. Z세대는 과정보다 결과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M세대와 Z세대 사이에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과정을 생각함에 있어서 Z세대가 M세대보다 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 여러 요인이 혼재된 것 같아요. 먼저 저희는 대입이나 취직에 걸려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저희 앞에 놓인 관문은 합격과 불합격의 두 개로 나뉘어요.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없어요. 과정의 제일 마지막엔 'All or Nothing'이라는 결과가 명확한 관문만 있으니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불공정과도 연관된 것인데요, 나만의 노력으로 과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즉 과정을 성실하게 보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명제'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찬스를 쓰든 혹은 다른 과정이 어떻든 나도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는 약간의 동경과 열망도 있겠죠. 제가 모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복합적인 상황과 감정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해요.

Z세대(김○○)

-저희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무지하게 화를 내는 세대인데 말이지요. 아마 SNS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SNS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것을 못 보죠. 이뤄낸 것만 볼 수 있어요. 과정을 볼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사람들은 SNS에는 과정을 담아내지 않죠. 결과만 심플하게 보여주죠.

M세대(이○○)

-M세대는 다른 하나를 처리해야 다음의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순차적 프로세스 속에 살았죠. 저희 세대는 과정을 건너뛸 수 없었어요. 과정

을 건너뛰면 혼났죠. 하지만, Z세대는 새로운 방식, 건너뛰는 과정에 열려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저희보다 훨씬 자유롭고 디지털에 훨씬 익숙해서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변하는 기술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하려는 기술시대의 특성이 있으니 과정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기술에 보다 빨리 접하고 이런 기술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된 시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탓에, 아날로그를 어느 정도 접하면서 디지털로 넘어온 M세대보다 과정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M세대(류OO)

7-2. Z세대만큼은 아니지만 M세대 역시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결과이지만, 혹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정과 결과, 둘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 놀랍고 신기하네요. M세대와 그 이전 세대는 책임 있는 고통에 익숙하고 이후세대는 책임 없는 쾌락에 익숙한 것일까요. 이후세대는 그만큼 자유롭고 다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고 나쁨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는 생각이 드네요.

M세대(박OO)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게 되었죠. 그리고 개개인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기회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데, 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M세대(이OO)

## 8\_M세대 vs. Z세대: 기후변화, 미세먼지, 재생에너지, 탈원전

○ 기후변화, 미세먼지, 재생에너지, 탈원전은 M세대와 Z세대의 인식이 상당히 나뉜 의제임. Z세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재생에너지, 탈원전에 대해 일관되게 낮은 평가를 함. Z세대에서 재생에너지 정도만 20위, 118점으로 M세대와 동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하위권으로 M세대와 큰 점수 차이가 있었음. 최근 청소년,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큰 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다른, 의외의 결과임.

○ M세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했고,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Z세대와의 점수 차가 매우 컸음. 기후변화는 16점, 미세먼지는 20점 차이가 날 정도로 세대 간 인식 차이가 큼. 탈원전은 M세대에서도 하위 그룹에 속했지만, Z세대와 15점 차이가 날 정도로, 절대값에서 M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항임. 재생에너지 정도만 M세대는 Z세대와 인식을 같이 함.

- Z세대에게 기후변화는 너무 큰 이야기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음. 또한 Z세대에게 미세먼지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이라, 문제라는 인식이 M세대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응답이 다수였음. 그리고 학생의 특성상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 학생 특성상 외출을 하지 않거나 다른 실내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상의 선택지가 다양한 점도 작용을 함. 탈원전은, 원전 문제에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이라는 인식도 있었음.
- 재생에너지가 다소 높은 평가를 받은 데에는 태양광, 전기차, 수소차 등을 일상에서 쉽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요인이 작용. 즉, 재생에너지는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음.

(FGI Q&A)\_\_\_\_\_

8-1. Z세대와 M세대는 모두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중간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탈원전, 미세먼지에 대해서

는, Z세대가 M세대에 비해 확연하게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의외인 것인 직접적인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Z세대가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항목 역시 M세대와의 인식 격차가 상당합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테슬라 같은 전기차와 태양광 발전 등이 주변에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경험 때문인지 재생에너지는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Z세대(김OO)

-기후변화 같은 것은 뉴스에 매번 심각하다고 나오긴 하지만, 먼 미래의 일이잖아요. 공부나 취업준비 같이 당장은 내가 신경 쓸 일이 더 많거든요. 기후문제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없고, 당장 위험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큰 이야기라고 생각돼요.

Z세대(전OO)

-탈원전은 정치이슈라고도 보여져요. 후쿠시마를 보긴 했지만, 일본은 지진이 많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화력/원전 비교시 화력이 더 안 좋기도 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효율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안고 살아야죠. 무엇보다 원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본 적이 없네요.

Z세대(김OO)

-기후변화가 낮다는 것은 다소 의외이긴 하네요. 그리고 미세먼지는 오히려 분명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미세먼지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안 좋았던 적이 없어서, 너무 익숙해요. 특별히 중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SNS나 게임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저희(Z세대)는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희 또래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그냥 집에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으니, 미세먼지가 Z세대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는 게 아닐까요?

Z세대(전OO)

8-2. Z세대에 비해서 M세대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네요.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주시겠어요?

-저희 세대(M세대)는 학교 다닐 때 오존층 파괴를 예민하게 받아들였어요. 사방에서 난리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미세먼지가 없었어요. 살면서 피부로 격차를 느끼다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불과 10~20여년 사이에 확 바뀐 것이니까요.

M세대(류○○)

## 9\_M세대 vs. Z세대: 공정, 평등, 경쟁

○ M세대와 Z세대 모두 공정에 동일하게 높은 점수를 부여함. 다만, 청년 세대는 공정함을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여긴다고 가정했으나, 공정보다 존중과 신뢰가 더 높은 것은 의외의 결과임.

- 공정은 나와는 떨어져 있는 큰 이야기라는 인식이 있었고, 더불어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이슈라는 평가도 다수 있었음.

○ 평등과 경쟁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Z세대가 M세대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함. 그리고 해당 문항에 대해서 두 세대 간에 격차가 큼.

- 평등에 대해서 M세대는 사회생활에서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평등이 좋은 기준도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 경쟁의 경우, M세대는 경쟁에서 많이 지쳐있어서, 그만 경쟁하고 싶은 심리가 있었고, 경쟁을 해봐야 단기간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다람쥐 쳇바퀴 속이라는 응답도 있었음.

(FGI Q&A)\_\_\_\_\_

9-1. Z세대는 공정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라고 생각했는데, 존중과 신뢰보다 공정이 낮게 나왔네요. 어떤 이유인가요?

-공정은 큰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라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신뢰는 나, 내 주변, 일상의 느낌이 있



쥬. 그리고 공정은 이미 많이 다루기도 했고, 사실 뿌리가 깊어서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체념도 있어요.

Z세대(허OO)

9-2. M세대가 평등과 경쟁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라고 생각했는데, 존중과 신뢰보다 공정이 낮게 나왔네요. 어떤 이유인가요? 그나마 평등은 상위 1/3에 속하지만 경쟁은 최하위 그룹이에요. 최하위에서 일곱 번째로 낮아요.

-사회생활을 해보니,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성과를 받는 구조에서 불평등 사회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M세대(심OO)

-경쟁이요? 일상인데, 너무 지쳐요. 털 했으면 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경쟁에서 이겨도, 또 계속 경쟁하게 되고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이 이기고, 어차피 경쟁하는 상황이 끝나지 않아요. 우물 안 개구리죠. 그래서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경쟁심이 사라지고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에게 '동료애' 같은 것도 생기네요.

M세대(문OO)

## 10\_M세대 vs. Z세대: 미래 불안

○ M세대와 Z세대 모두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미래에 대해 불안함을 중요하다고 평가했음. M세대는 불안에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부여했지만, Z세대는 상위로 평가. 미래 불안에 대해서 Z세대가 M세대보다 9점 더 높게 중요도를 평가함.

- Z세대는 저성장 시대에 태어났고, 자라면서 불안을 조장하는 SNS와 뉴스를 수없이 보며 성장함. 그런 탓에 이들에게는 생존에 대해서 내재된 불안이 보였음. 그리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중요한 미래가 M세대보다 더 많아서 M세대보

다 더 불안할 수 있음.

- 이에 반해서, M세대는 취업해서 3~5년, 1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경로가 정해져서, 어쩔 수 없이 덜 불안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다수였음. 그리고 M세대가 느끼는 불안은 생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 잘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생기는 불안이었음.

(FGI Q&A)

10-1. M세대보다 Z세대의 불안이 더 높은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저성장시대에서 자랐어요. 기업이 어려워지면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어려워지는 집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다가 퇴직 후 장사를 하다가 부도나고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뉴스도 너무 많이 보고 들었어요. 게다가 매일 접하는 뉴스가 '바이러스 소식,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줄어든다는 소식, 출산율 꼴찌에 자살률 1위라는 소식' 들이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Z세대(김○○)

-저희 또래(M세대)는 자라면서 자연재해가 무섭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더라도 접할 수 있는 매체의 수와 접촉 빈도는 낮았어요. 하지만 Z세대는 상황이 다르죠. 자연재해를 많이 접하기도 하고, 재해가 생기면 정말 폭발적으로 사방에서 쏟아내는 뉴스에 안 불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M세대(이○○)

10-2. M세대는 Z세대에 비해 불안이 덜 한 것 같습니다. 생활 전선에서 있으면서 더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M세대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은, 이미 취업을 해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생존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또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이에요. 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불안과는 다른 것 같아요.

M세대(류○○)

-우리 세대(M세대)에서 개인은 어떤 식으로든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가족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걱정되고 불안이 생기죠. 예를 들면, 자식이 대학 다닐 때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이 있죠. 하지만 저희 또래가 아직은 퇴직금을 받아서 치킨집을 차릴 나이는 아니어서 조금은 먼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M세대(노OO)

-저희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났잖아요. 직업이나 직장이 결정되고 이미 어느 선까지 달려온 셈이죠. 큰 결정이 났고, 되돌리기도 쉽지 않아요. 미래가 어느 정도 정해졌고, 어떤 면에서는 안심을 하게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포기를 한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후 세대들은 아마 많이 불안할 거예요. 결정된 게 없잖아요. 선택지가 훨씬 더 많은 만큼 더 불안할 수 있죠.

M세대(이OO)

## 06. 결론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였음.

- 첫째, 청년세대가 중요시 하는 의제와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
- 둘째,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동일한 집단인지, 아니면 다른 특성을 보이는 집단인가를 확인하는 것.

### 1) 두 세대는 동일한 집단인가, 다른 집단인가

○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하면, 같은 청년세대라고는 하지만 두 세대가 다른 집단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임. 무엇보다 두 세대는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이 확연하게 다름. M세대는 경제/일,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에서, Z세대는 커뮤니티/관계, 정치/사회/참여에서 강한 선호가 나타남.



[그림 6-1] 전체 항목에 대한 (M-Z)의 막대그래프

- 만약 두 세대가 유사한 집단이라면 항목별로 그리고 116개 항목 전체에서 차이의 합계가 0을 중심으로 일정한 분포를 가져야할 것이지만, 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차이의 합계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의 모양이 불규칙하며, 세대

별 중요도(선호)가 항목을 기준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이 나타남. 아래의 [표 6-1. 항목별 (M-Z) 합계 비교표]를 보면 세대별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음.

[표 6-1] 항목별 (M-Z) 합계 비교표

항목	(M-Z) 합계
라이프스타일	5
경제/일	82
커뮤니티/관계	-182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31
정치/사회/참여	-120
합계	-184

- 커뮤니티/관계와 정치/사회/참여 항목에서 (M-Z)의 값이 각각 -182점과 -120점임. 이는 두 항목에서는 Z세대의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의미. 반면 경제/일과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항목에서의(M-Z)의 값은 각각 82점과 31점으로 M세대의 선호가 강함을 알 수 있음. 라이프스타일의 경우 항목 내 문항에 따라서 선호가 달라지고 항목 내 차이의 합계가 5점에 불과함.
- 라이프스타일에서 Z세대는 취업·스펙(-18점), 열정(-11점), 인정을 받는 것(-9점), 순간 집중력(-8점)에 큰 중요도를 부여했고 M세대는 이생망(18점), 경제적 가치(12점), 나의 감정·육구(9점), 생존(9점), 워라벨(8점), 웰니스(8점)의 항목을 많이 선호함.

○ 항목(라이프스타일, 경제/일, 커뮤니티/관계,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의 차원이 아니라, 개별 문항의 관점에서도 M세대와 Z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사례 역시 다수 있었음. (M-Z)값이  $\pm 5$ 점 이상 차이 나는 항목이 116개 중에 74개로 전체의 63.8%에 달함.

- 환경문제(미세먼지, 기후변화, 탈원전)에 대해서는 M세대가 Z세대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 앞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 (M-Z) 값은 각각 20점, 15점, 15점. 환경 이슈는 Z세대에게 먼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실내에 있을 수 있어서, 해당 이슈가 본인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한반도 평화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느끼는 중요도에 서도 (M-Z)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남.

- Z세대는 미래를 더 불안해했고, 문화적 개방성이나 오프라인 관계, 다양한 관계, 존중, 격려, 사회변화, 성평등, 신뢰 등의 키워드에서 훨씬 강한 선호를 보임.

## 2) 각 세대가 중요시 하는 공통의 가치와 개별적 가치

○ 라이프스타일 항목의 경우, Z세대는 전반적으로 웰니스와 관계된 의제를 집중적으로 선택했고, M세대는 웰니스와 경제적 가치를 균형감 있게 선택한 특징이 있음.

- 라이프스타일 항목은, 전반적으로 밀레니얼세대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함.
- ‘웰니스(웰빙·행복·건강), 재미·즐거움, 여가, 자유, 자기계발’과 같이 삶의 질과 관련된 항목은 두 세대가 공통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함. 이는 청년세대들이 공통적으로 삶의 질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음을 시사함.
- 반면에 Z세대는 위로·힐링, 열정, 순간 집중력을 상위로 선택했고, M세대는 워라벨, 경제적 가치, 생존, 과정, 미래준비, 스트레스, 도전·모험을 상위로 선택. M세대는 과정과 결과가 모두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나, Z세대에게는 결과가 과정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함.

○ 경제/일 항목의 경우, 두 세대 모두 일에서의 보람과 흥미, 금전적 보상을 균형 있게 중요하다고 평가함. 동시에 경제적 안정 역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함. 개별 의제 관련해서, Z세대는 소비와 관련된 키워드로서 가성비를, M세대는 경제와 관련된 키워드로서 재산·경제력을 상위로 선택했음을 알 수 있음.

- Z세대가 소비에 있어서 가성비를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데에는 경제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 가치소비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성비에 따른 소비를 한다는 것이 다수의 답변임.

○ 커뮤니티/관계에서는 Z세대와 M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들이 대부분 비슷함.

- 두 세대 모두 신뢰, 존중, 배려, 격려, 문화적 개방성,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 평등, 가족, 커뮤니티, 공유의 의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 반면 Z세대는 오프라인 관계와 독립이라는 키워드를 중시하고, M세대는 개인이라는 키워드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함. M세대는 가족, 커뮤니티, 개인을 모두 상위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나, Z세대는 오히려 가족과 커뮤니티는 중요한 키워드로 여기고 있지만, 개인이라는 키워드는 덜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함.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에서는 두 세대 모두 커뮤니케이션 항목에서의 ‘스토리’라는 요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 개별적으로 M세대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4차 산업혁명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에 Z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중요한 키워드로 선정함.
- 정치/사회/참여의 경우, 두 세대 모두 사회적 약자 보호, 의료공공성, 공정, 사회복지를 중요한 의제로 선정함. 개별적으로는 Z세대가 질서와 규칙, 사회변화를 보다 더 중요한 의제로 선정했음. 특징적인 것은 Z세대가 의료공공성,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변화 문항에 대해 M세대보다 9점에서 13점 정도 더 높게 중요성을 부여함.

### 3) 각 세대가 가장 하위로 꼽은 공통의 가치와 개별적 가치

- 라이프스타일에서 혁신, 사회적 지위, 명예, 이생망의 키워드는 모두 하위로 평가받음. 혁신이나 사회적 지위, 명예는 모두 먼 미래 또는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음.
  - 대부분 취업을 해서 3~5년 이상 직장을 다닌 M세대는 취업·스펙을 낮게 평가함.
  - ‘실리’를 중시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Z세대에서 ‘실리’가 하위에 속했음.
- 경제/일에서 Z세대와 M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비정규직, 부채, 창업, 52시간 근로가 낮게 나옴. 부채의 경우, 하위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M세대가 Z세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선택한 의제임. (21점 차이)
  - 비정규직이 하위 의제인 것은, M세대는 이미 취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이 낮은 것. Z세대에서 비정규직이 낮은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경험하지 못한 것임,

Z세대의 상당수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비정규직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 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음.

- 청년들이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는 '상품후기'가 낮게 나온 것은 의외의 결과임. 상품후기도 많이 '오염'되어서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의견임.
- Z세대에서는 빈곤, 경제위기, 재테크가 하위에 속함. 이는 Z세대가 아직은 현실 세계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커뮤니티/관계에서 경쟁, 타인의 평가, 마이너리티, 온라인 관계 모두 하위에 속했으며, 혈연·지연·학연이나 권위와 같은 전통적인 키워드 역시 하위에 속함. 흥미로운 것은 권위가 세대 공통으로 하위에 속하긴 하였으나, 권위에 대한 응답에서 M세대 응답의 절대값이 높게 나왔음.

- M세대가 개별적으로 오프라인 관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함.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청년층 사이에서 1인가구는 하위의 중요도로 평가됨. 한반도 통일과 남북교류는 두 세대 모두에서 하위의 평가를 받았으며, 익명성과 열리어답터도 낮은 평가를 받았음. 현 정부 초기부터 공론화되어 왔던 탈원전이나 고령화 분야 이슈 역시 청년들에게 현실 체감도가 낮다는 이유로 인해서 낮은 중요도로 평가받음.

- 미세먼지가 Z세대에서 하위에 속한 것은, 미세먼지가 없던 시절도 경험했던 M세대와 달리,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미세먼지와 함께 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특별하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음.
- 탈원전의 경우, 원전 이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서 원전을 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다수는 한국의 원전은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중요도를 낮게 평가함.
- 노후 준비 역시, 청년들에게는 먼 미래의 일로 평가받으며 하위로 꼽혔음.
- 거의 모든 청년들이 열리어답터인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 열리어답터가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분석됨.



○ 정치/사회/참여에서, 초고령사회, 저출산, 낮은 혼인율 같이 국가적 과제로 꼽히는 의제들은 모두 하위로 평가받음. 이런 의제가 청년들에게 먼 미래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개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도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 M세대는 일관되게 사회변화나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를 낮게 평가. 이들은 비리척결이나 동물권에도 낮은 중요도를 부여.
- Z세대가 사회참여와 동물권 등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준 것과 대비됨.

#### 4) 정책적 시사점

○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정책의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설정하거나 또는 정책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책 수립의 근거로서의 각종 설문조사 역시 청년 세대로 묶어서 수행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M세대와 Z세대로 구분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같은 청년세대라고 하더라도 M세대와 Z세대는 다른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주요 결론임. 따라서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각종 조사와 관련 정책 역시 청년 세대 내에서 보다 세분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청년주거 혹은 기본소득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왔으나 설문과 FGI에 응한 청년세대에게는 주거와 기본소득 모두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었음.
- 청년이라 하더라도, 세대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상당히 다름. 특히 재테크, 부채, 미세먼지, 기후변화, 탈원전, 빈곤, 경제위기의 키워드는 M세대에 비해서 Z세대가 매우 덜 중요하게 여김. 반면에 취업, 비리, 동물권, 의료공공성, 문화적개방성, 불평등 사회의 키워드는 Z세대가 M세대보다 훨씬 강하게 선호하는 가치임.
- 특히,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청년의 연령이 34세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서 청년층 연령대의 가치관과 관심 의제에 기초한 정책수립이 필요함.

○ 당연한 결론이지만, 청년들의 가치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또는 ‘나의 이익’, 혹은 ‘일상에서의 경험’, ‘나의 일상과 관계된 것’인지 여부임. 이러한 성향은 Z세대에서 더욱 도드라짐. 따라서 국가적 과제로 꼽히지만 청년들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의제의 경우,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거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음.

- 고령화 사회, 저출산, 낮은 혼인율의 경우, 청년들 입장에서 당장의 문제가 아닌, 먼 미래의 이슈이기 때문에 당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 탈원전 역시 일상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는, 그래서 생각을 해 보거나, 주변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정책 이슈여서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여지가 없었음. 이러한 이슈들의 경우, 나의 삶 또는 나의 일상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맥락(스토리)을 갖춘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거나 정규 교육 과정에서 보다 비중을 높여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통일과 평화 역시 마찬가지였음. 과거와 달리 세대가 지날수록, 남과 북은 '남'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서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청년세대에게 호소력이 떨어지는 메시지로 분석되었었음. 통일이나 평화, 남북교류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가 청년들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남북교류나 평화, 통일과 관련된 것이 일상적으로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해당 정책들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음. 청년들이 기후문제에는 관심이 낮았지만, 재생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한 데에는, 테슬라와 같은 전기자동차, 태양광과 같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확인된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 미래 사회의 핵심 아젠다인 사회적 지속가능성 역시 일상적인 경험과 교육 등의 기회제공이 필요함. 다수의 청년들은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낯설어 하며,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 것인지, 와닿지 않는다고 답변했음.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준수해야 할 가이드로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 홍보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수였음. 부정적인 이유로는 '노력론' 즉,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소득을 받는 것에 대한 심리적 반대와 정부가 세수 감당을 못할 수밖에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인식이 있었음.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바와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공론장을 열어서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일상에서 토론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임.

○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과 창업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면, 청년들은 다수가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나 창업 이슈에 관심이 없었음.

- Z세대는 4차산업혁명을 일상 혹은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테크놀로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 혹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지 않았음. 즉, Z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이지만, 이들에게 디지털은 일상 혹은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기술일 뿐이었음.
- 창업의 경우, 두 세대 모두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Z세대에게 ‘창업’이라는 키워드는 최하위권이었음. 역대 정부들이 대대적으로 창업 유도 정책을 펼쳤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고 판단됨.

## 5) M세대와 Z세대 차이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에 대한 제언

○ 청년 세대지만, 두 세대는 매우 다른 집단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결론임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음. 그렇다면, M세대와 Z세대의 차이가 왜 생겼을까? 이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며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함.

- 아래 [표 6-2]는 세대별 사회경제문화적 차이를 정리한 것

[표 6-2] 세대별 사회경제문화적 차이에 대한 비교표

	M세대(1980~1994)	Z세대(1995~2019)
부모세대	베이비부머	X세대
경제활동	3~5년 차 이상	학생
경제성장률	8.8%(연평균)	4.5%(연평균)
디지털	아날로그, 디지털	디지털
성장기주요사건	1차정상회담, 월드컵, IMF위기	세월호 참사, 미투운동, 촛불혁명

○ 각 세대는 사회·경제·문화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들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는 각 세대별(M, Z)의 부모세대의 차이와 경제성장률임.

- 베이비부머(1955~1964)는 저성장·전통사회에서 유년기를 보냈으나 청년기 이후 산업화 시대 혹은 종신고용이 가능한 사회에서 생활했고, 중년 이후에 사회가 고성장 사회로 진입.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전통적 가

치관에 보다 익숙한 특성을 가짐. M세대는 이러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Z세대와는 다르게 전통적 가치관에 보다 익숙함. 이런 특성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평등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임.

- ▶ 성평등(30위, 238점)은 116개 항목에서 중간정도의 중요도로 평가받았음. 94년 이전에 출생한 M세대에서는 남녀는 각각 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3.7점과 3.8점의 가중치를 부여, 이러한 설문 결과에 대해서 FGI에 참여한 M세대 여성들은 어느 정도 전통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은 결과인 것 같다고 응답함.
- ▶ M세대와 Z세대 모두 가족을 매우 중요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으나 FGI에서 M세대는 전통적 가치관의 입장에서 가족은 당연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X세대(1965~1979)는 산업화시대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던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냈으나, 이들 세대가 사회로 진출을 할 무렵인 1997년에 IMF 경제위기를 맞으며 급격한 소득저하와 취업위기를 겪었음. 뿐만 아니라 전통사회에서 벗어난 현대적 가치, 개인주의가 본격적으로 세대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은 세대임.

- ▶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삶이 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환경에서 성장한 Z세대는 성평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가치관을 가짐. 95년 이후에 출생한 Z세대는 남녀 모두 성평등의 중요성에 4.1점의 가중치를 부여했으나, FGI에서 Z세대 여성은 ‘아직도 성평등 지수가 많이 낮다’는 평가를 한 반면에, Z세대 남성은 성평등 이슈로 인해서 남성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기 때문에 남성의 관점에서의 성평등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평가함.
- ▶ Z세대와 M세대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불안’에 대한 것이었음. M세대의 일부는 대한민국이 고성장했던 시기에 유년기를 보낸 탓에,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 그렇게 높지 않았으나, 태어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었던 Z세대는 과연 먹고 살 수는 있을지에 대한 생존에 대한 ‘원초적’ 걱정과 불안을 보임

○ 각 세대의 가치관과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에 차이를 유발한 또 다른 요인은 이들의 경제활동 여부 혹은 이들의 현재 ‘직업’ 등이었음.

- Z세대는 여러 이유로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세대임. 이로 인해서 경제적 가치, 채테크, 부채, 성공과 부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음.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과 같은 보호자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1인주거나 청년주거에 대한 관심

이나 필요성이 높지 않았음.

- Z세대와 M세대 모두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Z세대가 결과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김. Z세대는 성적, 입시, 취직 등과 같이 단 한 번의 기회에 그간의 모든 노력을 평가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함.

○ 마지막으로 두 세대의 가치관이나 각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든 요인 중 하나는 디지털임.

-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과 함께 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이들의 일상의 행동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SNS 활동과 관련되어 있었음. 존중, 신뢰, 사회적 약자보호, 오프라인 관계, 격려,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 영상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임. 또한, 이들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답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콘텐츠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의 중요성을 높지 않게 평가.

## 참고문헌

### • 단행본

- 밀레니얼 - Z세대 트렌드 2020, 대학내일, 2019.
- 90년생이 온다, 임흥택, 2018.
- 밀레니얼 이코노미, 홍춘욱 외, 2019.
- 밀레니얼의 반격, 전정환, 2019.
-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정지우, 2020.
- 20대 남자, 천관율 외, 2019.
-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연대기, 최셋별, 2018.
- 우리나라 각 세대의 특징 및 소비구조 분석 : 포스트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조현승 외, 2017.
-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김형주 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 트렌드 코리아 2020, 김난도 외, 2019.
-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 박영숙 외, 2020.

### • 학술지 논문

-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주얼리 시장 경향 연구, 김정지, 2019, 부분인용
- 사이버 대중으로서의 청년 세대에 대한 고찰, 이동후, 2009, 부분인용
-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김홍중, 2015, 부분인용
- 직장 내 밀레니얼세대에 대한 오해와 밀레니얼세대 리더십, 박진성, 2009, 부분인용
- Z세대를 주목하라, 오수연, 2018, 부분인용
- 신세대(New Generation)에 관한 SNS상의 인식 리서치 연구 :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밀레니

얼세대'와 'Z세대' 연관어 비교를 중심으로, 추진기, 2020, 부분인용

- Z세대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와 정책 과제, 박해식, 2020, 부분인용
- 신세대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 연구 : Z세대를 중심으로, 박해숙, 2016, 부분인용
-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의 문화적 차이, 전종우, 2020, 부분인용
- Z세대를 위한 주체성 담론 고찰, 지승학, 2019, 부분인용
- 밀레니얼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 : 세대별 일의 가치를 통해 본 의미 및 역할, 이해정 외, 2013, 부분인용
- 청년 대중서로 본 동시대 청년 담론의 전개 양상, 이광석 외, 2018, 부분인용
- 중국의 세대구분과 세대별 특성 : 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중희, 2013, 부분인용
- Z세대가 즐기는 유튜브 채널의 몰입 요인과 특징, 강민정 외, 2020, 부분인용
- 세대론의 르네상스와 디지털 원주민 세대의 이해, 박치완, 2019, 부분인용

# 부록

## 1\_설문지

### 서울특별시 청년세대 선정 미래의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공감만세에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서울특별시 청년세대가 선정한 미래의제 파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서울특별시의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 계획 및 추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출될 귀하의 의견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조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오직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조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9월

주관기관 : 서울연구원

조사기관 : (주)공감만세



1. 미래 의제 선정

[1-1] 아래 의제들에 대하여 귀하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평가해주세요.  
[아주 중요하다(5점), 중요하다(4점), 보통이다(3점), 중요하지 않다(2점), 매우  
중요하지 않다(1점)]

연번	의제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함				
		1	2	3	4	5
라이프 스타일						
1	나의 가치(웰빙·행복·건강)					
2	경제적 가치					
3	사회적 지위					
4	여가					
5	위라벨					
6	생존					
7	공존					
8	현재를 즐기자					
9	미래를 준비					
10	나의 감정·욕구					
11	과정					
12	결과					
13	인내심·지구력					
14	순간 집중력					
15	재미·즐거움					

16	취업·스펙					
17	성과와 부					
18	안정					
19	열정					
20	혁신					
21	정직					
22	스트레스					
23	위로·힐링					
24	이생망(이번 생은 망함)					
25	명예					
26	가치관					
27	실리					
28	자유					
29	도전·모험					
30	자기계발					
31	인정을 받는 것					
경제·일						
1	일에서의 흥미					
2	일에서의 보람					
3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					
4	재산·경제력					
5	재테크					
6	고용 안정					
7	상품 후기					

8	52시간 근로					
9	가치소비					
10	가성비					
11	경제 위기					
12	비정규직					
13	부채					
14	경제적 안정					
15	불평등 완화					
16	빈곤					
17	기본소득					
18	창업					
19	청년 주거					
커뮤니티·관계						
1	평등					
2	존중					
3	타인의 평가					
4	독립					
5	문화적 개방성					
6	따돌림					
7	차별					
8	지도자					
9	시민					
10	개인					
11	커뮤니티					

12	가족					
13	다양한 관계					
14	오프라인 관계					
15	온라인 관계					
16	배려					
17	공유					
18	신뢰					
19	권위					
20	연결					
21	경쟁					
22	격려					
23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					
24	혈연·지연·학연					
25	마이너리티					
26	성평등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1	미래에 대한 불안					
2	노후 준비					
3	치매					
4	전염병					
5	기후변화					
6	미세먼지					
7	1인주거					
8	4차산업혁명					

9	신기술					
10	탈원전					
11	재생에너지					
12	얼리어답터					
13	인공지능					
14	한반도 평화					
15	남북교류					
16	한반도 통일					
17	텍스트					
18	이미지					
19	영상					
20	스토리					
21	익명성					
정치·사회·참여						
1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2	사회적 지속가능성					
3	낮은 혼인율					
4	저출산					
5	초고령사회					
6	불평등 사회					
7	춧불					
8	탄핵					
9	적폐청산					
10	비리척결					

11	시스템에 대한 신뢰					
12	공정					
13	사회복지					
14	의료공공성					
15	질서·규칙					
16	사회적 약자 보호					
17	동물권					
18	사회 변화					
19	기술중독					

## 2. 기본 실태 파악

[2-1] 귀하의 성별은?

1) 남성

2) 여성

3) 기타 :

[2-2] 귀하의 출생연도는?

1) 1980년부터 1994년까지

2) 1995년 이후

[2-3]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1) 기혼

2) 미혼

[2-4] 귀하의 취업 상태는?

1) 취업

2) 학생

3) 기타

[2-5] 현재 거주지는? 서울시 \_\_\_\_\_구

트바쁘신 와중에서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_면접조사지

125

### 서울특별시 청년세대 선정 미래의제 파악을 위한 심층면접조사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공감만세에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서울특별시 청년세대가 선정한 미래의제 파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심층면담조사 결과는 서울특별시의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 계획 및 추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만큼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출될 귀하의 의견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조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오직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조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면담의 질문에 대하여 원하는 정답 또는 오답은 없으므로, 평소 생각하시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2020년 10월

주관기관 : 서울연구원

조사기관 : (주)공감만세

1  
1  
6  
개  
키  
워  
드  
로  
살  
펴  
본  
청  
년  
세  
대  
의  
가  
치  
관  
과  
주  
요  
의  
제

### 1. 기본 실태 파악

1	귀하의 이름은?
2	귀하의 성별은?
3	귀하의 출생연도는?
4	결혼 여부는?
5	현재 하고 있는 일은?
6	현재 거주지는?

[2-1] 귀하가 면접조사 전 시행한 설문조사를 서울 거주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관계/커뮤니티 부문 의제였던 “존중”, “신뢰”, 라이프스타일 부문 의제였던 “웰니스”, “재미·즐거움”, “안정”, “결과”등의 의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귀하도 이와 같은 의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2-2]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언제부터 위의 의제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그 의제들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2-3] 기존 청년세대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청년세대는 “비정규직”, “창업”, “52시간 근로”, “부채”, “제테크”등의 경제·일 관련 미래의제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귀하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2-4] 기존 청년세대 문헌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 청년세대는 “존중”, “배려”, “문화적 개방성”, “사회적 약자 보호”등의 의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귀하도 이와 같은 의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2-5]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언제부터 위의 의제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그 의제들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2-6] 기존 청년세대 문헌 분석 결과, 청년세대는 “가족”, “커뮤니티”보다는 “개인”이라는 의제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실제 설문 결과, “가족”이라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귀하도 “개인”보다는 “가족”이라는 의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2-7]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언제부터 “가족”이라는 의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가족”이라는 의제가 더 중요해진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2-8] 기존 청년세대 문헌 분석 결과, 청년세대는 “이생망”, “현재를 즐기자”, “나의 감정·욕구”등의 현재 개인의 감정과 관련된 의제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실제 설문 결과, “자기계발”, “미래를 준비”라는 의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귀하도 미래 준비와 노력 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2-9]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언제부터 현재를 즐기는 것보다는 미래를 준비하고 노력하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자기계발”과 “미래 준비”라는 의제가 더 중요해진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2-10] 설문조사 결과, “타인의 평가”를 중요한 의제로 생각한다는 의견은 적었습니다. 반면,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 “공존”, “다양한 관계”등의 의제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귀하는 이처럼 다소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2-11] 설문조사 결과, 국가적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경제 위기”, “저출산”, “낮은 혼인율”, “초고령사회”, “1인 주거”등의 의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적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귀하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2-12] 또한, 설문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였던 “적폐청산”, “탄핵”, “촛불”등의 의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적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귀하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2-13] 설문조사 결과, “기후변화”, “재생에너지”등의 의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일부 있었던 반면, “탈원전”을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한 의견은 적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귀하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2-14] 설문조사 결과,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인 “기본소득”, “4차산업혁명”을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한 의견은 적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귀하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2-15] 기존 청년세대 문헌 분석 결과, 청년세대는 “온라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실제 설문 결과, “오프라인 관계”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귀하도 “오프라인 관계”를 “온라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나요.

[2-16]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언제부터 “오프라인 관계”라는 의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오프라인 관계”라는 의제가 더 중요해진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2-17]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의료공공성”은 중요한 의제로 평가된 반면, “전염병”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의제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귀하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2-18] 설문조사 결과, “결과”는 청년세대 모두 중요한 의제로 평가한 반면, “과정”의 경우, 밀레니얼세대가 Z세대보다 중요한 의제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귀하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2-19] 설문조사 결과, “사회 변화”는 중요한 의제로 평가된 반면, “사회 참여”는 중요하지 않은 의제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소 모순되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귀하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 3. 마무리

[3-1]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면접조사에서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다루지 못한 내용 중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바쁘신 와중에서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Seoul Future Agenda Selected by Youth Generation

We pay attention to the problems of the generation because we judge that the “generation” is fully fulfilling its role as a carrier to analyze and predic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a society. To get to the core of today's generation problems, understanding of the youth generation must precede. Therefore, i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oactively discovers the values and future agendas that the youth value, it will greatly help to prioritize the policies to be carried out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this study,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youth generation living in Seoul into the Millennial generation and the Z generation. As a subject of this study, Millennial Generation was defined as generation born between 1980 and 1994, Generation Z was born after 1995, and the survey development was prepared primarily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and the draft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researchers and consultation with experts, and future keywords were selected. Subsequently,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survey, the highest percentage in the top three was lifestyle and community / relationship, the highest percentage in the bottom third was economy / work, and the most important future topics chosen by the youth generation were wellness(well-being, happiness and health) and fun.

Although interest in the younger generation is growing, it is lacking in this study, but it is most representative academic significance to recognize the difference and to select the future agenda, given that they have rarely been

empirically studied at what level they are different from the older generation, how they differ from each other within the younger generation, and what future agenda the younger generation considers important.

**Key words :** Youth, Seoul, Future Agenda, Youth Generation, Generation, Millennials, Generation Z

---

116개 키워드로 살펴 본  
청년세대 가치관과 주요 의제 연구

서울연 2020-CR-17

---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